노인의 성(Sexuality)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권 명 숙

노인의 성(Sexuality)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지도 이 경 자 교수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권 명 숙

권명숙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년** 12**월** **일**

감사의 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위과정과 본 논문의 모든 단계에서 항상 세심하고 깊이 있게 지도해주시고, 미숙한 제가 성숙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배려해주신 이경자교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에 대해 같이 고민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조언을 해 주신 장순복 교수님, 항시 자상하게 지적해주시며 격려와 칭찬으로 보듬어주신 유일영 교수님, 연구방법에 대한 조언과 함께 바쁘고 힘든 상태에서도 예리한 지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신 김소선 교수님, 논문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도해주고 이끌어주신 김현미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의 준비과정에서 전체적인 틀을 잡도록 도와주신 김조자 교수님,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위로의 글과 사랑을 주신 황애란 교수님, 처음 학교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조원정 교수님, 김의숙 교수님, 이정렬 교수님, 그리고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눈길과 격려로 지지해주신 이태화 교수님, 김희순 교수님, 서미혜 교수님, 고일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학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저의 부족한 논문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해 주신 김미자 교수님, 논문의 시작에서부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자상하게 이끌어주신 박순영 교수님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스승님들이 베풀어주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더욱 성실히 노력하는 제자로 살아가고자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성심껏 연구에 참여해주시고, 연구과정동안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참여자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분들의 도움 덕분에, 처음에 어르신들이 같이 댄스를 하는 모습조차 스스로 민망해 했던 모습의 제가, 나이나 외적 조건에 상관없이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항상 발전하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이 깨달음은 제 삶의 귀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논문의 자료수집과정동안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그리고 자료의 녹취를 도와준 소라와 미희, 현진이, 논문정리를 위해 같이 애써준 보애씨와 혜림씨의 수고에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걸어온 사랑하는 친구 윤정이와 명아, 이동연 선생님, 희영이에게 우정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하여 헤매이고 있을 때나, 짜증내며 울적해 할 때나, 항상 저를 챙겨주며, 언제나 든든하게 옆에서 친구처럼 선배처럼 지지해주고, 많은 시간동안 저의 생각들을 들어주고 같이 토론하면서 연구주제 뿐 아니라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랑하는 동생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긴 기간 동안 한 식구처럼 계속 지켜봐 주고 격려해 준 선미언니와 이진서 목사님, 자료에 대해 예리한 조언을 해주고 우정으로 힘든 마음을 토닥여주던 한주와 제가 지쳐 쳐지지 않도록 여러모로 배려해 준 경화, 넉넉한 여유로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해 준 후배 성미가 있었기에 이 긴 과정을 지나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뜻 제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마음을 써주고, 새벽에도 일부러 나와 저의 귀가를 도와준 정옥이의 사랑에 제가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우정으로 곁에서 용기를 심어준 친구 미자와 언제라도 달려와 줄 마음으로 같이 해준 성은이, 제 투정도 잘 받아주며 위로해 준 기연이, 그리고 먼 타국에서도 잊지 않고 격려의 글을 보내 준 영이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의 미진한 생각을 들어주는 상담가로서 또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순간에 눈길에도 기꺼이 먼 길을 운전해주며 항상 든든한 후원자로서 자리를 지켜준 김태일 선생님께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잦은 심부름에도 기꺼운 마음으로 엄마의 훈훈한 정성을 날라다 준 후배 지선이게도 제대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마다 진심어린 격려와 조언으로 용기를 주신 정향인 선생님, 입학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조언해 주고, 멀리서도 저의 연구진행에 관심을 놓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격려해 준 박소미 선생님, 학위과정동안 함께 있으면서 항상 푸근하게 지지해 준 권인숙 선생님, 그리고 흔쾌히 많은 분량의 글들을 읽고 조언해 준 강희선 선생님과 서미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구방법에 대해 같이 고민해 준 경아와 바쁜 틈 속에서도 성심껏 도와준 희경이, 마

지막 힘든 고비를 웃음으로 넘길 수 있게 지지해 준 선영이, 힘내라는 말을 잊지 않았던 광숙이와 춘자, 그리고 저녁동무를 같이 해준 구민이, 제 실수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준 주혜, 밝은 웃음으로 도와준 은숙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었을 영진이를 비롯한 간호대 식구들과 선후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멀리 외국에서도 언제나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저를 위해 끊이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이모와 항상 잊지 않고 용기를 주신 막내이모와 이모부, 부족한 저를 항상 믿고 용기를 내라는 전화와 메일을 보내주신 이윤도 장로님과 여러모로 지켜주고 지지해 준 오빠내외와 사랑하는 조카 현아와 현준이, 그리고 진심어린 마음의 격려로 함께 해 준 파알도, 영동, 이승훈, 보그, 멋진이, 김선호, 그리고 상호선배와 태원선배의 우정에도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고마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혼자의 힘이 아니라, 저의 허물과 실수들을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사랑과 격려를 보내준 이들이 있었기에 제가 끝까지 해 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로서는 이 모든 사랑들이 한없이 고맙고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항상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시며, 꿋꿋이 걸어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신 부모님께 이 조그만 결실을 바칩니다.

'지금여기'. 또 하나의 시작에서 그 동안 힘들 때마다 제게 힘을 준 이 말을 되새겨 봅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즐거이 충실하게 보내면서, 보다 나은 모습으로 성장함으로써 도와 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2002년 1월

올림

차 례

차 례 i

국문 요약 iii

제 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제 2장. 문헌고찰

1. 성(Sexuality) 4
2. 노인의 성(Sexuality) 8

제 3장.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설계 16
2.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 17
3. 자료수집 18
4. 자료분석 21
5. 연구자의 준비 22

제 4장. 연구결과

1. 주제와 의미 24
2. 현상학적 글쓰기 98

제 5장. 논의

1. 노인의 성(Sexuality)에 대한 논의 102
2. 연구결과의 적용 116

제 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120
2. **제언** 123

참고문헌 125
영문초록 135

국 문 요 약

노인의 성(Sexuality)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이나 성인기에서 성이 삶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의 성 역시 건강과 생활의 질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따라서 질병위주의 간호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노인의 성에 편견이 크게 자리잡고 있고, 관련연구 또한 노인의 성기능에 초점을 둔 제한적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살아온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른 다양한 삶의 조건과 노년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신체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 의미로서 노인의 성에 대한 심층적 탐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성에 대한 심도깊은 고찰을 통해 노인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고자 진행된 현상학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의 현상학적 질문은 '노인들의 성(sexuality)은 무엇인가?'이다.

2001년 6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3개월 반 동안 총 12명의 참여자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연구참여자별로 진행된 면담횟수는 1회에서 4회였다.

자료의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절차는 Collaizzi (1978)가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노인들의 성에 대해 총 6개의 주제와 32개의 의미들이 추출되었고,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육체의 성적변화에 대한 대응, 제약적 환경에의 수용, 성적 감정의 재발견, 성정체성과 성역할의 재구성, 이상적인 관계의 이성에 대한 기대, 성의 의미 재확인

또한 노인의 성에 대한 본질적 구조를 보여주는 진술은 아래와 같다.

노인들은 젊음의 지표로 여기던 성기능이 저하되고, 타인을 통해 투영되는 자

신의 늙은 모습을 보면서 육체적 노화를 수용하게 되지만, 정신적 젊음으로 이를 보상하고자 한다. 이에 가면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 속에 각인시키고자 하나, 생각에 앞서서 발생하는 본능적 끌림과 구애적 자기과시는 자신을 성적 존재로서 재위치시킨다. 그러나 노인들의 자성예언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동조는 강요된 자기억압적 성적 표현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성별에 따라 방출욕과 접촉욕의 차이가 나고, 정력과 순결의 이중적 성규범은 일그러짐을 낳는다. 한편, 성역할에 대한 재구성으로 자유로운 관계의 형성과 힘의 조화로의 이동이 시작되며, 대치역할을 찾아 자신이 설 자리를 확보하고 의미있는 삶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또한 허물이 많은 현실의 모습을 개방할 수 있고, 이를 포용해줄 수 있는 이상형에 대한 염원을 가진다. 그리고 서로 동질성과 취약성을 공유하면서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추구하며, 이러한 관계는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갖게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한다. 생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활의 일부로서 더 이상 은밀하지 않은 성은, 성교 위주의 감각적 성에서 유희적이고 친애적 성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이로써 생활에 활력과 의욕이 소생하고, 더불어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의욕을 북돋아 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창조적 힘을 갖는다.

본 연구결과, 노년기의 성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차원의 기본적 욕구이자 친밀성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미와 자아발전과도 연결되는 근원적이며 창조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먼저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을 통해, 노인들의 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상담과 지지를 제공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긍정적인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구체적 방안들에 대한 모색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핵심되는 말 : 노인, 성(Sexuality), 현상학적 연구

제 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들은 성적인 존재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면 일반인들을 비롯하여 보건의료인들 대다수가 당혹스러워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성에 대한 개방화의 물결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성에 대한 주제가 오락, 예술, 문화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비중있게 다뤄지면서 활발한 성담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1997년부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성건강을 위한 학교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이나 성인기에서 성이 삶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년의 성 역시 건강과 생활의 질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곽영수, 1993; Hogan, 1980; AARP, 1999). 신체적 건강과 함께 활발한 성활동이 성공적인 노화의 보조적인 요소(Bortz & Wallace, 1999)임을 감안할 때,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젊은이 위주의 현대사회에서 팽배하게 존재하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심리와 편견은(최원기, 1990; 오세근, 1997; 오진주, 신은영, 1998), 노인의 성에 대해 더욱 두드러져 노인들의 성적욕구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송미순, 김신미, 오진주, 1997; Brown, 1989; Hillman & Stricker, 1994; MaCoy, 1997). 특히 우리 나라에서와 같은 전통적인 유교문화에서는 노인의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터부시하고 있으며, 노인의 성생활을 불순하고 주책스럽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박은경, 1999; 오세근, 1997).

더욱이 노인의 성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과 부정적 태도는 노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주요 구성요소인 노인관련 보건의료인들에게까지 만연되어 있으며(Hillman &, Stricker, 1994), 노인의 성에 대한 요구나 표현을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라기 보다 '문제행동'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무시하거나 남녀를 분리해 놓고 억제 등의 방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Steinke, 1997; Szass, 1983; Zimmer,

Watson & Treat, 1984). 그러나 Steinke(1997)는 인간의 성적 욕구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유지되는 본성 중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사회에서 간과하고 있는 노인의 성적 욕구를 '잊혀진 건강기능(Forgotten aspect of functional health)'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성은 한 개인의 필수 요소이자 기본적 권리이며(Miller, 2001),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존재방식으로서(Kessel, 2001; Waterhouse & Metcalfe, 1991), 인간을 모든 자연적 존재들과 동일한 유형의 삶을 유지시키는 재생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관계를 역동적으로 규정하는 다양한 국면을 가지고 있다(장영란, 황수영, 이혜정, 신지영, 강미라, 1999). 따라서 성을 단순히 성적 행위와 동일시하는 일반적인 경향은 잘못된 것으로, 성은 성적 행위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성적 느낌과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의 섹슈얼리티로 이해되어야 한다(김계숙, 1999; 조정옥, 1999; Ebersole & Hess, 1994; Laflin, 1996).

노년기의 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 Kinsey, Pomeroy 와 Martin(1948)을 효시로 60년대 Christenson와 Gagnon(1965), Masters와 Johnson (1966), Pfeiffer, Verwoerdt와 Wang(1968)의 연구로 이어지고, 이후 점점 많은 연구들이 노인들의 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Carr, 1996; Weidner, Altwein, Hauck, Beutel & Brahler, 2001),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러 연구들(오진주, 1998; 이미경, 1998; 이창은, 2000; 하상락, 김성이, 1986)이 진행되어 노년기에도 성생활이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채 노인의 신체적 성기능에 초점을 두고 성기능의 개선이나 성관련질환을 다루는 중재를 제시하거나 또는 실제로 노인들도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데 그치고 있어, 그 양과 내용의 깊이가 미미한 수준이다(오진주, 신은영, 1998; Loeher, Verman & Seguin, 1997).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유교적 전통이 강한 근대말기에 태어나 일제시대와 6·25 전쟁, 그리고 산업화시기를 거쳐 나온 세대이다.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상호관계 등의 차원에서 성 문제를 가지는 노인들에게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해결책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

보다 필요하다(Drench & Losee, 1996; Smedley, 1991). 따라서 시대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성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발달주기를 고려한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심층적으로 고찰될 필요가 있다(장영란 등, 1999). 또한 노인의 성에 대한 연구는 생물학적인 논리나 상업적 논리에 의해 재단되지 않고, 노인도 자신의 의사에 의해 성생활을 계속하거나 이성교제를 나눌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단순히 노령이라고 하는 생리적 조건에 의해 제약당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문장합,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인간의 제 현상을 포괄적으로 탐구할 수 있고(Munhall, 1989), 연구자의 시각을 확대하고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질적 연구(Narring, 2001)를 시도하고자 하며, 그 중 인간의 행동과 인간경험의 이해과정에 초점을 둠으로서 인간경험의 주관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Omery, 1983)을 적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기반으로 노인들의 진솔하고 생생한 진술들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성에 대해 심도깊게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들의 성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노인들이 성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간호중재개발의 기초가 제시되리라 사료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노인들의 삶의 다양한 조건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노인의 성(sexuality)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고자 하는 데 있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성적 자율성과 권리실현을 위한 간호중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노인들의 성(sexuality)은 무엇인가?'이다.

제 2장. 문헌고찰

1. 성(Sexuality)

우리말의 성(性)은 마음(心)과 몸(生)이 결합한 글자로 성행동이나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양성의 신체적·생리적인 차이와 성행동은 물론 가치관과 태도, 감정, 신념 등 심리적·문화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김계숙, 1999). 오세근(1997)은 성이 단순히 성적 본능을 충족하는 성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의한 자기표출이며, 인간과 인간의 다양한 교류 혹은 관계행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인간의 성적 욕구충족은 몸짓·기호 등을 포함한 언어 등의 의사소통이 개입하는 사회적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성은 서구의 sex, gender, sexuality의 이 세 개념이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조주현, 2000).

성의 개념정립을 위해 Sexuality의 뿌리가 되는 sex 란 말부터 따져보면, 이 말은 라틴어의 sexus 가 변화된 형태로 19세기 이전까지 이 말은 어원 그대로 section 의 의미, 즉 생식기적 차이에 근거하여 인류를 크게 남과 여,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 의미로 주로 쓰였다(윤혜준, 1998).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sex의 개념은 이러한 생물학적 요소들과 신체적 기능, 행위들, 감각들, 쾌락들을 인위적으로 종합해 놓은 개념으로 발전하여, 더 이상 본질적이고 자연적인 생물학적 조건이 아닌 인위적인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푸코 저, 문경자, 신은영 역, 1994).

또한 gender는 생물학적인 성에 근간하여 사회화의 결과로 형성된 성역할이나 남성의 기질 또는 여성의 기질을 말하며(한국브리태니커 사전, 1999), 페미니즘에서 남성과 여성집단을 구분하는 성차별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를 시도하기 위해 부각시킨 개념이다(라마자노굴루 저, 최영, 박정오, 최경희, 이희원 역, 1998).

마지막으로 sexuality 는 19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생물체의 성적 차이뿐 아니라 성적 능력과 성을 에워싼 문화, 관습, 제도 등의 종합적인 의미로 발전해 왔는 데(브리스토우 저, 이연정, 공선희 역, 2000), 윅스에 의하면 섹슈얼리티

는 신체적 차이, 성욕, 욕구, 환상, 출산능력, 성별 정체성들과 같이 서로 다른 수 많은 신체적, 심리적 가능성들이 한데 묶여 고안된 역사적 구성물을 뜻한다(윅스 저, 서동진, 채규형 역, 1997). 또한 푸코에 따르면 섹슈얼리티는 때로는 성적 욕망을 지칭하기도 하고, 동시에 성적 존재를 가리키기도 하며, 내적 현상과 외적 현상, 정신적 영역과 물질적 세계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푸코 저, 이규현 역, 1997). 그리고 양해림, 유성선, 김철운(2001)은 섹슈얼리티를 크게 4가지 요소로 설명하였는 데, 첫째, 성적 욕망, 심리, 실천들, 정체성, 이데올로기, 제도나 관습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적 요소들과 둘째, 여성, 남성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식이라고 하였다. 셋째로는 주로 성적인 중요성을 갖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삶의 측면들에 대한 개념으로 역사적 부산물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섹스에 관한 생각들, 일부일처, 독신제도 등과 같은 성적 행위 또는 사회적 관행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자로 자신을 규정하게 하는 성의 경향성과 정체성, 성적 욕망, 성적관계, 성의 정치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섹슈얼리티는 프로이드나 라깡의 정신분석학과 푸코의 담론과 결합되어 1960년대 이후 윤리적 정치적 거대담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섹스와 젠다와 관련된 복잡한 논의와 해석을 낳고 있다(최춘식, 1999). 윤가현(1990)은 젠다는 정신적, 문화적, 심리학적 개념으로서의 남녀를 구분할 때 쓰이고, 섹스는 생식기나 유전인자 그리고 성기를 중심으로 한 행위의 개념으로 70년대 말까지 널리 쓰였다가 80년대 중반에 들면서 일부 분화되고 파편화된 인간의 성 개념을 총체적인 것으로 접근할 필요를 느껴 섹스가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으로 변환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조주현(2000)도 섹스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섹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의 규제 체제의 틀 위에서 발생하며, 오직 그 체제를 통해 섹스를 경험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물세계의 짝짓기와는 다른 사회적 행위가 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섹스에 관한 생각들, 의미들, 사회적 관행들을 뜻하는 섹슈얼리티는 개인의 욕망을 창조하고 조직화하며 표현하고 특정방향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결국 사회적 존재로서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며, 이들의 관계가 사회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한편, 장영란 등(1999)은 성별이 능동적으로 개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동적으로 사회적 제도와 권력 구조에

의해 지배되기도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다양한 성담론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조주현, 2000), 성위기 담론은 성별이 섹스에 의해 주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성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여성 (sex)은 모성(gender)이 되며, 그것 이외의 길은 (여)성 일탈이 되며, 역사적으로 인위적으로 고안된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은 성위기 담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해방 담론에서는 섹스를 섹슈얼리티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성적 환상을 찾아 나서는 일은 인간을 해방시키는 일이 되고 그것은 성의 과학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페미니즘은 섹스와 성별에 대한 구분을 강조하는 데, 섹스는 생물학적이고 본질적인 것이지만 성별은 섹스와 관계 없이 사회구조와 문화에 의해 구성된 것이며, 따라서 사회제도 안에서 성별의 구분(역할이나 기질의 구분)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보건의료분야에서 성을 단순히 성적 행위와 동일시하는 일반적인 경향은 잘못된 것이다(Walbroehl, 1986). 성은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 또는 신체적 접촉에 의한 쾌락의 매개물에 그치지 않고 특정한 개인에게 대해 갖는 에로틱한 뉘앙스를 느끼는 정서적 경험이며, 한 개인의 여성성, 남성성을 확인시켜주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자, 자아정체의 인격적 존중을 포함하는 인성의 중요한 자원으로,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의 섹슈얼리티로 이해되어야 한다(서혜경, 이영진, 1997; 조정옥, 1999; Carr, 1999; Ebersole & Hess, 1994).

한편 19세기 중반 이후 대두된 성과학은 크게 에빙과 엘리스, 프로이드 이론으로 나뉘는 데, 에빙은 성을 충족에 대한 요구를 갖는 무소불위의 자연적 본능으로 설명하였다(김계숙, 1999). 또한 그는 남성보다 여성이 성적으로 더 많이 의존적이며, 남성은 사랑이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사랑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라 하여 페미니즘적 요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결국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차이로 법적 지위가 다를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는 결과를 낳아 여자들의 열등한 지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하우저 저, 이현정, 우종민 역, 2001). 그리고 엘리스는 성이 억제할 수 없는 충동적 힘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한걸음 나아가 성은 자신의 존재의 진리 전체와 관계되어 있다고 하였다(하재청, 류태형, 김병기, 노영복, 이경희, 1997). 한편, 프로이드는 성적 본능의 에너지인 리비도와

자아, 초자아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성을 무의식에서부터 끌어 올리는 공적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성을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화약고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였고, 여성의 음핵이 여성의 몸 안에 숨겨져 있는 남성적 이미지이며 여성이 자기 자신을 남성과 반대되는 것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남성적 측면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의 영향으로 본능의 추구는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억제되어야 하며, 여성과 남성의 지위는 본질적 차이로 인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사고가 현재까지 강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라이니쉬 & 비즐리 저, 이영식 역, 1992; 질먼 저, 이현정, 우종민 역, 2001).

이후 사회구조이론들이 가미되면서 생의학적 관점이 주류를 이뤄온 의학분야에서도 sexuality란 용어들이 등장하였지만, Woods(1987)는 여전히 대부분의 연구가 단일차원의 성적기능만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간호는 총제적 입지에서 성기능, 성적자아개념, 성적상호관계를 포함한 건강을 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Carr(1996)는 1980년대 sexuality에 관한 간호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8.1%만이 간호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였을 뿐, 대부분이 sexuality의 속성보다는 여전히 생의학적 입장에 바탕을 두고 성적 표현에 대한 결과인 성병, HIV/ AIDS, 신체적, 정신적 손상 위주로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성에 대한 개념정립과 역할진작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학술적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근래까지의 발달심리학은 출생부터 청년기까지의 변화나 발달에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는 데, 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신체적 발달과 함께 감각 기관의 성숙, 지적능력의 발달 등 상승적 변화에만 관심을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의 일생은 상승적 변화나 쇠퇴적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청년기 이후의 발달 역시 중요하며, 다행히 최근에는 아동이나 청년발달은 물론 성인발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전생애 발달심리학'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다(김태련, 장휘숙, 1994). 또한, 성의학의 대표자 격인 프로이드 역시 리비도의 집중부위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인간의 발달단계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유아기의 구강기 단계부터 사춘기 이후의 생식기 단계까지만 제시하고 사춘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브리스토우 저, 이연정, 공선희

역, 2000). 따라서 인간의 성장이 임신에서부터 노년기까지 매 단계에서 일어나며 연령에 따라 그 시기에서의 특정한 발달과제나 변화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노인의 성에 대한 고찰을 위해서는 그들의 발달 주기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생의 발달주기적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적 맥락 하에서 포괄적의미로서의 노인의 성(性)을 고찰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노인의 성(Sexuality)

성(性)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신체적 생식기의 차이에 근거한 남녀의 특성이나 성행위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성별, 그리고 성적 느낌과 정서, 성정체감과 성역할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인 섹슈얼리티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Buttler와 Lewis(1976), Steinke와 Bergen(1986)은 인간의 발달주기를 고려해 볼 때,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성은 그 자체의 목적으로서의 성, 즉, 기쁨, 이완, 의사소통, 친밀감의 공유로서의 성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노인의 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신체적 차원에서의 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노인뿐 아니라 성에 관한 선구적 연구를 시행한 Kinsey, Pomeroy와 Martin(1948)은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금기시되었던 당시에 미국의 5,300명의 남성과 5,940명의 여성들의 많은 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서 성적 능력이 크게 쇠퇴한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이러한 성적 욕구와 관심은 60대에도 지속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노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어느 순간 성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그리고 노인의 성적 반응에 대해 최초로 실험실의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Masters와 Johnson(1966)은 미국의 여성노인들이 노년기에도 상당한 정도의 성적 능력과 효율적인 성행위의 수행능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효율적인 성적 자극에 규칙적으로 접한 노인일수록 더욱 그런 경향을 보이며, 남성노인들의 경우 성적표현과 행위가 규칙적으로 전개된다면 건강여하에 따라 70대는 말할 것도 없고, 80대에서도 만족스런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한, Christenson과 Gagnon(1965)은 50세 이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생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접적 성교행위는 줄어드는 데 비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나 아닌 경우나 자위행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직접적인 성교행위에 수반되는 성교통증을 피하고 오르가즘에 대한 충족을 위한 것으로, 실제로 여성들은 남자들과의 성교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얻기보다는 자위를 통해 만족감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하였다.

이후 건강한 노인(Brogan, 1996; Pfeiffer 등, 1968)뿐 아니라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Finkel, 1972; Harris, 1998; Thomas, 1989; Stern, 1997)이나 또는 시설에 입소한 노인(Archibald, 1998; Bauer, 1999; Lyder, 1991; McCatney, Izeman, Rogers & Cohen, 1987), 그리고 여성노인(Altschuler & Katz, 1996; Fooken, 1994)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은, 노인의 성이 외면당하고 무시될 만큼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999년 미국의 대표적 노년단체인 미국은퇴자협회(AARP)가 미국 전역의 45세 이상의 1,384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성의식 조사 결과, 만 60~75세 남자 그룹의 경우 64%가 '배우자가 육체적으로 대단히 매력 있다'는 응답하였다. 이 수치는 만 45~59세 그룹의 59%보다 높은 수치로, 나이가 들어도 성적 욕구가 줄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평균 남자 72%, 여자 75%가 적어도 한 달에 한 차례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고, 만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남자는 26%, 여자는 24%가 부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인의 성에 대한 연구들은 성생활실태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서혜경, 이영진, 1997; 이미경, 1998; 이윤숙, 1993; 정동철, 1996; 하상락, 김성이, 1986)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60세 이상의 노인들 중 남자는 60-86% 가량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성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여자는 16- 30.9%가 성적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결과들은 성활동비율 뿐 아니라 남자의 경우 반 이상이 육체접촉을 희망하는 반면, 여자는 1/3- 1/2 가량이 정신적 교제를 선호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 성생활빈도와 성생활의 선호도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앞에서 제시한 AARP(1999)의 연구결과를 보면 성활동에 대한 남녀의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

음을 볼 수 있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고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여성이 훨씬 더 성에 대해 수동적이고 억압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60세 이상 더욱이 80대에 들어선 노인들이 성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또한 이를 통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흔히 노화와 함께 노인들의 성욕구가 무시되고 있는 사회적 풍토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신체적인 노화에 따른 성기관, 기능의 감퇴에도 불구하고 질병 등 다른 장애가 없는 한 성활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성을 단지 성적행위나 성기능으로 축소시켜 바라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생리적 본능차원 뿐만 아니라 성생활과 관련된 정서, 태도, 관계 등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을 다루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노인들의 이성교제나 재혼에 대한 태도나 실태, 그리고 적응경험에 대한 연구들(김태현, 한혜신, 1996; 서병숙, 김은진, 1996; 서혜경, 이영진, 1997; 임춘희, 1997; 조기동, 1993; 최복란, 1996)은, 은퇴와 함께 많은 상실을 경험하는 노년기에서 이성과의 관계가 성적 만족감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말벗과 타인을 위한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삶의 보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 조건임을 제시하고 있다.

Steinke(1994)도 미국의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각각 400명씩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성활동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성행위는 한달 평균 4회로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성에 대한 지식수준은 중간정도이며, 태도는 허용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Bortz 와 Wallace(1999)는 신체적인 건강 수준이 성적인 친밀감의 빈도와 관련 있다고 보고하였고, Masters와 Johnson(1981)은 노인들이 성생활을 계속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Walz와 Blum(1987)은 성생활이 노인들의 건강한 자아 개념을 유지하게 해 주고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배출구로써 작용하며, 신체적인 재충전과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우울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Ebersole & Hess, 1994에서 인용). Johnson(1998)의 연구에서도 자궁절제술이나 관절염, 고혈압 등 질병유무와는 관계없이 여자노인들 중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

각하는 노인들이 성생활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가 단순히 건강차원만 아니라 그들의 생리적, 정신적 섹슈얼리티의 중요한 차원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Rankin(1989)도 노인들 역시 전인적인 존재로서 상호관계를 즐기며 이러한 기쁨은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는 데, 그 중 가장 의미 있고 즐거운 것의 하나가 성적인 것이며 이것은 신체적이면서 정신적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성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차원을 가지고 있고,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건강과도 연결되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노인들의 성과 관련된 제한적 요소들을 밝히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Drench와 Losee(1996)는 노인기에 성적 활동이 중단되는 흔한 요인이 배우자의 상실이며, 노인들은 친숙한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비탄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성적인 자아 신념이 상실되면서 새로운 관계형성이 위기에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인 금기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거나 성적인 욕구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Nay(1992)는 노년기에서의 생활통제감의 상실, 고립감, 외로움은 성적욕구를 유일한 즐거움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죄책감과 개인생활의 부족 등이 성적 욕구를 제거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Ebersole과 Hess(1994)는 죄책감, 우울, 단조로움, 해결되지 않은 슬픔, 분노, 수행불안, 자기의심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노인들의 성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반복되는 성관계의 단조로움과 지겨움,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피로, 역할 상실, 낮은 자아 개념, 거부에 대한 두려움 등의 요인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성이 신체적면뿐 아니라 정서적, 인지사회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한편, Drench와 Losee(1996)는 Calderone(1971)이 제시한 친밀감의 5가지 요소로 선택, 상호관계, 상호호혜, 신뢰, 기쁨을 설명하면서 노인기에 있어서 이러한 친밀감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들의 신체장애, 태도, 환경적 요건이 친밀감 형성을 제한하게 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하였다. 즉, 나이 그 자체가 반드시 친밀감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아니며, 신체장애가 있는 노인은 자존감, 신체상, 성적인 것을 보존하기 유지하기 위해 노화로 인한 정상적인

신체 변화와 질병으로 인한 변화 두 가지의 짊을 지게 되므로 간호사의 지지자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Starr(1985)는 노인의 성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양상은 그들의 초기 성인기 때와 비슷하며, 신체적이거나 통계학적인 변화보다는 오히려 개개인의 사회문화적 경험, 초기의 성적 발달과 성에 대한 태도 및 인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편, 여성노인들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결과들(Altschuler & Katz, 1996; Bernhard, 1986; Fooken, 1994; Persson, 1980)은 여성의 성이 주로 남성의 성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신체적인 만족뿐 아니라 그녀의 삶, 인간관계, 정서의 맥락에서 여성으로서 자신에 대한 인지를 동반하는 상호관계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즉, 과거의 성적인 경험, 결혼상태, 나이, 교육적 수준, 폐경 후 상태가 여성에게서 성에 대한 관심이나 빈도, 그리고 만족도의 주요 예견요소로 나타났으며, 초기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성적으로 활동적인 여성이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비록 노인들의 성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하나, 성생활이나 이에 대한 관심의 변화를 결정하는 요소로 관습, 개인의 종교적 또는 사회적 특성, 교육적·경제적·직업적 수준, 파트너 유무, 신체적 상태의 성질과 심각성, 기동력, 약물의 효과 등 여러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을 제시하고 있어, 노인의 성이 단순히 신체적 측면에 국한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인지사회적 측면과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노인들의 성은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성의 한 차원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결과,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은 노인의 성에 대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Butler와 Lewis(1969)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노년기의 성과 사랑에 대한 문화적 부정주의(negativism)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단지 노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인에 대해 갖는 편견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맥을 같이하는 연령차별주의(ageism)라고 하였다. Butler와 Lewis의 이러한 비판이 제시된 이후로도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대중매체에서 형성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Harris 저, 최신덕, 김모란 역, 1998; Gerbner, Gross, Sinnorielli & Morgan,

1980). 또한 최원기(1990)는 현대의 경제력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경제적 생산능력이 없는 노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이를 한층 가중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이윤숙(1993)은 이와 같은 편견은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고가 노인에 대한 차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즉, 농업노동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던 농경사회에서는 농업생산과 인간생산을 결부시킴으로써 '성은 생식을 위해 있다'는 본질관을 낳았고, 따라서 생식능력이 왕성하지 못 한 어린이나 노인은 성의 세계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 노인의 성은 웃음거리가 되고, 이성과의 교제도 성을 떠난 관계만이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숙경(1993)은 우리나라의 성문화가 생식목적의 성만을 용인하는 성규범뿐 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이중적 성규범과 남성중심의 성관련 담론의 형성, 성의 객체화와 대상화, 진보와 보수의 혼재의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정절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반면 득남이라는 명분 아래 남성에게는 축첩이 인정되는 성의 이중적 윤리는 여성을 자식낳는 도구로 하락시켰고, 성을 성기중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출산을 위한 성 외에도 낭만적인 성, 인간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구현되는 성, 혼자 즐기는 성, 예술화된 성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성을 제한적으로 바라보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 전통 속에서 성장해 온 노인여성은 성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현대사회의 성 개방화 추세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임은옥(1999)도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이 가부장적인 질서와 비민주적인 부부관계로 특징지어지며, 근대화와 산업화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노인들은 이러한 질서 속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병숙과 김혜경(1998)의 연구에서도 여성노인의 재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남성노인의 재혼보다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노인 스스로도 혼자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 이성교제나 재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병숙, 김은진, 1996).

한편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과 보수적 태도는 비단 노인들(Steinke, 1988; White, 1982)과 일반인들(Covey, 1989; Walker & Ephross, 1999) 뿐 만 아니라 간

호사(Dickey, 1989; Smook, 1992)를 비롯한 의료인들과 노인시설종사자들(오진주, 신은영, 1998; Szass, 1983), 그리고 사회복지사(Fairchild, Carrino & Ramirez, 1996) 등 보건의료관련인들에게까지 만연되어 있다. Gibson, Bol, Woodbury, Beaton 과 Janke(1999)는 노인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가족이나 직원들이 입소노인들보다 더 노인의 성에 대해 보수적이었고, 간호사들이 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Kessel(2001), Piras와 Sansoni(1997)는 간호사나 간호제공자들이 스스로의 편견을 깨고 노인의 성문제에 대해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Williams, Lusk와 Kline(1986)의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신체, 인지 변화에 대한 개념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나이가 더 많은 학생이 어린 학생보다 노인의 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문화적 학습을 통한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는 데 있어, 직접 노인과 접촉한 경험이나 구체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해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Steinke(1994)의 노인들의 성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성에 대한 관심이 적고 특히 여성노인들이 더욱 성활동에 대해 무관심할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며, 보건의료인들에게서 이러한 정보나 조언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hite와 Catania(1981)는 노인들과 간호요양원 직원, 노인을 모시는 가족 각 30명씩을 대상으로 노인의 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사정한 결과, 3개의 실험집단 모두에서 지식점수와 허용적 태도가 교육 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medley(1991)는 성에 대한 긍정적 접근을 통해 심리적 편안함으로 중재토록 하는 PLISSIT(permission giving, limited information, specific suggestion, intensive therapy, Annon, 1974) 모델을 적용한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에 대한 사정과 함께 교육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적절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Rowland와 Haynes(1978)의 연구에서는 노인부부에게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의 향상과 정서적 즐거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교육적 중재가 노인의 성에 대한 태도와 지식에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들(Hammond & Bonney, 1985; Guarino & Knowlton, 1980; Steinke, 1988)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고찰해 볼 때, 문화적 환경에 의해 노인들 스스로에게 내재된 낡은 성도덕관과 자기억제와, 성적 존재로서의 노인들에 대한 주변의 몰이해와 편견이 실제로 노인의 자유로운 삶을 구속하고 이성과의 만남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억제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세근(1997)은 신체적 정신적 쾌락을 추구할 권리는 나이와 성별에 제한 없이 해당되는 것이며, 젊어서 누린 성에 대한 권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단절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들은 자신들의 성적요구와 관계를 억압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자기 결정성과 삶을 형성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문장합, 1999; 한영현, 1997; Brown, 1989).

그리고 오늘날 섹슈얼리티로서의 성이 중요한 이유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과정, 즉 경험의 격리와 친밀성의 구조변동이라는 두 과정을 연결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비억압적인 사회는 섹슈얼리티가 강박성으로부터 해방된 사회로 행동의 자율성을 가져오게 되며, 행복과 사랑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결부시킬 수 있는 개인생활의 윤리를 창조한다(기든스 저, 배은경, 황정미 역, 1996).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성은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존재방식이자 본능으로, 종족보존을 위한 생식의 욕구와 함께 사랑의 표현, 긴장 해소, 감정적 이완, 만족감 및 소속감에 대한 요소가 함축되어 있다. 또한 성이란 개인적 차원의 신체적, 정서적 느낌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형성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노인의 성에 대한 접근은 노인들이 노령이라고 하는 생리적 조건에 의해 제약당하지 않는 인간의 권리의 하나로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신체기능에 국한되거나 현대의 상업적 논리로 치우지지 않고, 노인들의 발달주기에 따른 특성과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노인들의 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 3장.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 설계

시대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성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량화되는 양적 연구가 아닌 삶의 조건들 속에 인간존재의 고유성에 대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Ritchie와 Spencer(1994)는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는 다른 목적을 충족시키고 독특한 정보를 제공하며, 질적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탐험과 함께 정의와 분류를 통해 현상을 설명하고 탐구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하였다. Munhall(1986)도 질적연구가 인간을 전인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간호의 철학과 일치하며,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간의 고유한 경험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의 일종으로 연구참여자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귀납적이고 기술적이며 일종의 철학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Omery, 1983). 그리고 참여자의 실제에 집중하여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관심현상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표현으로 주관적, 객관적 실제를 결합함으로써 과학과 철학의 입장을 가지고 간호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Oiler, 1986). 이 방법의 목적은 그 경험에 참여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포함하여 살아 있는 경험의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현상학의 기본적이고 솔직한 개념은 경험의 대상이라고 이해되는 현상이며, 현상학적 접근방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연구현상인 경험에 대해 주관적인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다(Crotty 저, 신경림, 공병혜 역, 2001).

본 연구는 노인들의 성에 대한 심도깊은 고찰을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이를 위한 현상학적 질문은 '노인들의 성(sexuality)은 무엇인

가?′ 이다.

2.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

현상학자는 연구주제에 대한 자신의 전제를 밝히기 위해 연구자 자신의 접근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연구주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 주제에 대해 연구자가 생각하고 있는 전제를 스스로 검증할 때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한 어떤 믿음, 가정, 태도 및 예감을 발견해 낼 수 있다(Collaizzi, 1978).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에 앞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성에 대한 전제를 기술해 보았다.

연구자의 노인들의 성에 대한 전제 :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노화과정을 통해 성기능이 감퇴되고 욕구도 또한 감소된다고 보나, 이러한 양상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성은 단순한 성행위만을 뜻하지 않고, 또한 성의 의미는 삶의 주기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있어 성이 갖는 의미와 성적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은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자 자신의 전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비교분석하고, 연구질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2001년 5월말부터 6월초까지 3명의 대상과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들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시각에 대한 견해가 상이하였고, 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나 성적 실현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였다.

연구자의 전제와 사전조사에서 만난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통합하여 관심현상에 대한 하부의 연구질문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연구자 자신의 전제나 편견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연구자의 가정을 옆으로 젖혀두기(괄호치기)를 하고 본 조사에

들어갔다.

3. 자료수집

1) 연구참여자

관심현상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연구참여자수는 달라지게 된다(Collaizzi, 1978). 연구현상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택함으로써, 연구현상의 설명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얻어내고 질적 연구 표본 선택의 적절성과 충분성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인지기능이 있고, 자신의 생각을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가진 연구참여자를 선택하였다.

연구참여자: 65세 이상의 총 12명의 노인들이 참여하였는 데, 성별은 남, 녀 각각 5명과 7명, 결혼상태는 사별자가 5명, 기혼자가 5명(부부 한 쌍 포함), 이혼자가 2명이고, 종교는 기독교가 2명, 무교 9명, 기타 1명이며, 학력은 대졸 5명, 대중퇴 1명, 고졸 4명, 중졸 2명이다.

사례 1 : 박(남/ 74)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

사례 2 : 민(여/ 73)은 61세때 남편과 사별하였고, 이성친구와 연인사이로 지내고 있다.

사례 3 : 박(여/ 66)은 약국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외손녀를 돌보고 있다.

사례 4 : 우(여/ 74)는 42세에 사별하였으며, 결혼기간은 16년이었다. 3남 2녀를 두고 있고, 아들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사례 5 : 김(남/ 66)은 10년 전 이혼하였고, 1남 1녀를 두었으며, 현재 어머니와 살고 있다. 6년전부터 사귀어온 이성친구가 있다.

사례 6 : 김(여/ 83)은 육이오때 남편과 헤어진 뒤 재혼하였고, 재혼한 남편과 사별한지 5년이 되었다. 딸이 한명 있으나 혼자 살고 있다.

사례 7 : 김(남/ 78)은 84년에 사별한 뒤로 3년 후 재혼을 하였으나 5년전에 이혼하였다. 현재 아들내외와 살고 있다.

사례 8 : 이(여/ 69)는 배우자와 함께 51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3년 전부터 두 부부만 살고 있고, 막내아들네 손주를 돌보고 있다.

사례 9 : 임(남/ 72)은 사례 8의 남편으로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

사례 10 : 박(남/ 77)은 현재 부인과 38살 때 재혼하였고, 6년전부터 다른 여성(현재 61세)과 연인으로 사귀고 있다.

사례 11 : 신(여/ 66)은 일찍 사별하고 딸과 함께 살다가 현재는 혼자 살고 있다. 연인으로 사귀는 이성친구는 없다.

사례 12 : 권(여/ 72)은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하고 3년전 아들을 잃은 상처가 크다. 현재 둘째 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 접근: 연구참여자 확보를 위해 알찬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모임(이하 알노생)에 나가 그 기관의 실장님에게 연구목적으로 설명하고 허락을 먼저 구하였다. 이후 5차례에 걸쳐 연구참여자들과 함께 노래교실과 댄스교실, 그리고 서예교실, 기체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다과를 준비하여 소담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 동안 관찰되었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연구참여자들과의 거리를 좁힌

뒤, 언어표현력이 뛰어난 분에게 연구동의를 얻어 면담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녹취록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추가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참여자의 소개를 통해 다른 연구참여자를 만나거나, 세 곳의 노인복지관에 공문을 보낸 뒤 이들 복지관을 방문하여 운동프로그램과 무용발표회에 참관하였고, 이후 간단한 모임을 두 차례 가진 후 그 중 활발하게 얘기를 해 주셨던 노인분 들 중에 연구참여에 동의한 분을 대상으로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한 연구참여자는 수영교실에서 만난 분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연구에 흔쾌히 동의를 하여 연구참여자의 댁에서 면담을 하였으며, 다른 한 연구참여자는 친구의 어머니로 그 집에서 편하게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 다른 한 연구참여자는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으로 신뢰감이 형성된 관계였고, 노인프로그램 강사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연구참여자는 전화로 사전동의를 구한 뒤, 사무실에 찾아가 1시간 여에 걸쳐 그 분의 철학에 관한 강의를 듣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신뢰감을 쌓은 뒤 면담을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고려: 본 연구자는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익명성의 보장과 연구참여자 및 면담내용에 대해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연구에의 참여는 강요가 아니며, 중간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면담내용에 대한 녹음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뒤에 시행하였다. 연구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례는 연구참여자의 취향에 맞는 선물로서 매 면담시 답례하였다.

2) 자료수집

2001년 6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3개월 반 동안 12명의 참여자와 면담을 1회에서 4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면담시간과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가능한 시간에 맞추었고, 면담자가 편안해 하는 장소를 선택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관의 상

담실이나 연구자가 속한 학교의 빈 강의실,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집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는 데, 특히 부부참여자의 경우 연구참여자가 편안해하고 가족간의 상호작용과 일상적 역할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의 집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분석한 의미에 대해서는 주정보자를 포함한 3명의 연구참여자와 각각 1-3 시간에 걸쳐 타당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직접 만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추가질문이나 자료에 대한 확인작업을 수행하였다.

면담의 진행동안 연구자의 견해가 연구참여자의 구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연구자의 가치에 근거한 어떠한 판단이나 부정, 비판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유도질문이나 해석적 질문을 삼가면서 개방적이고 비구조적인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솔직하고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하였으며, 현장노트를 같이 기록하였다. 면담이 끝나면 즉시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현장노트를 보완한 뒤, 연구보조원이 연구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면담 도중 중요하게 생각되는 의미들과 연구참여자의 반응은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녹취록은 연구자가 다시 녹음테이트를 들으면서 수정하였고, 불명확한 부분은 전화나 다음 면담시 확인을 통해 수정하였다. 면담 도중이나 면담을 마치고 필사하는 과정에서 떠오른 생각들은 이론적 메모에 기록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수행하였는데, 분석절차는 Collaizzi (1978)가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1단계: 연구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 면담상황을 떠올리면서 녹음된 면담내용을 반복하여 듣고, 주의하면서 녹취록을 수차례 읽었다.

2단계: 연구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에서 노인들의 성과 관련된 의미있는 문장이

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각 진술마다 특수한 의미를 갖도록 하고, 그러한 특수한 의미들을 좀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로 구성하였다.

3단계: 각 진술들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특히 정확하게 묘사될 수 없는 것에 몰두하여 반복해서 읽은 뒤에, 연구참여자의 표현에서 연구참여자가 의미하는 것으로 도약해서 옮기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원자료에서 기술된 내용에서 노인의 성에 관한 다양한 맥락과 범위 안에 감춰져 있는 의미들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4단계: 각각의 원자료에 대해 위의 단계를 반복한 후 의미들을 주제별로 조직하였다.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를 범주화한 후 이들 주제가 원자료와 맥락적으로 일치하는 지, 빠진 내용은 없는 지, 범주화 과정에서 어색함과 모순이 없는 지에 대해 연구자 스스로 질문해 보거나 현상학적 연구경험이 있는 동료연구자와 의견을 나누고, 타당하지 않으면 원자료로 돌아가 진술의 의미를 다시 음미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상학적 반성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연구참여자가 의미한 내용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간호학과 교수 4인과 철학과 교수 1인 및 사회학과 교수 1인의 자문을 구하였다.

5단계: 선행단계를 통해 노인의 성에 대한 현상을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기술하였다.

6단계: 가능한 한 5단계의 진술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노인의 성에 대한 본질적 구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현상학적 글쓰기를 하였다.

7단계: 주제로 밝혀진 것은 연구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연구자가 생각한 주제의 본질이 연구참여자가 의미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전문가 5인에게 연구결과로 본질이 제대로 추출되었는 가를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밟았다.

5.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 강의를 1학기 들으면서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실금 노인의 경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 노인정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에 대해 면담을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기능의 쇠퇴로 스스로의 성적욕구에 대해서도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많이 관찰하였고, 특히 사회적 체면이나 전통문화 속에서 타부시했던 관념으로 인해 성욕구에 대한 언급조차 기피하는 현상을 보면서 노인의 성에 대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실감하였다. 특히 여성노인들의 경우 이러한 편견 속에서 더욱 자유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현재 연구자는 노인간호학 전공 교수 1인과 치매노인가족들의 지지프로그램개발 연구 중 1차년도 연구로 치매노인가족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사회학과에서 개설한 질적 연구방법론 강의를 수강하였다. 그리고, 2001년 3월 30-31일 '질적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Interview method'를 주제로 열리는 질적 학술대회에 참여하였고, 질적 간호 정기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제 4장. 연구결과

1. 주제와 의미

본 연구결과, 노인의 성에 대해 총 6개의 주제와 각 주제에 따른 32개의 의미들이 조직화되었다.

주제 1. 육체의 성적변화에 대한 대응
① 신체적 감퇴에 대해 정신적 젊음으로 보상하다
② 젊은 시절 성교에 의한 쾌락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다
③ 성적 상대로서의 역할제한에 대해 역설적 태도를 취하다
④ 지난 삶의 경험이 반영되어 성생활양상이 지속되다
⑤ 성적 표현의 선호도에 대한 성차와 성적표현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다
⑥ 변함없는 성적욕구로 자기안위와 내적 자신감을 가지다

주제 2. 제약적 환경에의 수용
① 타자지향적 성향으로 사회적 규범에서 요구하는 억제된 성적 행동을 취하고자 하다
② (여성노인들은) 이성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다
③ 육체적 현실을 의식적으로 각인하여 성적욕구를 통제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인지하고자 하다
④ 성적욕구억제를 위한 대안적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자존감 상승을 꾀하다

주제 3. 성적 감정의 재발견
① 이성과의 만남으로 성적 감정을 새롭게 체험하다
② 이성의 관심에 대한 구애적 욕구로 자신을 장식하다
③ 이성과 어울림에서 동성모임과는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즐기다

④ 성적 존재로서의 생명력에 대한 확인을 기대하다

주제 4. 성정체성과 성역할의 재구성

① 성별에 따라 다르게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인지의 변화를 보이다

② 새로운 역할수행에 대한 수용적 자세로 자신의 설 자리를 찾고 삶을 통합하고자 하다

③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자유로운 관계를 원하다

④ 서로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상대를 찾아 힘있는 삶을 얻고자 하다

⑤ 여생의 동반자로서의 이성에 대한 존재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남녀간 힘의 균형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다

⑥ 노인의 올바른 성역할 모델이 부재한 사회풍조에 대해 비판하다

주제 5. 이상적인 관계의 이성에 대한 기대

① 허물을 감싸주는 안식처로서의 이성을 기대하다

② 서로 맞춰가며 상호보완하는 조화로운 관계를 원하다

③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합일의 관계를 추구하다

④ 나의 존재의미를 확인시켜주는 동반자를 갈망하다

주제 6. 성의 의미 재확인

① 성은 본능으로서 신성하다

② 성에 대한 은밀함이 덜어지고,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다

③ 성기능은 힘과 생명력의 상징이다

④ 성적 표현은 건강한 심신을 보존하게 한다

⑤ 생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유희물로 기능하다

⑥ 성교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를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로 전환하다

⑦ 음양이 만나 부족함과 갈등을 메꾸는 하나로의 화합에 대한 추구이다

⑧ 친밀성의 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과 의욕이 소생하고, 자기발전의 적극적 계기가 제공되다

주제 1. 육체의 성적변화에 대한 대응

① 신체적 감퇴에 대해 정신적 젊음으로 보상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여전히 젊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었다. 노화과정에 따른 육체적 변화들을 간혹 자신의 나이와 연관지어 생각해보기도 하나 실제로 자신이 늙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참여자들 중 남자노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70세를 넘기면서 몸의 감퇴를 알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감퇴는 주로 성기능(에너지, 발기력)의 감퇴이다.

> 70이 넘으니까 갑자기 기억력이 상실되더라고.. 그 다음에 마음은 있어도 육체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성이 극도로 감퇴된다는 거.. 바로 느끼는 게 이 3가지지.....(중략) .....이래서 내가 이제 나이를 먹는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지.. 그 다음에 지금도 마음은 내가 늙었다는 마음이 안 들어요, 젊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례1, 남/74)

여자노인들의 경우,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에 폐경이란 육체적 변화를 겪었지만, 이 시기는 생물학적 나이가 노인기에 접어들기 이전이기 때문에 폐경으로 인해서 노년임이 실감되지 않고 내면으로 감추어졌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동년배들과 어울리면서도, 자신은 그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른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자신을 비추지 않는 거울'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타인의 모습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나이듦을 인정하게 되지만, 나이라는 객관적 진실은 여전히 외양에 불과하고 이상한 가면을 빌려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 사람이 늙으면 이상해요..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참.. 내 나이 또래가 나와도 '아유, 저 여자는 뭐 저렇게 생겼냐..' 싶어.. 한마디로 늙은이 같애, 그런데 나는 안 그런 거 같으다고.. 그래서 남편보고 "어유, 저 여자 되게 늙었네, 그죠?" 그러면 "당신도 그래" 그런다

고.. 그런데 내가 이제 마음을 먹고 모양을 내고 나가거나 사진을 찍거나 그러면 한 15년은 젊어 보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생각할 때에 화장을 한 자신을 생각해, 언제든지.. 그러니까 진짜 제 얼굴을 보면 너무 놀란다고, 평소 때에.. 아니 이게 정말 내 얼굴인가 싶어서 말야.. (사례 2, 여/66)

한편 참여자들 모두 자신에게 이성에 대한 느낌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몸의 변화에 관계없이 마음은 젊은 상태의 마음 그대로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음이 젊기 때문에 자신들의 육체적 노화에 대한 거부가 정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신체적 노화에 대한 인정에 대해 정신적인 젊음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정말 똑같애요, 삼십 대 때하고.. 이 갖고 있는 마음은.. 그 사람들은 친구끼리 손잡고 놀러도 다니고, 또 그러죠? 나도 똑같아요. 나도 그 마음이야.. 나도 딱 그 마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늙었다, 이젠 다 살았다, 모든 게 다 허무하다.. 이런다는데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죽음이라는 거는 도대체가 생각도 안 하고, 또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는 항상 마음이 젊어.. 뭐 연속극을 봐도 남녀가 포옹하고, 연애하는 거 보면은 꼭 내가 하는 거 같고, 내 마음이 꼭 그 마음이야.. 꼭 어린아이들 같애.. 텔레비전에서도 그러잖아요.. 요즘 연속극에서 늙은이라고 너희들하고 하는 생각이 다를 줄 아냐.. 늙어도 마음은 젊다..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늙었다, 늙었다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듣기가 싫어.. 진짜 이 마음은 젊음 그대로에요.. 물론 체력은 좀 딸리고, 뭣 좀 하면 금방 힘들고 그런 것은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뭐든지 젊은 사람들하고 같으다고 난 생각해..(사례 4, 여/74)

② 젊은 시절 성교에 의한 쾌락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다

참여자들은 젊을 때와 달리 발기시간이나 성생활 횟수, 그리고 성적 기교 등 전반적 성생활에 관련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느끼지만,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려 한다. 때로는 스스로 건강을 고려하여 성행위를 자제하기도 하지만, 성행위를 통한 쾌락이나 만족감이 젊은 시절과 달리 감소한 데 대해 불만

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마음과 달리 따라주지 못하는 몸 상태에 대해 아쉬움과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김(사례6, 여/ 83)의 경우 성기능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남성의 발기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국한하고 있는 것은, 성을 남성위주의 성기중심적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젊어서는 삼십 분이고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지만은 나이를 먹으면은 그게(발기시간이) 자꾸 줄지요.. 그런 거예요, 줄어.. 30분이 20분, 10분.. 그렇게 계속 줄어.. 그러다가 5분도 안되고 계속 줄다가 아예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나이 들었다는 게 그런 거지.. 남녀간에 서로 나이가 먹으니까 결핍이 되고.. 그래서 맘대로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사례 6, 여/83).

> 젊었을 적에는 시간도 오래 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주도 부릴 수 있고,, 그런 힘이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성기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배출량도 적고, 그 배출량이 적음으로써 쾌락, 만족감도 덜 느끼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시간도 짧아지고, 발기력도 약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그렇게 약해진 것에 대해서는) 불만스러운 거죠, 뭐.. 불만.. 젊었을 적하고 비교하면 불만스럽죠.. 그래도 접촉 안 한 것보다는 낫다.. 그렇죠.. (사례 5, 남/66)

> (육십에 접어들면서 성행위의) 횟수는 줄지만 나는 그래도 비교적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횟수는 많았다고 봐야 돼.. (중략) 육십 다섯 때쯤에는 한 달에 한 4~5번 정도로 했지.. 사별한 부인하고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했고.. 재혼을 해서는 이제 한 두 차례씩 줄어들고 그랬지.. 칠십 넘어서도 비슷하고.. 그것이 이제 사용을 함으로써 연습이 되고, 또 안 쓰면은 1년이고, 2년이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래.. (중략) 그래도 (성행위에 대한) 욕심은 마찬가지더라구.. 그렇지만 자연적으로 건강이라던가, 자신의 체력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횟수가 줄어드는 셈이지.. (중략) (만족감) 그것은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은 것이, 젊었을 적보다 그게 기능이 약해지거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지.. 그래서 쾌락이라는 것을 조금 덜 느끼고, 뭔가 다 채우지 못한... 젊을 때와 달리 아쉬움이 남지..(사례

7, 남/78)

③ 성적 상대로서의 역할제한에 대해 역설적 태도를 취하다

여자노인들은 폐경기를 지나면서 성관계시에 분비되는 질분비물 양이 감소되어 제대로 윤활유역할을 하지 못해 성교통증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마다 다소 정도의 차가 있긴 하나, 심한 경우에는 면도칼로 생살을 도려내는 듯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성행위에 있어 수동적인 여성은 이러한 고통에 대해 배우자에게 표현하거나 서로 상의하여 다른 방도를 모색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참아내려 한다. 부부관계에서 이러한 고역스런 경험이 지속됨에 따라 여성노인들은 성행위로써 얻어질 즐거움과 만족보다는 고통의 비중이 크게 다가온다. 따라서 스스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 대한 기대가치가 낮아지고, 다른 도구나 약품을 통해 해결방편을 찾으려 하지 않고 회피의 대응방책을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자노인들은 성행위를 받아주지 못하는 자신이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 여기고, 이로 인해 배우자에 대해 미안함과 죄책감마저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아내들의 고통에 무지한 남편들은 불만이 쌓이고, 심지어는 오해하여 여자들이 내숭을 떤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결국 불만을 토로하는 남편에게 당당하게 이해를 요구하지 못하고 여자노인들은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에게 굴욕적이고 금기적 행위인 남편의 외도를 권하는 역설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 그러니까 여자도 60대 갓 넘어서는 참을 만하고 그렇지만은 60대 후반이 되고 그러면은 아프고 그래요.. 마르잖아..(중략) 나는 그런 시기를 일찌감치.. 내 체질 관계인지는 몰라도 육십이 넘어가면서 나는 생각은 있어도 내가 아프고 귀찮으니까 자꾸 멀리 해서 그렇게 간절하고 그런 맘은 없었어... (중략) 내가 구찮고 싫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 남자 쪽에서는 불평이 많지.. 많으면 당신 맘대로 하시오, 그래도 또 맘대로 하지는 못하지.. 그러니 남자도 참고 그러는 거지, 뭐..

(중략) 관심이야 있지만은 싫으니까..(중략) 관계를 하게 되면은 그전 젊을 때처럼 좋지를 않으니까.. 아프고.. .. 그런데 통증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질도 다 마르고 그래서.. (중략) 그러니 그걸 누가 좋다고 그래요? 남자는 그런 거를 모르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덤비면은 싫다 그러니까 왜 싫으냐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싸움이 생기고 그러죠.. 아픈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례 6, 여/83)

그 전에는 막판에 내가 남자가 저기(성관계)를 하는데 내가 처음엔 참아줄려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내 맘대로만 사냐 싶어서.. 그런데 그게 면도칼로 생살을 도려내는 거처럼 아픈데 어떡하겠어.. 그렇게 하고 나면 한 이틀을 아파서 그래하고 그랬지.. 우리 양반은 또 호르몬 치료를 싫어한다고, 그거 하면 유방암 검사도, 건강검진도 자주 해야되고.. 그게 다 귀찮고 그러니까.. 거기서 밥 나오고 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대충 살자고 그러거든? 그렇게까지 밝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런데 예전에도 이러더라고? "야 너 계속해서 그러면 나 나가서 자고 와도 되냐?" "나가서 자고 와요.." "그런데 내가 에이즈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 "에이즈 걸려도 당신 문제지.. 당신이 에이즈 걸려서 죽던지 말던지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지.."...(사례 3, 여/66)

④ 지난 삶의 경험이 반영되어 성생활양상이 지속되다

이(사례 8, 여/ 69)는 어릴 적 아버지의 외도로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했던 모습 때문에 이성간의 어울림에 대한 경계심이 형성된 데다, 결혼 후에도 4대 어른을 모시고 살면서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지내왔다. 따라서 현재 스스로 보기에도 별스럽게 부부관계에 무심한 것에 대해 옛날의 습관이 본성처럼 박힌 탓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결혼 초부터 부부간에 적극적인 성생활을 한 민(사례 2, 여/ 73)은 사별 후 혼자 지낸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았고, 이후 적극적으로 이성교제를 해오고 있다. 그리고, 성행위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다른 여자노인들에 비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데 적극적이며, 육체적 성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어렸을 적 보아왔던 부모님과 주변 친척들의 관계,

그리고 신혼기를 거쳐 자녀들을 낳고 출가시켜 보낸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노년기의 성생활양상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젊었을 적에는 아저씨가 .... 건강하질 못했어. 근까 어른들 말이 아, 시골 옛날 노인네들은 관계를 많이 가지면 남자들이 약해진다 그랬잖아 그런 거시기로 해갔고 난 아무리 생각있고 해도 자기가 다가오길 기다리지 난 안 해.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무심하다고. (중략) 남자들 있는데 아예 가도 안 해. 사무실도 안 가. 자체가 싫어 그러니까 안 해. 어찌 보면 별스럽지. 별스런 사람이다 그러겠지 나한테. 그렇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교육계 계신데도 그렇게 작은마누라를 얻었는데 그렇게 밉더라고. 그러더니 본성인가 그게.(중략) 그렇게 싫더라고. 엄마가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도 밉고 자체가 싫어. 옛날 그 본성이 배겨버렸어. 4대가 우리 증조모님까지 모시고 살았는데, 시집와서도 4대를 다 모시고 살았잖아. 옛날 본성이 딱 박혀버려서 현대에 와서도 거리가 멀어. 남편에 대해서도 살갑게 다가가질 못 하지...성격이야.. (사례 8, 여/69)

거기서(일본잡지에서) 배울 게 참 많아요. 일본여자들이 남편한테 하는 거... (중략) 이런 건 배워서 우리가 해봐도 되겠다하면은 이렇게 오려놨다가(가위질하는 시늉) 저녁에 보라고 그래. 신랑을 밤에... 그러면 읽어보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노력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그런데는 문제가 하나 없이 우린 정말 재미있게 살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중략) 남자라는 걸, 친구를 사귀어보니까 그러면은 다 좋더라 그거야. 느낌은 다 있어요, 느낌은 있지..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 66세에(남편) 63세면은 웬만한 집들은 그거 성생활도 못하는 집이 많아요, 안 된다고. 그러고 여자가 싫다고 그러고... 여자가 바보들이지 뭐. 여자도 멘스 끝나 가지고 너무 빡빡하고 이러면... 약들 종류도 있어. 그럼 그게 치료도 되고 미끄러워서 남자도 잘 들어가고. (중략)..질에는 어떤 약이 있다든지, 애무를 여자는 남자한테 어떻게 해서 골인을 해서 끝까지 즐길 수 있게 하는 거라든지, 그런 요법 같은 것을 배워야 해요, 모르면은.. 무식하면 남자 여자가 좋지도 않아.. (중략) 내가 지금 이렇게 늙어봤지만은 그게 63살까지는 그렇게 마음대로 똑같이 된다고... 그리고 70이 넘은 지금도 될 거다 확신해 난.. 욕구가 있고 마음으로는 욕

구가 있고 데이트 같은 거야, 얼마든지 해도 되지 뭐. 응? (사례 2, 여/73)

⑤ 성적 표현의 선호도에 대한 성차와 성적표현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다

여자노인들은 노인기에도 여전히 남자들이 사정중심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스스로는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접촉을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고 표현하였다. 즉, 남자들은 신체적 쾌감을 얻기 위해 접촉을 원하며, 여자들의 경우 정서적 만족감과 소속감을 원하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방출욕과 접촉욕으로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여자노인들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욕구가 남자보다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표현에 대한 선호도나 적극성의 차이 역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박(사례 10, 남/ 77)은 남자노인들의 욕구가 스스로 일어나는 데 비해, 여자노인들은 남자에 의해 유발된다고 믿고 있다.

남자는 하여튼...어떤 할아버지를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부인이 돌아갔는데, 나이가 80인가 그렇다는데...그렇게 그냥 마누라 생각이 간절하고, 귀신이라도 막 때려주고 싶대. '왜 날 두고 혼자 갔냐'고..그렇게 그냥 그립고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만지고 싶대. 그러니까 또 어떤 할머니가 짓궂게, '그냥 아쉽고 그리운 게 아니라 어디가 그렇게 만지고 싶으냐'고 그러니까 그 양반은 고상하지 못하고 젖퉁이가 만지고 싶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래. 그거 보면은 그게 남자들의 표현이야 하여튼 친구고 뭐든, 친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딘가를 손도 자꾸 만지고 싶고 그게 남자거든. 근데 여자들은 별로 그런 건 없잖아. 손잡고 거닐고. 안기는 거 막 그런 거는 좋아하지 여자두. 남자가 더 적극적이고 강한 거지. 마음이 만지고 싶지, 남자들은. 80, 90에 가까운 할아버지도 그러더라고. 남자가 다 그런가보다 그래. 우리 동창들도 만나면 다 그래. 만지고 싶대. (사례 4, 여/74)

남자들은 그렇게 친구처럼 만나도 성적으로 갖고 싶어해, 여자를. 근데 여자들은 60 지나고 그러면 별로 그런 게 없어지는데 남자들은 달

라. 70넘어도 남자들은 여자를 원해. 상대해보면 그렇더라고. (중략) 그냥 말벗으로 지내다가도 얘기를 해, 말로 한다고. 여기도 끝나고 나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다가 얘기를 한다니까, 노골적으로... (사례 11, 여/66)

나이가 많은 나도 유방을 보면은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 그것은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래 행동이 늦는 나도 만지고 싶고 그런 맘이 드는데, (중략) 여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초에 남자라는 자극을 통해야 된다 하는 반면, 남자는 그렇지가 않아서 스스로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사례1, 남/74)

참여자들은 성적표현에 대한 양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외모 중심의 육체적 매력에서뿐만 아니라 상대의 분위기나 성격, 생각 등 내면적인 매력에서도 성적 욕구를 느끼기도 한다. 한편 나이가 들면서 여자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남자노인들도 사정으로 끝나는 성적 표현에 국한되지 않고 윙크나 포옹, 서로를 애무해 주는 데서 기분이 좋아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성적표현이 생식기 위주에서 좀 더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극에 의해서도 욕구가 생기고, 또 마음이 어딘가 참 요조숙녀다 하는 데에서도 그런 욕구가 생기기도 하고, 착하다 그래도 욕구가 생기고, 또 외모에서도 그런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참 올바른 정신을 가진 여자구나 하는 생각을 통해서도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그것을(생식기) 서로가 맞대고 옛날 식으로 성교를 하고 그러는 것이 내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외부에서 외적으로 하는 ... 그 외적인 방법이 틀려졌다, 많이 발전했다 그런 거지..그리고 안아주거나 허리를 감아주고.. (사례1, 남/74)

나이가 들면서 ..... 손잡고.. 서로 애무하고.. 꼭 같이 살을 맞대야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손잡고 거닐고. 서로 안아주고.. 막 그런 거를 좋아하게 돼. 성이란 게 그런 것 같아... 말벗만으로도 좋고, 서로 따뜻하게 포옹하고... 볼을 댈 수 있고.. (사례 4, 여/74)

예전에야 사정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았지요. 나이 들어서도 사정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안거나 허리만 감고,, 서로 그렇게 손만 잡고 있어도 좋지요, 기분이 좋아요. 오히려 .. 건강 때문도 있지만 서로를 쓰다듬는 게 더 많아졌지요. (사례10, 남/77)

젊었을 때완 좀 표현이 달라지죠.. 허겁지겁 사정하는 것에서 좀더 여유있게 안아주는 시간도 늘어나고...(중략) 손을 잡아주고.., 상대가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지요.. 뭐 애무나.. (사례 5, 남/66)

⑥ 변함없는 성적욕구로 자기 안위와 내적 자신감을 가지다

나이가 들어도 성적 욕구는 변함이 없고 이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몸이 따르지 않는다 해서 마음까지 체념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해서 이성의 자태에 시선이 가고 마음이 동요하며 욕구와 사랑을 느낀다. 기능이 저하된 몸과 달리 이러한 감정이 지속되는 데 대해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한편 그런 욕구조차 없다는 것은 마치 시체와 같다고 여긴다. 따라서, 이성에 대한 욕구를 느끼고 있는 자체가 자신이 아직 젊고 살아있다는 위안과 자신감을 준다. 나이가 든다는 것의 지표가 성적 기능이나 느낌에 근거한 것처럼, 인간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욕구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상대방을 관찰하는 것이 더 심해요.. 육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렇다면은 마음이 없어서 기권이 되느냐,. 만약 그렇다면 편안하지.. 그런데 몸은 안 되면서도 마음은 그 여자 참 이쁘다, 저 부인 참 귀부인 같다.. 이런 생각은 누구든지 하게 된단 말이야.. (중략) 나이가 많아서는 자기가 안 된다고 해서 상대방과의 그런 성관계가 생각이 안 되느냐? 생각이 된다 이 말이요.. 여자 분들 지나가면 유방도 쳐다보고, 히프도 쳐다보고, 그 자태도 쳐다보고.. 보고 감탄을 하고 하면서 그런데서 사랑이 시작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하면 그게 시체지 .. 노인일수록 그런 것을 더 느껴.. 젊어서보다는 그 횟수에 따라서는 안되지만은 마음, 그것이 갖는 의미,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이제 인생이 다 되었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례1, 남/74)

여자노인들은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나 자신의 성적욕구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나이에 상관없이 여전히 욕구를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친한 사람이면 때에 따라서 조용한데 그런데서 그렇게(성관계를) 할 순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중략) 그냥 손잡고 이런 정도로 친하다가.... 그냥 지금도 만나면 이렇게 애무해주면 받고 싶고.. 그냥 그런 마음은 있지요.. 그런 것을 못하니까 외롭죠..그래요, 아직 있어요..(사례 6, 여/83)

나이 들어도 있어요. (성에 대한 욕구는) 있어요. 생각이 있는 거지. (몸으로도 흥분이 된다거나 하는 건) 많이는 없어. (중략).. 그리고 일을 허고 힘이 들면 그런 게(성욕구는) 없어. 없더라고. 이렇게 놀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면 그게 있지만.. (중략) 남들처럼 막 아프지도 않고.. 아직도 좋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남편에게 먼저 내비치거나 그러진 않지. 뭐 그렇게 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례 8, 여/69)

민(사례2, 여/ 73)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개방적이지는 않다고 얘기하면서,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 성적 욕구나 기능이 똑같이 쇠퇴하는 것은 아니며 변함없이 충분하게 성생활을 즐기는 경우도 있음을 강조한다. 현재 스스로 성행위까지는 삼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나이 70을 넘어선 자신이 성생활을 젊은 시절처럼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강하게 비추고 있다. 이는 여자노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젊은 시절과 같은 정도의 욕구나 실현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내세우긴 부끄러워하면서도, 남자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성적 욕구나 기능의 지속이 자신을 나이든 집단에서 구별해주는 근거로써 일종의 자신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가 지금 이렇게 늙어봤지만은 그게(성행위) 63살까지는 그렇게 마음대로 똑같이 된다고... 그리고 될 거다 그거야, 내 말이. 지금도.. 욕구

가 있고, 마음으로는 욕구가 있고, 데이트 같은 거야 얼마든지 해도 되지 뭐. 응? 성까지야 둘이 좋아야 하는 거고. (중략) 노인들도 똑같다니깐.. 그런 느낌과 모든 게 똑같고. 왜? 둘이 또 70이고 80이고 살아도 성생활 잘되는 집은 똑 같애. 오름가즘도 몇 번씩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깐 늙었다고 아주 늙은 것도 아니고 젊었다고 다 젊은 것도 아니고. (사례 2, 여/73)

성교통이 심해 결국 6년 이상 부부간의 성관계를 끊고 지내던 참여자는, 어느 날 우연찮게 자신의 성기능이 다시 회복됨에 따라 성행위를 통한 기쁨을 맛보게 되면서 이를 친구들에게 자랑스레 얘기하는데, 이 모습에서 성기능의 회복을 통해 은근히 자신감과 우월감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흔, 쉰 지나고 점점 다시 쇠퇴기로 가서 그냥 좀 (성관계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참아주다가 너무 아파서 결국.. 그렇게 남편이 귀찮더라고.. (중략) 그런데 6년이나 떨어져서 살다가 같이 있으니까 난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디?” “어 그래 되더라? 나도 이상하더라?” “그래서 좋디?” “좋더라 야”.. 맨 처음에 6년을 따로 자다가 같이 자는데 이게 축적되었던 거니까..그렇게 신혼 때처럼 자주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 첫날은 한 다섯 번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럼 너도 다섯 번을 하면 다섯 번이 다 좋디?” “그럼 다 좋지” “그러면 다 느끼냐”고 .. “그럼 다 느끼지 그걸 못 느끼냐”고 그랬는데.. (사례 3, 여/66)

주제 2. 제약적 환경에의 수용

① 타자지향적 성향으로 사회적 규범에서 요구하는 억제된 성적 행동을 취하다

참여자들은 나이든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기대치에 부응하고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끌리는 상대가 나타나도 젊을 때처럼 쫓아가지 않고, 그러한

마음을 억제하고 경계하였다. 욕구를 좇아 막 살거나 성에 미쳐 금수같이 살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표현은 노년기의 성에 대한 자각을 노인들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자연발생적 욕구를 경계하는 것이 자신의 나이에 걸맞는 행동이라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노인상이 참여자들이 성장하는 동안 미래의 자신 모습으로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사회적 체면을 차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잡는다.

> 젊었으면 쫓아가지, 쫓아가.. 내 자신이 쫓아가서 만나고.. 또 그쪽에서도 쫓아오고.. 그렇게 서로가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경계할 것은 경계를 하고, 내 자신이.. 그야말로 나이가 있으니까 체면을 차리는 거지.. 마음을 떠나..(중략) 나이든 이가 여자 남자 만나 헤헤거리는 것은 아무래도 좋지가 않아 보이지.. 뭐 나이 먹은 사람이 막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위신을 갖추고, 올바르게 살아야지.. 성에만 미쳐서 사는 것이 금수지, 사람이야..? 어느 정도 남의 이목을 챙기면서 내 주제를 생각해야지.. (사례 6, 여/83)

> 노인은 우선 또 체면이 있으니까.. 노인이면 가족이나 주위에서 바라는 게 있잖아요? .. 왜 점잖고 뭐.. 그런 노인 모습이 있지.. 그리고 체면이 중요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전 같지 못하다 그런 이유도 있으니까.. 또 다 아는 사실을 뭘 이야기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맘은 그래도.. 솔직하게 하질 못 하지..(사례 1, 남/74)

자신의 품행이 방정하여, 그래서 잘못 살지 않았다고 믿는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이성에 대한 성적 느낌을 가지는 것은 깨끗하며 천하지 않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자신이든 남이든 간에 이성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배척한다. 또한 알노생(알찬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박(사례1, 남/ 74)의 경우, 이 모임이 자신의 종교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볼 때 나올만한 곳은 아니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여 구제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인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 스스로도 이런 모임에 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꺼려하

고 부끄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젊었을 때 좀 바람기 있었거나, 잘못 산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좀 이상스러울 꺼라..? 그런데 워낙에 깨끗한 애들끼리 그 얘기를 하면서 웃는 거라서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더라고..(중략) 고등학교를 잘 나온 게 참 좋다고 그러지.. 왜 그러냐 하면은 동창을 그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냥 나가서 남자를 만나고 사귄다는 거는 좀 추접스러운 거 같어, 아주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없어.. 내가 그렇게 천박스러운 사람에 들어가나 싶기도 하고.. (사례 3, 여/66)

> 아직도 우리 국가가 민주주의라고 그래도 성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하잖아요? 함부로가 아니라, 뭐 외국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자제를 하고, 체면을 생각하고 그러는 거지.. 여기 와서도 친구를 사귀고 같이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는 것도 딸한테는 비밀이지.. 나는 나름대로 비밀을 갖고 있으면서 천연스러운 그런 척을 하죠, 자식들한테... 그런 게 다 뭐 나이 먹은 값이지, 뭐야..(사례 6, 여/83)

> (표현을 안 하는 이유가) 나이가 많아서.. 우리 나라는 특히나... 더 그런데 근래 들어와서는 조금 이런 것들이(노인들의 남녀 모임) 양성화되었지, 옛날에는 다 음성적인 것들이라서..솔직히 내가 여기 오는 이유도 사실은 내가 지금 올 처지가 못 됩니다.. (중략) 그러니까 종교 믿는 사람들은 이곳에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것이 운동이 되기 때문에.. (중략) 심장수술을 받은 사람이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적당한 것이 없어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한가지는 여기 와서 흘러가는 영혼을 한 명이라도 구제하고, 내 삶이 무엇인가도 찾고... 이제 맨투맨이니까 전도할 사람을 찾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 찾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어렵죠.. 이것이 젊은 사람들과는 참 틀리고 노인네라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눈치가 보인다 그런 게 있죠.(사례 1, 남/74)

또한 자신을 한 남자에게 바치고 지켜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는 당당하지 못한 낡고 망가진 몸이라는 생각을 동시

에 갖게 하고 있다. 자신의 육체에 대해 여전히 순결개념의 연장에서 바라보고, 일부종사에 대한 유교적 윤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 아휴, 저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저한테는 안 통해요, 내 그랬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처녀 때는 내 몸 곱게 다스리고 가지고 있다가 한 남자한테 바쳐 가지고, 내 지켜오면서 지금까지 그저 그렇게 재미있게 살고 부끄럼 없이 살았는데.. 아이를 다섯이나 낳았어요..... 몸띵이 그렇게 다 구스리고 한(낡고 망가진) 그걸 가지고 어떻게 또 가? 어휴.. (중략) 창피해서도 내가 그랬어...(사례 2, 여/73)

여자노인들은 주변인들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녀들의 부정적 태도에 대해 섭섭하면서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 한다. 그리고 자녀들의 태도가 자신의 이성교제에 대해 긍정적일지라도, 또다시 자식의 체면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까 하는 걱정하기도 한다. 이는 같은 노년기일지라도 여자들의 성에 대해서 남자보다 더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의 영향과, 여자들의 결혼을 다른 집안의 식구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통념으로 인해 자식들과의 관계가 단절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 딸은 모르고 있었는데, 요 근래는 내가 일부러라도 자꾸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노인들이 가는 데가 있다, 거기서 모인다, 노래도 배우고 사군자도 한다.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뭐 취미생활 나간대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 안 하지만 내가 어쩌나 볼려고 한 이년 됐나 우리사위가 같이 왔길래 내가 그랬지. “ 얘, 아직도 남자들이 여자로 본다. 연애하자고 그러고 결혼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렇게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있다 그랬더니 다 듣고 나서는 “어머니, 그냥 친구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연애하시죠’도 아냐, ‘친구하시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뭐라 얘기하겠어.. (사례 11, 여/66)

> 딸들이 더 그래요. 아들들보다. 아까 기차옆자리에 탔던 그 여자도 얘기하다가 그러더라고. 시아버지는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자기 엄마가 그런다고 하면 서운하게 생각이 들 것 같고 별로 내키지가 않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길 하더라고. 시아버지야 따로 그렇게

살면 모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잖아. 그런데 자기 엄마는 그러면 싫을 것 같다고. (사례 11, 여/66)

지금 내가 재혼을 한다고 그러면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기보다는 좀 안 좋지.. 물론 내가 이제 수발을 해야하고 그런 귀찮은 것도 있지만 딱 재혼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이들한테도 별로 안 좋을 거 같아.. 아이들 자체도 우리 엄마가 재혼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좀 창피할 거 같아.. 뭐 친구야 얼마든지 사귈 수 있는 거지만.. 그 걱정하고 또 수발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 아니 그래도 이쪽이 좀 강하지, 자식들한테도 체면도 안 서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사례 4, 여/74)

난 시집 같은 건 절대로 갈 생각도 없다고 그러지...(중략) 자식들이 나를 뺏기고 나면, 내가 다른 집에 가서 호적에 올라가 버리면 지 애미는 없어진 거잖아.. 그리고 나는 그 집에 가서 그 집 귀신이 되어야하는 거고, 두 번째라도.. 자식들한테는 남의 집으로 시집간 엄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손이고 친정이고 죄다 다.. 아이고 뭐 다 늙었는데 그냥 있다가 죽어야지, 무슨 시집을 가 가지고 내가 저 아이들한테 섭섭한걸 만드나 그런 생각도 있고.. 아무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그러니까는 절대로 못하는 거야, 그것은.. (사례 2, 여/73)

특히 혼자된 여자노인들은 자녀뿐 아니라 친인척들과 집안의 체면에 대해서까지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자노인들의 경우 이성교제와 달리 재혼에 대해서는 비교적 거리낌이 없는 데 반해, 여자노인들은 재혼이 집안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여기면서 곤혹스러워 한다. 또한 결혼에 따른 성관계를 크게 부각시켜 생각함으로써, 결혼이 노년의 나이에 걸맞지 않다는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보수적 규범과 노인들의 타자지향적 성향은 자녀나 주위의 사람들의 태도가 성적 표현이나 이성과의 관계형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집안이 동네에서 종갓집인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난리 나지.. 아휴.. 오빠들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절대로.. (사례 12, 여/72)

내가 혼자된 사람인데 친인척이라도 보면 안 되니까, 딱 붙어서 다니진 않지. 조심스럽지, (중략) 물론 아는 사람한테도 그렇지만 타인들한테도 의식이 되지, 아무래도. 풍토상 난 옛날에 그렇게 자랐으니까. 남자랑 여자랑 친구라고 다니는 게 아무래도 그렇지. 서로 만나고 그러면 기분도 좋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 모임도 확고하게 되면 모를까 그렇기 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모르게 하는 거지. (사례 11, 여/66)

이제사 결혼하면 딸이나 시댁 쪽에서 뭐라고 하겠느냐 남자 품이 그리워서 그러는 거냐고 그런 소리 듣는다 하더라고. 친정 쪽에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시댁식구는 어렵지 아무래도. 내가 막내 시누한테 그런 소리 한번 했어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노코멘트야. (사례 11, 여/66)

우리는 진짜... 나는 진짜 결혼은 안 해. 나이 70에 무슨 결혼을 하냐? 살림해야지, 그냥 손자가 11명이 되고 5남매나 되고 가닥이 좀 많아? 집안이 또 죄다 이렇다한 집안들인데.... (사례 2, 여/73)

② (여성노인들은) 이성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다

여자노인들은 남자상대가 적고,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고 여기지만 이에 대해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여자노인들의 경우 남자노인들보다 평균수명이 길고, 여자노인들이 남자노인들에 비해 대상연령이 낮은 사회적 풍토에 기인한다. 또한 여지껏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다양한 관계망이 형성되지 않은 여자노인들은 남자노인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고, 이러한 만남에 나가는 것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스로나 주변의 시각이 여자노인들이 혼성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남자노인보다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자노인들의 이성에 대한 접근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또 그것 말고도 상대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 독신이면서 같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중략) 만남이 있어야 되요.. 남자들도 만나야지, 누구 말처럼 노래에도 있듯이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러니 모임

이나 만남이 있어야지.. 만나기 위한 그런 기회가 있어야지, 개인적으로는 쉽지가 않다고.. (사례 4, 여/74)

복지관에서 남자노인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 좋은 텐데... 모두다 여자뿐이에요, 여긴. 컴퓨터 교실에는 간혹 남자노인이 몇 사람 있긴 하던데... 다른 데 가서는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할머니는 많은데 할아버지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이상스레 더 그렇게 남자들과 같이 있는 걸 불편해해요.. 처음에 몇 명 있었는데... 다 지저분하다 냄새난다 하면서 구박을 해대니까 그냥 떨어져나가더라구요. 나이가 많으면 더 남자에 대해 보수적이라 그런 것 같아요..(사례 12, 여/72)

내 나이가 되면 만날 수 있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다들 일찍 죽으니까 .. 그러니까 더욱 아예 포기를 하는 거지.. 좀더 젊었을 때 이런 줄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여기나 와서야 남자 냄새라도 맡지 .. 다른 데서는... 그리고 어디 나가기도 어렵지요. 남자들이야 좀 쉽지 않아요? 여자노인 만나기도 그렇고... 그리고 솔직히 어린.. 절은 여자들도 만나고 .. 우리 할머니들은...어렵지(사례 6, 여/83)

③ 육체적 현실을 의식적으로 각인하여 성적 욕구를 통제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인지하고자 하다

김(사례 5, 남/ 66)은 몸에 맞지 않는 욕구를 과욕이라 느끼고, 육체적 능력에 맞게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육체적 욕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자체는 기쁨을 주지만, 자신이 느끼는 욕구 그대로를 실현하려고 하기엔 육체적 능력 면에서 볼 때 스스로에게도 벅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욕구가 채워질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거울에 비친 나이든 자신의 모습을 억지로 의식 속에 주입시키면서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성적통제가 자신의 육체적 능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투여될 노력과 그 결과로 취해질 대가를 비교하여 내린 합리적 판단이라고 스스로를 자위하고자 하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스쳐 가는 감정이라든지, 기분, 욕구 이런 것들은 옛날하고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은 육체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내 모습들을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나도 이제는 노인이다.. 나는 장애인이다.. 그런 언어들을 내 감정 깊은 곳에다가 자꾸 주입을 시키는 편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욕구가, 그런 순간적인 욕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면 은, 줄어들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순간적인 욕구라든지, 이성에 대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흥미 자체 그런 것은 조금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 내가 나이를 피하고 그런 것을 바란다 하는 것은 오히려 주변에다가 어떤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택하고 있죠.. 괜히 헛수고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중략) 정신적인 것도 제 생각에는 육체적인 것을 절대 빼놓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몸은 무시하고 바란다 하는 것 자체가 과욕이 되겠지요..(사례 5, 남/66)

내 나이를 생각하지요... 지금 뭐, 많이 가질 수 도 없지만, .. 많이 자제를 하지요.. 이렇게 늙어버렸는 데.. 어차피 되지도 않을 껄... 그리고 사람들이 날 여자라.. 그렇게 보이기에는 .....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제하는 것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중략) 나는 그 이상의 일은, 나는 더 이상.. 나는 여기서 이렇게만 살아야지 싶으니까.. 그냥 괜찮고... 이 상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요.. (사례 6, 여/83)

④ 성적 욕구 억제를 위한 대안적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자존감 상승을 꾀하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성적 욕구가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또한 서로 원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육체적 결합은 필요없고 이성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여긴다. 제약적 조건들로 인해 성적욕구가 충족되기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기대나 가치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여자노인들에게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략으로,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 길들여져 있는 여성노인들의 체념과 수동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저 말벗으로나 지내면 그것으로 족한 거지.. 그렇게 하는데 아쉬워도 할 수 없는 게 여자이면서 엄마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스타일을 구겨서도 안 되고, 내 주장도 그렇고.. (사례2, 여/73)

나이가 들면... 상대도 눈빛을 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니까 툭 그러면 호박이 떨어지는 것을 안단 말이요, 울 밖인가, 울 안인가를 안다 이 말이요.. 그렇게 서로가 맘이 맞으면 그게 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해요.. (중략) 서로 말벗으로 지내자고 하지요... (사례1, 남/74)

(노인들이) 욕구는 있을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지.. 그런 걸로라도 일시적인 충동은 위안을 할 수 있으라고.. 그런 건데 나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저 남자하고 이야기나 하고, 한집에 같이 지내봤으면.. 그저 그런 욕구뿐이지, 그렇게 성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사례6, 여/83)

또한 이성간에 갖게 되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나 끌림을 느끼면서도, 이성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것은 여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조신한 태도나 고운 피부와 날씬한 몸매를 가진 자신의 외모가 바로 여성적인 미라고 여김으로써 자존감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적 관계가 없는 사랑이야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자 한 차원 승화된 사랑이라고 가치 부여를 꾀하기도 한다. 한편, 깨끗하고 고귀하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은 노화에 대한 추함을 가리고자 하는 반대급부적 욕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모델에 부응하여 인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권위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뭐 남자친구를 사귄다든지, 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하나 없어요.. 그러나 혹 가다가 저 남자하고는 같이 여행을 가도 좋고, 사귀고 싶다... 그런 남자는 있지요.. 그렇다고 접근을 하지는 못하죠.. 내가 접근을 한다는 게 주저가 되고.. 저쪽의 의사가 어떨라나, 그런데 가만 보면 텔레파시가 통하는 게 조금 있기는 있어요.. (중략) 그러니까 그게 여자다운 거야.. 떠났죠.. 여기 가까이 있어서 매일 만나고 그러던 것보다야..

거리가 있으니까 전화로 만납시다 하는 것도 번거롭고 그렇잖아요?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여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화로나 그리워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낫지, 나는 이런 생각이 나요.. (사례 6, 여/83)

저는 피부가 속살은 우윳빛이에요. 병원에서 진찰하고 그러면 의사들이 놀래. 발을 보면 나이를 아는데, 나는 모르겠대. 허리 살도 보여주고 그러면 또 놀랜다구. 내 딸이랑 나랑 목욕탕을 가면 유명했어요. 피부는 아가씨 같거든. 딸이랑 구별을 못 해. 그러니까 기다릴 만한 자신감 같은 건 잃지 않았지. 기죽거나 그런 건 없지. (사례 11, 여/66)

그래서 말벗을 하재, 날보구, 응? 그러면서 이광수 같은 사랑을 하자는 거여. (중략) 좋다고 내가.. 왜 여자 남자가 일단 만났다고 그러면은 손부터 잡으려고 그럴려고 하는지 응? 뭐가 그렇게 급해서들.. 그거 오래가지도 못한다 그거야, (중략).. 아무튼 나도 어쩜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게 사랑을 하고 그럴까, 그렇게 서로들을 애끼고 그럴까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참 말이 멋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렇게 친해졌다 어쨌다 하면서 지저분하게 만나자마자 손들을 놓고 그러지 말고 깨끗하게 이렇게 말벗으로 지내자는 말에 내가 호감을 가진 거야..(사례 2, 여/73)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을 종교인으로써 이겨내고 정신적으로 친구하며 말벗으로 지내려고 한다. 마음만 가져도 그것은 간음이라는 종교적 계율을 통해 스스로가 가진 욕구 자체마저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종교를 통해 성적욕구를 승화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실현하기 어려운 제약적 상황 때문에 성적욕구를 억압하는 자신을 가치있게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그 안의 이면에는 남자가 만약에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남녀가 이 뜨거운 마음을 종교로서 이겨내야 하는데.. (중략) 인간은 다 그 본심에서.. 그로 인해서 죄를 지은 사람도 얼마나 많으냐, 그것 때문에.. 미리, 후천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또 신앙을 통해서 내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방비를 해서 사고가 덜 나니까 그런 것이지, ...(사례1, 남/74)

신앙 때문에 억제를 하고 자제를 하고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신앙도 없고 그렇다면 친구 사귀다 보면 애인으로도 사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겠지.. 누구나 그럴 꺼야.. 안기고 싶고, 손잡고 다니고 싶고.. 그런 거야 마음은 다 똑같지..(중략) 그거를 억제를 하고 제재를 하고 그래서 그렇지.. 뭐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다면 은 뭐 진짜 연애도 하겠지.. (중략)..우리는 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정신적인 친구지.. 뭐 연애를 하거나 애인은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지, 마음에야 지금도 뭐 남자 친구도 있으면 좋겠고, 애인도 있으면 좋고.. 그런 건지.. (중략) 아무리 과부, 홀아비라도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애인으로 서로 사귀고 그러는 것은 다 간음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죄가 제일로 크니까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한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정신적으로, 제일로 친한, 제일로 좋은 친구.. 그런 거지.. 절대적으로 애인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사례 4, 여/74)

주제 3. 성적 감정의 재발견

① 이성과의 만남으로 성적 감정을 새롭게 체험하다

자신에게 더 이상은 허락되지 않고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적 느낌이 이성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난다. 이성의 접근에 처녀같은 감정이 살아나 부끄러움과 가슴설레임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마음이 끌리는 이성상대에 대한 독점욕을 느끼며 그에 따른 기대와 질투의 감정을 가지기도 한다.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렇게 부대끼니까.. .....(중략).. “아이, 이건 내가 영감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도 안 준 손인데..” 그러면서 막 빼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깨를 확 껴안잖아? 그래서 내가 기절을 할 뻔했다고.. (중략)... 그러면서 그 순간에 ..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게 오는 거지..

그래 가지고선 이 나이에도 남자들이 저렇게 친구하자고 간절하게, 저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때 만해도 내가 예순 다섯, 이제 늙어 가는 마당인데 시집 장가가기 전에 그런 감정을 가지면 부끄럽고, ...(중략)...이제 아주 오래간만에 내가 예순 다섯이라는 이 늙은 나이에 그런 장면이 오는데 그게 처녀 때나 예순 다섯 살 먹은 그 나이나 부끄럽고 그런 것이 똑 같더라 이거지....(사례 2, 여/73)

동성친구라고 할지라도 나하고 사귀는 중에 나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어머 쟤는 나하고 보다 저 이하고 더 친한가 봐..' 이런 시기심이 조금 있고 그런데 이성은 훨씬 더 그게 달라요.. 이성간에 친구라고 하면은 의심이라고 할까, 시기심..(사례 4, 여/74)
암만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고, 또 그 사람도 나를 제일로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제일로 좋은 사람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게 욕심일까, 시기심일까.. 욕심인가 시기심인가 그러는 거지.. 딴 사람들 여럿하고 다 친하고 그런 게 나는 안 좋은 거야.. 나하고만 더 친했으면 좋겠고, 또 나하고만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말하자면 나만 친하면 좋겠다.. 이런 거지..(사례 4, 여/74)

질투같은 거도 하지. 나도 그래요. (중략) 몇 달 흘러서 내가 겨울에 코트에다가 비슷한 걸로 모자를 쓰고 갔거든. 둘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여자가 귀엽고 그렇긴 한데, 아주 삐쩍 마르고 키도 작고 피부가 자글자글해, 온 얼굴이 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앞을 지나면서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여사님, 오늘 아주 멋지십니다. 모자가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봐도 괜찮았거든. 그래서 속으로 지나면서 그랬어. 아휴 너 비교해봐라. 너 나중에 후회할 거다 그랬지. 그 커플은 지금까지 모임에 같이 나와.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사례 11, 여/66)

② 이성의 관심에 대한 구애적 욕구로 자신을 장식하다

성별에 관계없이 참여자들은 이성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성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성과의 모임에는 더욱 옷차림에 신경을 쓰게 되고,

사소한 변화라도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그리고 상대의 관심을 얻었을 때 하루종일 기쁘고 혼자서도 웃게 되며, 어깨가 으쓱해진다고 표현하고 있다.

> (이성친구들과 있는 건) 틀리지 그럼. 같은 동성끼리 친구하고 있는 것과. 남녀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은 서로 재미가 있지. 이성끼리 있는다는 자체가 재밌는 건 인자 대화를 해도 더 부드럽고, 또 뭐야 그런 거지. 그런 모임에 나갈 땐 나이가 먹었으니까 좀 젊은 옷이라도, 넥타이라도 화려한 넥타이라도 매고 이렇게 가고싶고 그러지. 동성보단 이성에 더 신경쓰게 되지. 할머니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도 더 의식이 되고 그러지(사례 9, 남/72).

> 남자친구를 만날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더 잘 보일려고 하는 게 그게 여자의 마음이지.. 옷도 이왕이면 상대가 좋아하는 거, 되도록이면 잘 보이고 싶어하고 이쁘게 보이고 싶어하고 마음이, 동성을 만날 때는 그런 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인다구.. 그렇지만 아무래도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그런 거를 신경 쓰게 되지.. 그리고 또 이 옷은 참 이쁘네, 매일 이런 것만 입고 다니지 그런 소리 듣는, 이왕이면 상대가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차림을 할려고 하고 그런 거.. 그런데 동성끼리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지, 물론 동성친구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추하게 보이고 그러는 거보다는 예쁘다, 산뜻하다, 고상하다.. 그렇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남자친구라고 하면은 이런 것을 좀더 신경을 쓰지.. 또 그런 거에 좀 관심을 보여줬으면 하는.. 옷이 달라졌으면 어머 옷이 달라졌네, 이거 참 이쁘네, 아 언제 그게 참 이쁘더라, 좋더라 하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좋아하지.. 그런 칭찬을 받으면 그날 하루종일... 혼자서도 웃음이 나오고., 어깨가 으쓱하곤 할 때도 있어.(사례 4, 여/74)

③ 이성과 어울림에서 동성모임과는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즐기다

나이가 들어도 동성과의 어울림과 이성과의 어울림은 다르게 다가온다. 동성끼리의 모임과 비교하여 이성과 함께 하는 모임이 보다 활기차게 되며, 재미를 느낀다. 비단 사별이나 이혼을 한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배우자가 있는 참여자들에게

도 동성간의 모임과 이성간의 만남은 느낌이 달라 이성과 함께 하는 자리가 더 활력있고 흥미있게 느껴진다.

> 늙었는데도 그래도 남자라고, 남자들이 같이 노니까 더 재미있는 거 같다" 그러면서 애들끼리 재미나게 웃는다고.. 늙었어도 우리끼리만 가면 좀 맹숭맹숭, 우리끼리 잘 들 노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1년에 한 두 어 번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사례 3, 여/66)

> 남자 여자니까 맛이 다르지... 남자 여자니까 분위기가 벌써 다르고..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려는 기능이 있고, 여자는 또 이렇게 받는 맛이 있고... 그건 확실해. 그래가지고 손을 붙들었어요. 손도 붙들고, 칭칭대(계단) 올라갈 때 이쪽 발 요쪽 발 양쪽 발에 이런 쪽으로 힘을 주니까.. 괜찮어! 재밌어! 올라갈 때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 그 서예하던 여자 있지? ..(중략)..그 뒤에서부터 놀려. 그럼 놀려라 실컷 놀려라 그러구 난 신난다 하지..(사례 2, 여/73)

또한 성행위를 전제로 하는 일대일 남녀간의 만남이 아니라, 단순히 이성간에 여럿이 어울리는 모임에서도 이성과 함께 함으로써 형성되는 분위기에서 보다 즐거움을 느낀다고 한다.

> 남녀들이 서로 모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성행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녀간의 생활도 틀리고, 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는 하여간에 남녀간에는 재미가 있고, 동성 간에는 재미가 없다 이거야.. (중략) 몇몇끼리 웃을 일은 있었어도 단체적으로 웃을 일은 없었다 이거야.. 여자끼리 가나 남자들끼리 가나 똑같아요.. (중략)남녀가 같이 가는 것과는 참 틀리다 이거야.. 동성 간에 가는 것은 그렇다 이거야..(사례 1, 남/74)

> 이 여자, 남자 똑같애요. 가만있으면 그 사람 생각이 나죠. 눈에 딱 떠오르고. 사랑이 그거죠. 그 사람도 내가 보고싶어 죽을 지경이지, 아일 보고 있어도.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하면 또 미안할까봐 전화를 못 걸어. 6년이 되도, 십년이 되더라도. 두 내외가 참 행복한 여자들 있잖

아요. 목소리만 듣고 싶어도 전화를 거는 거에요. 그게 진짜에요. (사례 10, 남/77)

④ 성적 존재로서의 생명력에 대한 확인을 기대하다

젊음에 대한 그리움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제 자신에게서는 멀어진 것으로 치부했던, 젊은 시절 가졌던 성적 느낌과 욕망을 다시금 느끼고 이를 실현하고 충족감을 맛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일어난다. '죽기 전에... 직접 인간 대 인간으로서...' 란 표현은 이러한 마음이 실제로 욕망을 실현하려는 강한 힘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절실한 갈망의 형태로 아쉬움과 함께 혼재되어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관의 할머니 중..) 70% 가까이 과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도 성적 욕망이 있다는 거야.. (중략) 처음에는 노인이 뭐 그래 그러고 지냈는데.. 그것이 다 젊을 때, 아득한 딴 세상의 이야기 같고, 이제는 오래 혼자 살다보니까 내가 그것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또 내가 언제 남자하고 동침을 해봤던가, 안 해봤던가..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거의가 든다는 거야.. (사례 1, 남/74)

욕심에 솔직히 죄가 안 되고, 서로가 진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러면 실제 경험을 좀 해봤으면 하는 욕심은 좀 있지.. 아무래도 자기가 혼자 자위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인간 대 인간으로서, 죽기 전에 그런 경험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는 하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거는 아예 이제 포기를 하고, 생각을 안 하니까..(사례 4, 여/74)

김(사례 6, 여/ 83)은 아직 자신이 여자로서 생명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만약 안되더라도 한번 그전처럼 해보고 싶고, 젊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성행위의 의미가 욕구배설이나 오르가즘의 성취로만 표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적 존재로서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인가에 대한 확인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우(사례 6, 여/ 83)도 아직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든든하고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이성을 통해 나의 존재가 의미있게 다가오면서 정서적 안정감과 동시에 자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 다른 거는 있어도 대부분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죠, 마음에는 있어도.. 손 붙잡고, 끌어안아 주고.. 그거는 그렇게 보통으로 해도.. 그 이상은 피차간에 좀 어려워요.. (중략)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중략) 지금도 가끔씩 그전처럼 한번씩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있지요.. 그러나 잘 안 돼.. (중략) 아주 체념을 해 버리면 그런 생각도 싹 없어지는데.. 그렇지, 과거에 젊었을 때 자기가 그렇게 느끼던 그런 거를 한번 더 그래봤으면.. 하는 건 있어요.. (중략) 그러니까 그런 욕구는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때처럼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 봤으면 이런 마음도 있어요..(사례 6, 여/83)
>
> 내가 아직 여자로서의 생명이 있나..(성행위같은)그런 거 솔직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나도 아직 여자로서의 가치가 있고, 여자로서의 생명이 있는 건가? 뭐 대게 여자들, 친구들 보면은 그 어떤 친구 보고도 내가 그랬어. '그렇게 잘생긴 (나이는 나보다 많은데) 그렇게 멋쟁이가 왜 애인이 없어? 애인 좀 하지. 친구들 아니면 영감도 뭐. '에이 이제 무슨, 애인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영감이 무슨 소용있어?' 우리끼리 막 터놓고 하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다 늙었는데 무슨 애인이 필요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 난 그렇지가 않다고. 사실은. 난 아직 젊음이 있다고 생각해.....(중략)손잡고 걸으면 아주 든든하고 '나도 이렇게 손잡고 걸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하는 만족감이라고..해야 하나 자존심이라고 해야 하나 뭐 그런 거 든든하고 그냥 좋은 거지. 그런 거 이상한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든든하고 좋고 나도 손잡고 거닐 수 있는 친구가 상대가 있구나 이런 마음에 굉장히 흐뭇한 거지(사례 4, 여/74).

그리고 여성노인들의 꿈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욕구 실현의 경험은 그만큼 여성노인들이 성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 남편 죽고 나서 꿈에 남편이 보이고 섹스하고 그런 꿈 꾼 적은 몇 번 있었는데, 내 친구 중 하나도 꿈에 나타나서 남편과 했다고 그러더

라고. 그렇게 꾸고 나면 기분이 이상하지. 허무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 친구하나는 노골적으로, 물론 이런 앤 열에 하나야. 걔는 남자가 필요하다고 했어. 그러더니 부인있는 유부남 애인을 만들었지...(사례 11, 여/66)

주제 4. 성정체성과 성역할의 재구성

① 성별에 따라 다르게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인지의 변화를 보이다

김(사례 5, 남/ 66)의 경우, 남자다움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인 힘이 남성성을 대표한다고 여기던 생각에서 변화하여 심적 강인성을 남성다움으로 여기고 있었다. 가치있는 것에 도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태도, 즉 육체가 아닌 인성에서 발현되는 능력에 남자다움이 있다고 여긴다. 젊어서의 육체적 힘에 부여했던 남성성에 대한 생각에서 나이 들어서는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성품을 남자답다고 여기게 된 개념의 변화는 육체적인 힘의 하락에 대해 합리화하는 기제로서의 작용도 있다고 여겨진다.

남자답다, 여자답다 하는 것도 결국은 상대적인 것이니까.. 남자답다라는 것은 조금은 공격적인, 도전적인 또는 열정적이다.. 그런 거 아닐까요? ...(중략) 젊었을 때야 뭐 '남자답다' 하면은 육체적인 씩씩함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했겠죠..나이가 들면서 는 이제.. 가치에 대한 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거.. 도전적, 열정적.. 성공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중략) (나 스스로도) 어려운 약속을 지킬 때.. 책임을 다할 때.. 남자답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약속을 지킨다든지, 임무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남자답다고 생각하는데요..(사례 5, 남/66)

남자다움에 대한 생각은 젊었을 때와 비슷해요. 남자는 자기 주관이 강하고 남자다워야 되거든요. 참하고 유한 남자는 그건 끝난 사람이에요. ....우선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되요. 그러고 여자하고 상대할 때는 여

자를 리드할 수 있어야 되요.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요. 그걸 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내가 상대방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매너가 있어야지. 뭐 사람 비위 맞춰주라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좇아서 와요. 남자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자는 항상 의지할려고 그럽니다. 여자는 의지할려고 하지 독립적으로 산다는 건 본성이 아니에요. 여자는 의지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키울려고 그래요. 자기가 앞장서서 국회의원 된다는 건 다 불행한 사람들이야. 여자 지금 국회의원이나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이야. 남자하고 싸우고 헤어진 거, 남자 미리 죽인 거.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 억세면요 남자가 간이 죽습니다. 남자는 여자 잘못 만나면 간이 절단나고, 여자는 남자 잘못 만나면 심장이 절단나요. (사례10, 남/77)

남자참여자들은 그저 얌전한 것에서 느끼던 여성성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 수용적이고 생명력을 키워주는 힘을 여자답다고 여긴다. 이러한 생각은 여자들을 스스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남자들을 맘껏 활동할 수 있게 보조하는 존재로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남자노인들의 표현은 도전하는 심적 강인성에서 보여지는 남성성과 그와 비교되게 배려함으로 대표되는 여성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시절 가졌던 얌전한 모습 또는 성적 매력을 가진 모습의 여성상이나 지금의 포용해주고 부드러운 모습의 여성상, 두 가지 모두가 말하고 있는 여성성은 결국 남성위주의 가치관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고 보필하면서도 자기를 자유롭게 해주는 모습이다.

여자답다고 하는 것은 수용적이라든지, 환경적인 분위기를 포근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겠죠..(중략) 젊었을 적에야 여자답다고 하면은 얌전하고, 그냥 막연하게 처자 같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겠죠.. (중략) (지금은) 여자답다라고 하는 것은 대지가 만 생물들에게 자연환경을 제공하듯이, 수용하고 생명력에 대해서 배려하고 간접적으로라도 힘이 되어주는 거, 기반이 되어주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사례 5, 남/66)

여자로서는 남자의 뜻을 다 받들어 주고, 이런 사람이 참 여성답지.. (사례 9, 남/72)

젊었을 때 여자답다고 생각한 거랑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죠. 그때는 활동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표현력도 좋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 지금은 그냥 부드럽고, 그리고 나를... 남자도 허전합니다. 혼자 있을 땐 허전해요, 내가 뭘 하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그, 그래 인제 옆구리를 이렇게... 남자 사랑한다면 옆구리를 이렇게 안아주지. 그냥 부드러운 사람,.. 우리 나이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요...우선 여자는 부드러워야 되고, 내조방법이 전항적이 아니고,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네 그래요' 이렇게 긍정하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내놨을 때....제일 여자다운 건, 여자는 부드럽고, 자기 의견이 있어도 일단 긍정을 하고 얘기해야되요. 대개 여자들이 전항적(전투적)이에요. 정면 돌파를 할려고 그래요.(사례 10, 남/77)

한편, 여자노인들은 위엄있고 힘이 있는 남성보다는 따뜻하고 포용력있는 상대가 남자답다고 표현하고 있는 데, 이 이면에는 억눌린 관계가 아니라 좀더 편안하고 대등한 관계에 대한 요구가 내포되어 있다.

결혼 전에도 남자라면은 위엄이 있고, 좀 대범하고 그런 사람을 결혼 상대로 생각을 했고, 또 나이 차이도 좀 있어야 할 꺼다 그랬지..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차라리 자상하고,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고귀한 데가 있어야지..(중략) (남자답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괜히 쓸데없이 여자들한테,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찝쩍이는 사람들도 물론 남자답지 못하게 보이고, 또 아무 것도 아닌데 괜히 트집잡고 잔소리하는 사람들도 남자답지 않게 보이고.. (사례 4, 여/74)

그렇지만 여자노인들은 여자의 도리를 지키고 살면서 곱고 우아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여자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스스로 화장을 한다. 스스로도 여성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보수적인 여성다움이나 역할관념을 가지고 있어, 여자가 조신하게 처신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살아온 현재 노인세대의 수동적인 여성성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여자니까 여자의 도리를 지키고 사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함부로, 여자니까 행동을 조심을 해야지.. 나는 아직도 그거는 지니고 살아요.. 여자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것 보다, 행동으로도 함부로 하는 것보다는 .. 그런 건 내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디까지나 여자는 여자니까.. 그래서 내가 구식이라 그런 진 몰라도 그거는 내가 여자다운 생각이다 싶고 그래요..(중략) 여자로서의 변화가 나는 없는 거 같아, 젊을 때나 지금이나.. 여자답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참 곱게 늙었다".. 그게 내 욕심인지는 몰라도 난 참 고귀하고 우아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천하게 보이는 거는 아주 싫어.. 어딜 가던지 "그냥 보통 할머니하고는 다르시네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듣기 좋고.. (사례 4, 여/74)

여자에서 떠난 거지. 여자는 그게 아니야. 나는 지금 70이 넘었잖우? 그래도 여자야. 여자기 때문에 곱게 모든 걸 행동을 해야 하구. 여자답게 화장이든지 옷이든지... (중략) 아침에 일어나서도 늙었다고 그냥 흐지부지 하지 말고 딱 세수하고 세안하고 머리 빗고 얼굴 다듬어서 루즈라도 바르고, 아이들 앞에서 밥상에 앉아서 깨끗하게 할머니가 앉아야 돼. 왜 집에서 홈드레스라도 입는데, 70이 됐건 80이 먹건 야한 옷 입고 뭐가 어때요? 누가 뭐래요? 운동장에 나가려면 티라도 야한 거 입고 나가서 좇아 하면 하는 거지, 뭐. 등신이기 전에 다들 해. 에어로빅 같은 것도 다들 쫓아서 해요. 여자들이 마음먹기에 달렸고, 자기가 즐기고 살려고 노력을 하면요, 70, 80이 문제가 아니라니깐. (중략) 여자라는 사람들은 80이 되도 가꾸고 있어야 하고, 그...여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여자 노릇을 해야 하고.. (사례 2, 여/73)

② 새로운 역할수행에 대한 수용적 자세로 자신의 설 자리를 찾고 삶을 통합하고자 하다

참여자들은 남자들의 사회생활과 연결되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역할을 갖고 있었지만, 은퇴로 인해 이러한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찾고자 하면서 가정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의미부여가 커

진다. 박(사례1, 남/ 73)도 젊었을 때 가졌던 사회적 성공에 대한 가치보다 가정을 지키는 남편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고자 한다.

> 남편의 역할, 다시 말해서 남성의 역할이라는 것이 서구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각 하에서 모든 것을 보는데...(중략) 결혼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되었건 장관이 되었건.. 가정이 우선 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 좋은 자리도 하나 필요가 없는 거야.. 가정이 가장 위이고 가정이 행복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좋은 행복한 가정을 가진 거니까.. 내 입에 웃음이 있고, 자식들이 웃음이 있고 그런 가정은 그것이 바로 성공된 가정이라 이거야.... (사례 1, 남/74)

그러나 남자노인들의 경우 일차적 집단인 가정에서 자신의 대치 역할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식들을 다 성공적으로 키우고 결혼을 시킨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역할이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여 스스로 자식들을 지켜보는 것 자체로도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안위한다. 그러면서 가정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편함을 종교활동이나 사회에서의 봉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설 자리와 의미를 찾고자 한다.

> 그저 자식들의 우두머리로서의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옛날에 농촌에서 논일을 할 때 주인은 일을 안 하고 옆에 서서 보고만 있어도 일하는 사람들이 딴 짓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내가 있는 동안에는 소홀히 하는 것이 없다 이거지.. (중략)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그저 자식들한테 우는 소리, 미운 소리 하지 않고 그저 저그들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마지막에 그것이 좋은가, 나쁜가..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만 판단해 볼 따름이고.. 그렇다고 그것이 시정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저 집안에서 조용히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상이 아니겠어요..(중략)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곳에 조금이라도 봉사를 더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소망은 이거지.. 아무런 의미없이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의미있게 살려면..(사례1, 남/74)

여자노인들 역시 일생동안 지속되었던 돌보는 역할에 대해 새삼 의미를 부여한다. 손자를 돌보면서 자신이 수행할 역할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위안감을 느끼게 해준다. 자신이 앞으로도 15년 동안 손자를 돌보는 역할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생활이 동물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 수준과 분리되어 한층 고차원적 수준에서 가치있게 영위되리라고 생각한다. 조부모 역할이 가치있는 노동이라는 만족감과 함께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힘을 상실하고 자식들이 자신을 돌봐야 하는 역할전이상태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크다고 표현하기도 하여, 돌보는 역할이 우리세대의 노인들의 성정체감에 매우 크게 자리잡고 있음을 역력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 딸이 직장을 너무 좋은 데를 다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할머니들이 바쁘더라구.. 그 손주를 반은 길러 주게 되더라구.. 그러니까 지금도 몸이 편치가 않지, 한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들 살아요.. 늙어서 편하자고만 하면 사람은 편할려고만 하면 죽어야지..(중략)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쟤 엄마가 활동을 할려면 쟤가 지금 여섯 살이거든? 이제 한 스무 살 때까지 내가 거들어주면 그 다음엔 이제 할머니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 15년까지는 그래도 내가 가치가 있게 사는 거지,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요로 되는 사람이 되서 살아야지, 그저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그냥 놀기 좋아하니까 놀고.. 친구들하고, 또 남자들하고도 같이 노래방이나 같고.. 그런 것도 참 재미있더라고? 그래도 그게 일을 하고 노니까 재미있지, 그저 놀기만 하면 뭐가 재미가 있어?.. 일을 하고 놀아야 노는 게 더 재미있는 거지.. 또 그리고 내가 보람있게 손주한테 필요한 할머니라든지, 딸한테 좀 도움이 된다든지, 또 며느리한테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저 동물적으로 사는 것은 사는 것도 아니야.. (중략) 그냥 한 일흔에서 일흔 다섯 살 사이에 죽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 같애..(중략) 어떤 의미로는 좀 과격한 사람이나 나 같은 사람도 그렇고 딱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 그 보담 늙으면 다니는데 자기도 불편하고, 또 자식들도 귀찮게 되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참을 수 없지.. (사례 3, 여/66)

박(사례1, 남/ 74)은 이제 자식이나 아내에 대해 권위적 힘을 행사하면서 군림하는 역할자로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고 멋진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권위적 힘에서가 아니라 의미있는 역할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고 자신의 인생을 값지게 통합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 내가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상이나 왕처럼 군림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부터 받을 것은 받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도 단돈 만원이라도 주면은 받고, 안 받는다는 말은 절대 안 하지.. 그리도 또 뭐 안 주면 달라는 말은 안 하지, 왜? 내가 그것 없어도 먹고 살기는 하니까.. 또 부모로서 자식에게 이것을 하나 해주면 좋겠다 싶은 것은 그것도 하나 해주고..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는 멋진 상을 남겨 놓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존경받는 인물로.. 사회봉사도 하고..(사례1, 남/74)

③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자유로운 관계를 원하다

참여자들은 서로가 사회적 체면이나 자식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무와 책임으로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관계로 만나기를 희망한다. 박(사례 3, 여/ 66)과 우(사례 4, 여/ 74)는 앞으로 혼자 지내면서 외롭게 될 지라도 다시 누군가를 전적으로 수발하면서 자유를 잃고 싶지는 않다고 한다. 특히 박(사례 3, 여/ 66)은 남편이 기둥이라고 여기고 현재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고 이성과 어울리는 친구들에게 묘한 질투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주어진 의무를 내버릴 수는 없는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부러움이 숨어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사별한 민(사례 2, 여/ 73)은 재혼했다가 남자의 가족으로 제대로 수용되지 못 하고 남자가 죽게 되면 여자들의 신세는 처량맞게 된다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재혼할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

(남편은) 기둥이지, 뭐 든든한 기둥.. 그런데 기둥인데 없어보질 못했으니 그 심리를 모르는데 보면은 혼자되면은 그렇게 혼자 살지를 못하더라고.. 그게 결혼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꼭 나 같으면 나 혼자 살아, 우리 집에서.. (중략) 영감이라고 있으면 나한테 뭐 자유가 있어요? 없잖아.. 얼마나 재미있게 살 수가 있는데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꽁지가 빠지게 뛰어들어가야 하고, 또 나는 일단 자식이나 남편이 있는데도 내 맘대로 돌아다니는 스타일은 못 되거든..(중략) 그래서 이제 내가 개발을 한 게 나 혼자서 집에서, 외출을 안 하고도 즐길 수 있는.. 뭐 나 혼자 꽃을 가꾼다든지, 뜨개질을 한다거나 재봉질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러면서 사는데 만약에 그런 식구들한테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돌아다니는 것도.. (중략)

되게 약아빠진 여자들이요 결혼을 안 하고 돈 좀 있으면 그냥 그렇게 동창들하고 놀러나 다니고 결혼은 안 해요. 여자는 결혼을 해봐야 남자 치다꺼리나 하고, 뭐 우리 나라 남자들이 여자 일시키지, 뭐 여자가 남자보고 일시키겠어? 반찬 해먹는 것도 신경이 쓰이잖아.. 그냥 편하고 싶은 건데.. (사례 3, 여/66)

나는 누가 지금 결혼을 하자고 하면 나는 그거는 또 싫어..내가 이기적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그 수발을 내가 다 해야 하고, 뭐 책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친구라고만 하면 그냥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대화하고 싶을 때 대화하고, 또 차 마시고 싶을 때는 차 마시고.. 참 속상한 일 있으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사이가 부담이 없고, 좋지..(사례 4, 여/74)

편안함을 따라야지.. 자식들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 잠깐 남자 품에 들어가서 사는 것만 위주로 하면 말이 되냐 이거요.. 아니 그렇게 자식들이 제 부모하고 재미나게 좀 살아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뭐 다 늙어서 그렇게 자식들 뜻을 어기고 가기를 가.. 또 갔다가 만약에 그 남편이 죽어서 이제 오갈 데도 없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난초되요, 여자들이.. 이리 갈 데도 없고, 저리 갈 데도 없고.. 뭐 자기 아버지도 죽었는데 그 집에서 그 여자를 뭘 얼마나 위하겠어.. 그 늙어서 잠깐 산 사람이니.. 그러니 그렇게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지..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잘못 하다가는 아주 이거 고약한 팔자가 되는 거고.. (사례 2,

여/73)

따라서 결혼보다는 부담없는 연애가 좋다는 생각이 많다. 이러한 생각들은 비단 여자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남자노인들의 경우에도 현재 자신의 몸이 건강한 경우에는 법적 관계를 거쳐 가사나 수발을 담당해 줄 상대를 확보하기보다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담이 덜한 연애관계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진다.

> 절대 결혼보다도 좋은 사람 사귀는 게 좋다. 왜 결혼하면 저쪽도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자식들이 존경의 사슬을 끊을 수도 있고. 생활이 달라지니까. 돈이 수억씩 있어서 맨날 쓰고만 댕기는 내외라면 재혼해도 좋지만은 다 어려우니까, 만나가지고 경제적으로 뭣하면 헤어진다 이거야, 헤어지면 거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간다고 도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결혼을 서두르지 말고. 내가 말하지, 연애가 천국이다. (사례10, 남/77)

> 누구든 나이먹어서 재혼하면은 나이먹은 사람은, 여자도 나이가 먹었는데, 거기에 딸린 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들 딸이 있고, 남자도 아들 딸이 다 있고,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재결합이라는 것은 부담이 많고, 서로가, 여자도 부담이 많고, 남자도 부담이 많고, 서로가 부담이 많으니까 참, 친구같이 그렇게 해서 이성교제를 하면서 자기 생을 마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중략) 결혼을 않고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남남이지만은, 친구같이 그렇게 지내면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부부같이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중략) 그렇게 서로 파트너가 되가지고 그렇게 서로 부담없이 만나서 즐겁게 지내는거가 좋지 (사례9, 남/72)

④ 서로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상대를 찾아 힘있는 삶을 얻고자 하다

신(사례 11, 여/ 66)은 일명 이젠 물불 못 가리는 나이가 아니라는 표현을 하면서 가능하면 최선의 만족을 찾고자 한다고 하였다. 외로움도 달래면서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메워 줄 그런 상대를 찾고 싶지만, 현재 자신의 위치보다 하락하게 될 만남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전 남편보다 외모나 학벌이나 경제력

에서 나은 사람을 선택하고자 하며, 자연히 상대를 고르기가 젊을 때보다 더욱 어렵다고 느낀다.

> 혼자 되신 분 중에 뭐 아파트든지 집이나 있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면 그냥 연인으로 우리 집에도 놀 수 있고, 나도 갈 수 있고, 그렇게 연인으로 지내고 싶은 마음이야. 근데 그렇게 적당한 사람이 없어요. 내 나이에는 알맞아야 되고, 젊었을 때 상대자를 찾는 것보다 나이 들어서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내 남편보다 더 높이 보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비교해서 떨어진다 싶으면 싫더라고, ..(사례 11, 여/66)

> 첫째로 남자다운 외모.. 그거는 순 내 경우지..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도 냄새나고 꾸지레하고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은 영.. 그러니까 남자도 좀, 지식도 있고 자기 몸도 깨끗이 가꿀 수 있는 남자면 노인이라도 좋지요.. (사례 6, 여/83)

현재 자신이 경제적으로 힘이 없고, 또한 자식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불편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자식들에게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이런 불편한 환경에서의 탈출을 가능케 할 상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다. 특히 우리 나라 여자노인들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경제력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다.

> 먹을 게 없고, 며느리하고도 안 좋고, 자식들도 그 하나 있는 엄마를 못 살게 하는 경우도 많아.. 그런 관계가 편안치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가 데려다가 잘 먹이고 잘 가꾸어 주면은 이쪽 집에도 편하고, 그 자식들하고 먼저 살던 집 말야.. 우선 지들이 엄마 걱정을 안 하게 되니까.. 지들이 용돈도 제대로 못 주고 먹을 것도 잘 못 먹이고 그랬는데 좋은 사람 누가 데려다가 호강시켜 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가라 이거야.. 나쁘게 될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다 경우가 다른 거야.. 그리고 또 왜 못 가서 안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각각이야.. (사례 2, 여/73)
>
> 언제는 강원도에 놀러가자고 그래. 그래서 오늘 못 오냐고 그랬더니, 그럼 가서 자고 와야지, 어떻게 오늘 오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난 그런 거 싫다고 했어. 그랬더니 그래 나같이 돈 없고 힘없

> 는 사람 좋아하겠어 하면서 비꼬는 소릴 하더라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돈 없인 못 살잖아. 우리가 세상을 살만큼 살았는데, 돈없는 노인 데려다가 내가 먹여살릴 거야, 아니잖아? 나도 몇 년 전인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혼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밥만 얻어먹고 있는 형편이더라고. 인품도 괜찮고,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인품만 좋으면 뭘 해? 밥값이라도 낼 만하고, 자기가 살만해야 받아들이지. 그게 아니면 이 나이에 귀찮게 뭐하러 남자를 받아들여? 젊어서야 물불 모르고 한다지만 늙어서는 경제적인 게 더 따른다니까. 그래서 힘들어. (사례 11, 여/66)

한편, 남자노인들은 수발에 대한 필요를 크게 꼽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자들은 가사일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버겁고, 또한 며느리가 있더라도 배우자만큼 편하지 않음을 느낀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해 예민해지고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이 크게 작용한다. 언제 자신의 육체가 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간병의 역할을 성심으로 해 줄 이성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은 생로병사인 건데.. 병이 들어서 입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누가 뒷바라지를 하겠는가? 그거는 며느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딸이 있다면 좀 나을 테지만 나는 딸이 없어요.. 그러니 재혼한 아내라도 옆에 있으면 남 보기에도 그게 낫지 않겠는가.. 또 요새 보면 간호사 말고 간병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치만 그런 사람들이 해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로 성의를 갖고 해주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적에 내 아내라도, 아니면 애인이라도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사례 7, 남/78)

성에 대한 강한 욕구 역시 이성에 대한 필요를 절실하게 한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성적 만족에 대한 욕구가 강하면, 성적 육체관계를 같이 나눌 상대가 필요하다. 자신의 다양한 필요를 채울 가장 적당한 관계를 선택하게 된다.

남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가야해, 남자.. 남자의 품이 그리운 사람들은 또 가야해.. 우린 그걸 참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못 참는 여자들은 가야해.. 그러니까 그렇게 다 사람마다 다른 거야..(중략) 나는 그 여자 스스로가 그걸 원하고, 좋아하고, 꼭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런 여자들은 꼭 가야해.. (사례 2, 여/73)

그리고 또 아직도 성기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자가 꼭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사례 7, 남/78)

김(사례7, 남/ 78)은 단지 자신과 자식을 수발하고 성적상대로서의 역할을 해줄 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재혼을 했다고 한다. 한번 결혼한 여자는 '헌' 사람이므로 단순히 서로의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적 만남이었고, 이 때문에 성적행위를 통한 만족감도 본처와 차이가 났다고 털어놓았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 노인세대에서 여자를 소유물로 여기거나 단순히 자신의 기본적 생활을 수발하는 역할로 여기는 전근대적 사고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관하에서의 여성의 순결이데올로기는 노인기에서도 여성노인에게 여전히 정절이란 규범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성이라는 그 매개가 깊고, 얕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말하자면 만족도를 100%라고 볼 때 자기의 본처하고 또 재혼을 하고 그랬을 때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나의 경우입니다만 재혼의 경우에.. '이건 원래 내 물건이 아니었다' 그랬을 때보다는 '이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산 것이다' 그런 것에만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물건이라도.. 그러면 하물며 사람의 경우에는 '저 사람은 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 같이 앞으로 자식을 같이 놓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 피차 불행한 처지에 서로가 필요한 조건을 나눈다.. 그런 식으로 의식 구조 자체에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 서로가 만족감도 덜하고... 이렇게 내가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겠지.. 그땐 그랬어요..(사례 7, 남/78)

또한 김(사례5, 남/ 66)은 젊었을 적 성적 욕구는 배고픔에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무조건적이었으나, 이제는 자신의 취향이나 성적 욕구가 좀더 세밀

해지고 섬세해져, 자신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계를 음미할 수 있는 상대를 찾고자 한다고 한다.

> 젊었을 때에는 젊은 혈기에 예를 들어 치마만 둘렀다 하면은 무조건 밑에, 그 귀중한 것이 불끈불끈 한다던지 그럴 수 있겠지만 은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은 줄어들고.. 조금은 탐미심이라든지 그런 것이 경험을 통해서 더 섬세해지고, 세밀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심미, 자기가 타고난 그런 깊은 곳에 있는 욕구..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면서 거기에 부합되는 대상 쪽으로 가려가겠죠.. (중략) 젊었을 적에는 자기 자신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대포로 어떤 환경에 대해서 그냥 자연환경적으로 주어진 여건 중에서 택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은, 나이가 들면은 점점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더 원하고 있다든지, 더 적합하다든지 이런 것을 점점 알아가면서.. 조금은 그 대상에 대한 것이 좁아지겠죠.. 젊었을 적의 욕구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아무 음식이나 허겁지겁 먹는 거라면.. 나이들어서는 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음미하며 먹은 미식가 같다고 할 까요.. (사례 5, 남/66)

⑤ 여생의 동반자로서의 이성에 대한 존재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남녀간 힘의 균형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다

나이가 들면서 남자노인들은 여자들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여러모로 의지를 하려 한다. 가정 내에서 일방적으로 권위적 위치에 있던 남자노인들이 젊었을 때 당연시했던 여필종부로서의 아내의 역할에 대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르게 받아들인다.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대화를 나눌 사람으로서 여성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보필하는 아내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아내를 존중하게 되면서 더욱 가까워진다. 아내의 존재에 대해 의식하지 않았던 것은, 결혼 전에 서로의 얼굴조차 못 본 채로 부모의 권유에 의해 결혼을 해야만 했던 시대적 환경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산다 이거야.. (중략) 나이가 들어서는 가정적으로 꼭 필요한 보조 역할을 해주고.. 의식주 같은 문제야 내가 돈을 벌어서 해결을 하고 그러치만은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또 이해의 상대 역할도 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 좋으냐, 나쁘냐 판단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 여자가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지.. (사례 1, 남/74)

우리 남자들은 노후를 의지하고 결혼보다도, 또 결혼해도 그래요. 결혼이전에 서로 의지하고, 대화하고 그럴 남자를 구하는 여자, 그리고 비용이, 돈 있고 없고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관계가 없고, 내가 좋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례 10, 남/77)

젊었을 때는 남편이 아무래도 여자를 중요시하지 않았다.. 그런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아내라는 존재를 별로 의식하지를 않았거든? 그런데 차츰 차츰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략) 응당 그래야 했던 거, 말하자면 여필종부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내라는 약한 여자의 입장을 내가 생각을 좀 해야겠다.... (중략) 나이가 차츰 들면서 애들도 크고 하니까 아내의 위치를 감싸주고, 또 존경을 하고.. 차차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더더욱 가까워지고..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로 아내를 생각하고 감싸주고 그랬지.. (중략) 나이가 들면서는 자기 아내에 대한, 고생을 했다든지, 자기를 보필했다든지.. 그런 공로가 있잖아요? 그런 공로를 생각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을 반성도 하고.. 바람을 피웠다든지, 이런 결과를 서로가 깨닫게 되는 거 같아요.. (사례 7, 남/78)

내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내 친구들도 거기에 보면, 지금 보면 부부간에 50년을 같이 산 사람이 별로 없어. 나는 금혼, 나하고 50십년, 기념식도 하고... 요즘에는 나한테 잘해주고, 나는 이제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런께. 나를 영감으로 보필을 하고, 뜻을 맞춰주고 그러니까(사례 9, 남/72)

따라서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아내의 견해를 존중하게 된다. 자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가 남편에 비해 그 유대가 튼튼하기에 남편들은 점점 격상하고 있는 아내의 역할과 위치를 받아들인다.

> 서서히 나이가 육십을 넘어가고 하니까 여자가 이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더라고.. (중략) 또 여기는 곪았는데 그것을 못보고 앞만 보고 가는 게 남자더라 이거야.. 이것을 여자가 잘 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를 하기 시작했지.. 그때부터 나는 모든 가사는 여자 하는 대로만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잘 되고, 웃음도 나오고.. (중략) 여자는 그저 참모 역할만을 했었는데.. 이제는 보면 격상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점수로 보면은 50점, 50점이 아니냐 이거야.. 오히려 이제는 여자가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봐야지.. 그러니 나이가 많으면은 경제도 모두 안쪽으로 들어가고, 집안 문제도 그렇고.. 또 자식들 생각하는 것도... (사례1, 남/74)

우리 나라 노인세대는 대부분의 생활을 자녀 위주로 지내왔지만, 자녀를 통해서는 해소되지 않는 이성에 대한 그리움을 깨닫게 된다. 신(사례11, 여/ 66)의 경우를 보면 사별한 후 처음에는 자녀들의 눈치 보느라 재혼은 엄두도 못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딸의 인생에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음을 깨닫는다. 자신이 바로 인생의 주인공임을 자각하게 되고, 여생을 함께 할 실제적인 동반자에 대한 그리움을 좀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실현하려는 용기가 생긴다. 술을 먹고 와도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았던 남편, 그러한 남편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외로움이 없었다는 여든을 넘긴 김(사례6, 여/ 83)의 경우나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같이 덮던 이불을 자르기까지 했다는 신(사례11, 여/ 66)의 경우는 이성을 통해 얻는 정서적 충족감이 결핍된 외로운 상태가 노년에서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 짐작케 한다.

> 어쨌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딸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인데, 한 삼 년 뒤에 했어야지 이

렇게 외로와서 쓰겠어? 딸이랑 남편이랑 다르지. 내가 손자 다섯 살까지 봐줬는데 이사가는 건 따라 못 가겠더라고. 친구들은 왜 가서 있지. 왜 혼자 있느냐 그러는데 난 안 그래. 내 취미생활도 하고 해야지. 내 인생도 있는데.. 친척들이랑 친구들도 다 여기 있는데, 거기 가서 아는 사람도 없이 왜 그러고 살아. 물론 같이 갔어야 옳지. 그래도 지금은 이런 생각도 있어. 사람 있으면 나 이런 사람 있는데, 서로 도움도 주고 왔다갔다하면서 산다, 이렇게 털어놓고 싶은 심정도 생겼어. 그러면 어쩌겠어, 자기인들. 같이 저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사례 11, 여/66)

물론 혼자 있으면 적적하지만은 부부생활을 하면은 적적할 때가 없었어요. 밤낮으로 서로 성교를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채취나 말로.. 내 남편은 술을 먹고 들어와도 구수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거 같애.. 그러니 그런 게 정인가 봐, 아마.. (중략). 결국은 내 남편이다 하면은 같이 끌어안고 자도 좋은 거고.. 또 뭐라고 말을 할까, 그거를? 남편 하나 있는 걸로도 대부분 다 해결이 되는 거 같아요.. 외로움은 없으니까..(사례 6, 여/83)

나 외로울까봐 챙기는 자식이 없어요. 4년 전인가 딸네 지방으로 내려가고 추석날 처음으로 혼자서 제사 지내고 났는데,... 빈집이 휑한 게 두 다리 뻗고 앉아서 대성통곡했어요. 그처럼 서러운 게 없더라고.... 간혹은 나도 모르게 아랫도리 사이로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가는 것 같을 때도 있어.... 밤에 혼자 자려고 누웠을 때 ... 그때가 많이 힘들지... 가슴이 도려나간 듯이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 어느 날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 미치겠더군... 2인용 이불 있잖아 같이 덮던... 가위로 반을 확 잘라 버렸어, 생각이 좀 덜 날까 싶어서... (사례 11, 여/66)

남편과의 이별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고 느낀다. 자식들이 근처에 살고, 부부간의 애정이 돈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없이 홀로 남겨지는 데 대한 두려움은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을 복이라 여기게 만들 정도로 자신의 죽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여자가 앞에 죽어야 복이래요. 사는 거는 남자가 먼저 돌아가셔야 하는데 복은 남자 앞에서 죽어야 복이래, 그게 여자가.. 옛날부터 그랬어.

신랑 앞에 죽으면 복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나이 들어서 남편이 먼저 죽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마누라가 죽으면 남편이 절도 해주지, 그 이상은 없지 이제 대우가.. 죽는 거도 안 보고 싶으니까 남자 앞에서 죽는 게 복이다 그거지..... 혼자 된다는 것은 참말로 외롭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여/68, 이)

김(사례 7, 남/ 78)은 자식들의 출세나 행복도 홀로인 자신에게는 행복함을 주지 못한다고 느끼며 죽은 아내를 원망한다. 그렇지만 재혼한 아내에 대해서는 죽은 아내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역으로서만 의미가 있을 뿐 헌 몸이라는 생각에 정을 나누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계기로 아내와 아쉬움없이 이혼을 한다. 그러나 결국 친자식들도 행복한 가정을 갖고자 하는 자신의 희망을 실현시켜 주거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음을 깨닫고 강한 유교적 가치관에 젖어있던 참여자 역시 재혼한 아내를 편안히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투정도 부릴 수 있는 동반자적 존재로 받아들인다. 이성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자식이 메꿀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이성을 동반자적 존재로서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외로울 때는 죽은 아내가 원망스럽고,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뭘 더 바랄 게 있고 그럴까..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 같고.. 잘 되지는 못했지만도 다 내 자식들이 사회에 중요한 인물로 진출해 있고 그러니까.. (중략) 그 사람도 물론 죽고 싶어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원망스럽고 그렇단 말이야..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니 대역이라도 있어야겠다 해서 재혼을 하게 된 거지.. 아내에 대한 대역...(중략)...자녀들과 같이 살아도 외로움이 있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낮에는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만 밤에 잘 때... 텔레비전을 보다가 밤에 잘려고 하면 외로움이 느껴지지.. 그런 거 안 느껴본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 잠은 안 오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투정할 사람도 없고.. 그 밤은 나 혼자 뿐이라는 거야.. 그렇게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라.. 이 어려움은 안 겪어 본 사람이 없다 이거야.. 아직 처녀나 총각이나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해서 떳떳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두고 출세도 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 이런 희

망이 있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라.. 희망이.. 이 세상이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 외로움을 더 느낀단 말이야, 장래나 미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외로움은 더 크고, 마음은 약해지고 그러지.. 그러니 어찌된 사람이건 마누라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경험으로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심정을.. 실제 그 외로움을 느끼면 참말로 기가 막히지.. 사실 재혼한 아내는 내가 헌 몸이라는 생각에 가까이 하질 않았지요. 그리고 내 돈도 날리고.. 장사한다며.. 그러니까 이혼도 별 어려움 없이 그냥 했지요.. 병도 걸리고.. 스스로도 그냥 물러나더라구.. 그리고 자식들과 그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외롭고.. 허전하고.. 자식들과는 다르더라구...(중략)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부산에까지 차로 다섯 시간 거리를 갑니다. 가서 별로..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서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게 사는 거구나 싶지요.. 몸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 그 쪽도 그래요. 미안해하면서도 좋아하지요. 사실 요즘엔 더 자주 가고 싶단 생각도 들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편하지요. 갔다오면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아요... 같이 잠을 자거나 그.. 몸을 섞지 않더라도... 이렇게 반기고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게...예전과 달라요..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달라지고.. 나도 잘못했구나 하는 마음도 들어요..서로가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죠...(사례 7, 남/78)

⑥ 노인의 올바른 성역할 모델이 부재한 사회풍조에 대해 비판하다

박(사례 1, 남/ 74)은 노인들 중에서도 가정을 우선시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책임감 없이 단순히 하룻밤 상대로 만남을 즐기거나, 신체적 쾌락을 위한 약을 찾을 뿐 서로간의 소통에는 무관심한 노인들이 많다고 한다. 민(사례 2, 여/ 73)도 배우자가 있는 데도 바람을 피는 노인들이 많고, 더욱이 신체적으로 성적 기능이 있음을 자랑하는 여자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김(사례 7, 남/ 78)은 노인들의 성 욕구는 여전하므로 경제력만 있다면 자신도 젊은 이들과 즐기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시인하면서, 육체를 가벼이 여기는 풍토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성을 상품화하는 경향은 노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젊었을 때에는 외부라든지.. 참 두려운 것이 가정파탄이지.. 모두들 가정파탄을 참 우려를 하는 거예요.. (중략)....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어떤 별다른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이 많아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와 나의 즐거움, 쾌락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변하더라구요..(중략)..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여자하고 하룻밤을 지냈다 하면 거기서 끝을 냅디다.. 거의 다가 그래요, 거의.. 그런데 저는 그걸 못 합니다.. 끝까지 돌봐줘야 해요, 끝까지 연락을 하고.. (중략) 나이 칠십, 팔십까지도 그게.. 힘나는 약이 없냐고 문의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론 거의가 다 육체적인 쾌락이 중요하지, 뭐 내가 의지를 할 사람이다, 정신적으로 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중략) 내가 보니까 거의가 쾌락입니다, 쾌락을 원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 이전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서로 의사 상통할 수 있는, 내 정신이니 정신이고.. 하는 맘에서 시작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거의 다가 육체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략..) 그것이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례 1, 남/74)

여자노인들 중에도 자기가 멘스한다고 소문내고.. 야하게 하고, 또 딴 남자랑 바람을 쐬러 다니는 여자들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 남편이.. 마누라가 있는 남잔데 그렇데 도둑질을 하고 다니더라고, 그렇게 남자를.. 그러니 말들이.. 그렇게 지조가 없어 노니까 그 소문이 아이고.. 뭐 여자가, 또 남자가.. 어쩌니 그런 더러운 소리들을 하고 다녀.. (중략)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러운 게 아니라 서로간의 감정으로 그렇게 저희 둘이 엔조이해 가지고 재미만 보면 되는데, 왜 그걸 하고 나서 그 여자가 뭐.. 같이 자고 났는데 요강으로 하나를 여자가 쌌다느니, 남자 놈들이.. 그렇게 자고 나면.. 그런 것을 내가 직접 들어서 알아, 그런 거를.. 바람둥이 놈들이 그런 식으로 그러고들 당기니.. 같이 재미를 봤으면 자기 혼자 알고 말아야지,.. 그러면 그 여자 꼴이 뭐가 되냐고.. 망신스럽지, 아무리 바람둥이지만은.. 그러니 여자도 욕먹고, 남자도 욕먹고 그런 거지.. 할려면 조용히 해라 그거야, 나는 아무도 모르게.. 뭐 그걸 했다고 그렇게 세상이 떠들썩하게.. (중략) 그래서 내가 약은 왜 먹고, 왜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맨스한다, 맨스한다.. 그렇게 내가 조금 뭐라고 그랬지.. 그렇게 하는 여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자가 그렇게 되면 못 쓰거든? 한 남자한테 지조 있게 그래야지, 여자가.. 왜 그렇게 소란스럽게 여자 망신 다 시키고 다니는지.. 암튼 그렇게 결혼 안 하고 막 남의 남자랑 여자랑 자러 다니는 사람 있지.. 그게 뭐야 아유, 창피해. 끝이 안 좋다 이거야. 서로가 좋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사례 2, 여/73)

내가 공무원생활 하면서 그땐 국민들로부터 받는 신뢰..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걸 자랑으로 삼았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해. 돈 있는 친구들은 다 어린 여자애들이나 젊은 여자들과 지금도 잘 노는 거야... (중략) 나도 돈 있고,..그러면 젊은 애들 데리고 놀지... 늙어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느끼는 욕구는. 나말고 대부분이 그럴 거야. 원조교제가 가능한 건 학교교육의 문제고, 젊은 애들의 돈 만능주의가 문제지. 어린애들이 성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돈을 중요시하는 그애들의 생각이 문제지.. 육체를 가볍게 여기고, 성관계도 거리낌없고.. 사회풍조의 문제야. 교육이 바로 서야지..(사례 7, 남/78)

또한 박(사례10, 남/ 77)은 요즘의 여자노인들이 남자를 어떤 대화상대나 사랑을 나누는 상대로서 만나려 하지 않고, 남자를 통해 이밥(쌀밥)을 먹으려 하는 즉,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는 심리에 대해 비판하면서, 노인들의 이성교제가 단순히 계산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실한 만남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자들 생리가요, 남자 붙으면요 그 혜택을 볼라고 그래요. 여자들 생리가요 중년 여자들은요 남자 만나면 밥 한술 먹고 살 때는, 내가 이 밥 먹을려구 했지 하는 얘기. 내가 어떤 남자를 다시 시집을 갈 때는 내가 호강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여자들 부류에요. 젊은 세대랑 영 달라. 젊은 세대는 좋으면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거야. ...(중략) 그렇지 못하면 혼자 살지 뭐하러 같이 사느냐. 그렇게 나오는 게 교양있는 여자들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 몇 사람 만나봐도 다만.. 내가 경제적으로, 집도 얻어주고 그러지만, 소용없어요. 자꾸 구실을 달아요. 근데 여자들은 만나보니까 2/3는 그래. .. 서로가 진실한 만남이 되려면 ... 서로 외로움을 달래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을 구할려고 해야 하는 거야. (사례10, 남/77)

따라서 박(사례1, 남/ 74)은 성의 신성함이 지켜지는 개인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올바른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고 믿지만, 아울러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를 통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모델과 윤리가 제시된다면 가정과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그런 결과 사회도 올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성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 놓여있는 부산물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 ..이렇게 올바르게 성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육체도 보존이 되면서 사회까지도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노인들을 위해서도 여러 연구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인 인구가 7프로, 8프로가 훨씬 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연구를 통해 좋게 되면은 그 가정이, 그리고 사회도 올바른 곳이 되는 것인데.. (중략)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의 기본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대로 이게 서로 이해가 되고 이루어지면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살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중략) 사회적으로 윤리가 변천을 가져온다는 것인데.. 노인들도 젊은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요즘 이혼하는 것 좀 봐요.. 나이 육십, 칠십에도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례 1, 남/74)

주제 5. 이상적인 관계의 이성에 대한 기대

① 허물을 감싸주는 안식처로서의 이성을 기대하다

박(사례1, 남/ 74)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친구를 건져내고자 물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상대에게는, 자식이나 아내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말한다. 민(사례 2, 여/ 73)도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꿈꾼다. 대표적 예로 자식들에 대한 흉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든든한 안식처로 믿었던 자식에게 느끼는 섭섭함과 설움을 경쟁적 상대가 아닌 남편이나 이성친구에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서 같이 공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관계는 몰이해나 비난을 염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감히 보이지 못하는 자신의 감춰진 모습도 수용될 수 있기에 상대에게 드러내는 관계이다. 그러한 내보임에 대해 신경쓰는 불편함이 없이 자신을 열어 보이고 그것을 받아 줄 수 있는 이성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 나이가 많으면은 내가 아내에게 할 말이 있고, 또 자식에게만 할 말이 있고, 어떤 것은 아내나 자식이나 다 말 못하는, 그런 비밀도 간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할지, 이것을 외부 사람한테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하면은, 만약 길을 가다가 하나가 물에 빠지면 죽더라고 건져내겠다 하는 그런 정분이 있는 사이라면 충분히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중략) 그렇게 말하기 힘든 것을 이해해줄 사람이 어디 그리 많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중략)
> 그러나 둘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자식에게 이야기 못 하고, 이웃이나 형제나 친척한테도 이야기 못 할 것이 친구간에는, 그 사람들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되면은 그 사이에서는 그게 이야기가 되거든.. 그러니 이 할머니가 바람에 날려서 연못에 빠졌다고 그러면 끌어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사례1, 남/74)

> 영감이 없으면은 내가 누구랑 자식 흉을 보겠어.. 그런데 그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시아버지가 그렇게 장가를 갈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저렇게 늙어서 뭐 결혼을 할려고 할까? (중략) 그랬더니 우리 저 양반이 "흉 볼 사람이 필요하잖어" 그러더라고.. 사실 흉은 남하고 보면 그게 참 이상해질 수가 있어.. 어느 집은 어떻더라는 이야기도 그걸 남이 들으면 흉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부부간에는 오래 산 그 뉘앙스가 있잖어.. 같이 오래 산 사람이고 또 같이 늙은 사람이니까... 그런 게 참 늙어서 좋지, 그래서 나는 우리 딸한테도 젊어서는 그냥 살아라, 부부간에 섹스를 해서 즐겁고 좋은 건 겨우 몇 년에 불과하고 몇 년 지나가면 그게 그냥 그렇다.. 그런데 정말 남편이 필요한 건 한 마흔 대여섯 지나고 필요한 거 같아, 말상대로.. 그래서 난 더 늙어서 결혼을 해야할 거 같아. (사례 3, 여/66)

남남끼리 서로 의지하고 애껴 주는 거 있고, 서로 말이 통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말 못 할 얘기도 둘이서 할 수 있잖아.. 가족들 흉을 본다든지, 며느리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이 어디로 나가겠어? 둘이서만 하는데? 그러니 어디 가서 털어놓기 힘든 것들.. 서로 나누고....(사례 2, 여/73)

김(사례5, 남/ 66)은 친한 동성은 편안함은 제공할 수 있으나 아늑함은 느낄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살을 맞댐으로써 완전히 내맡길 수 있는 아늑함을 동성친구에게서는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서로를 잘 앎으로써 자신 역시 감추지 않고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고 눈치볼 필요없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아늑한 안식처와 같은 상대를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안식처는 아늑함과 동시에 생동감을 제공한다고 한다. 쉼으로써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것, 즉 안정적 생동감을 얻게 된다. 생동감이 포인트라 말하고 있는데, 일의 성취를 통해서 느끼는 생동감은 지속될 수가 없다는 그의 부언을 미루어보건대 이성을 통해 얻어지는 생동감은 안정적인 의미가 중요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활기참과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내 집을 마련했을 때의 느낌과 유사하다라는 비유는 든든함과 안정감이 이상적 이성관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 친구를 통해서 더 안정적인 생동감을 느끼겠죠..(중략) 자기 집이 없이 여관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별로.. 주거가 안정이 안 되면 정신도 안정이 안 되듯이.. 시골에 가면 아늑한 자기 집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고.. 서로나 타인들이 볼 때도 안정감이 생기고 그런 차이이겠죠.. 자기 위치,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 물론 자기 자리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지만은, 또 상당히 변수가 많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상당 기간은 이사가기 전까지는 여기가 내 집이다 그런 마음이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자기한테도 자신감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게 된다고.. (중략) 동성친구라는 것은 식당에서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성친구라는 것은 편안히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아닐까요? (중략) 집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나그네하고 자기 안식처가 있는

사람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겠어요? (사례 5, 남/66)

그 느낌은 이제 이런 거지.. 저이는 내가 맘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해도 받아주고 그럴 거 같아서 내가 참 사귀고 싶다 그런 마음은 있는 거야..(중략) (이성친구에게는) 언제까지나 친한 친구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무슨 일이든 거기 의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마음이라도 의지하고 싶고.. 그런 거죠...(중략) 이성 친구한테 하는 것이 더 믿음직해요.. 동성은 변하거든(사례 6, 여/83)

② 서로 맞춰가며 상호보완하는 조화로운 관계를 원하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요구만을 관철시키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통해 맞춰나가는 관계를 가치있게 여기게 된다. 남자노인들이나 여자노인들 모두 양보와 조화로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조화로운 상태를 추구한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의 성격을 알아서 맞춰가면서 사는 거.. 나이가 들면서 쌓이는 게 그런 거지.. (중략) 이제 더 늙어갈수록 서로를 더 애끼고, 사랑하고, 전보다 정이 더 좋아야지.. 자꾸 자꾸 정이 더 좋아지고, 싸울 일도 싸움 안 하고 서로 조금씩 더 이해하면서 마무리를 정말 아름답게 해야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서로가 상대방을 위하고 위로하면서, 이제는 성격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좋은 대로, 내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맞춰가면서.. 노년기에는 그게 중요한 거 같애.. 서로 맞추면서 싸우지 말고.. (중략) 그리고 서로가 진짜로 상대방을 위하고 사랑하고, 성격도 맞추고 식성도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아야되지 않겠나.. 정말로 가치 있는 거는 그런 정이지, 정.. 정이 있어야 사랑도 있고 그렇다고..(사례 4, 여/74)

(재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이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런 환경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하느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그때 그때 환경에 적절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서로 양보할 것은 하고..(사례 5, 남/66)

기존의 권위적인 관계라든지 일방적으로 힘이 편중된 복종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게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관계를 원한다.

> 항상 좀 어렵게, 복종하는 식으로 살았으니.. 그런데 친구한테야 어렵게 복종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동등한 친구로서 사귀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나쁘지 않느냐 하는 소리는 그 전에 남편한테는 좀 못 해봤지.. 그렇지만 친구한테는 할 수가 있는 거지.. (사례 4, 여/74)

박(사례 3, 여/ 66)은 결혼당시 경제적 의존 상태에 있을 때는, 부부간의 성적 관계도 종속적인 자신의 위치가 반영되는 형태로 인식되어 자신이 창녀로 전락한 듯한 몰락감과 회의에 빠졌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적 힘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서 가정 내 위치가 점점 상승되어 남편과 보다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자, 참여자는 성행위가 깨끗하게 느껴지고 거기에서 얻는 기쁨이 더 커졌을 뿐 아니라, 이제 자신에게 무기와 같은 힘을 줄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권위나 힘이 대등한 관계가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 내가 젊었을 때 맨 처음 시집와서는 살면서 남편 밥을 얻어먹는데 뭐 치사스러워서... 맨 처음에는 창녀나 부인이나 뭐가 다른가.. (중략) 한 20년후에? 나도 그렇게 맞벌이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도 내가 벌어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떳떳해 지더라고.. 그리고 점점 남편도 나이가 있어서인지.. 나에 대해 좀더 배려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단순한 행위지, 부부간에.. 주종관계나 그런 건 아니다 싶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더 그것도 깨끗해지고 그렇더라.. 이젠 밥 얻어먹고 대주는 것, 그런 것으로는 여겨지진 않더라고..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젊었을 때는 치사스러워서 무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늙어서는 여자에게 그것도 무기는 무기더라고.. 저렇게 영감이 금새 헬렐레해질 수가 있냐.. 그걸 내가 느꼈다고.. 그렇게 남자들은 좋아하더라고.. (사례 3, 여/66)

또한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의 곁에 묶어 두기보다 상대를 위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상대방의 행복을 배려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

> 서로 진실로 대하고, 맘이 있으면 그 상대가 어디를 가던지 돌봐줍니다.. 또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만난 사람이 만약 재혼을 하겠다고 하면은 여기저기 조사를 잘 해서 좋은 곳에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뒤로 후퇴하고.. 이것이 참다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많지가 않죠, 내가 몇 명 보기야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거의 다가 육체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략).. 그것이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례1, 남/74)

③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합일의 관계를 추구하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면에서 동격인 상대와의 만남을 이상화한다. 그런 관계에서 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서이다. 동격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나 육체적 조건 등 어느 한 영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성에 대한 자신의 심미성이나 육체적 조건, 종교 그리고 대화의 수준, 모든 부분이 비슷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추구하는 바까지 일치하는 제2의 나를 찾는다. 육체나 정신, 종교 등에서 다른 입장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더 이상 단절감을 느끼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동질성을 공유할 수 있는 분신과 같은 관계를 간절히 원한다. 이러한 상대는 공감대의 형성을 통해 지속적이고 든든한 관계가 가능하다고 여긴다.

> 부부간에도 그렇고, 사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동격인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야기가 통하고 그런 것인데.. (중략) 친구라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야 서로간에 정도 나오고 심지어는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애정도 나오고.. 부부간이라는 것은 애정을 바탕으로 부부생활

을 하는 것인데 애정이 없으면 부부생활은 못 하는 거지.. (사례1, 남/74)

김(사례 5, 남/ 66)은 흔히들 무시하기 쉬운 육체적 적합성에 대해 간과하지 말고 같은 무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상대방과 정신적으로 함께 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 적합성은 이성간의 관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데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데, 정신적인 것 못지않게 육체의 기능에 있어서도 서로 감당할 수 있고 맞아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거라 여기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또한 육체적 적합성은 한도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부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생각은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 능력의 변화가 크기 때문이라 여겨지며,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육체적인 적합함,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으로 잘 맞느냐, 친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이성간에 친구로서 고려할 때 그 중요한 관점으로 정신적인 것, 이상에 대한 것, 취미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육체적인 것, 서로가 서로의 육체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상당히 정신적인 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 거 아니냐.. 젊을 때에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맘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헤어지고 그러지만은 결국에 보면은 그 이면에는 육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클 거라고 보는 거죠.. (중략) 정신적이라는 거는 취미라든지, 종교라든지, 가치관, 세계관, 이성관..일수도 있고.. 육체적이라는 것은 어떤 몸무게라든지, 또는 힘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어떤 질량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략) 미시적으로 볼 때는 정신적인 것이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은 거시적으로 보면은 육체적으로 잘 맞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중략)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도 정신의 표현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정보가 눈에 보이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육체의 일부이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정신적인 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나는 거시적으로 볼 때 그렇게 적합한, 합당한 표현이라고 안 보는 거죠. (사례 5, 남/66)

우리 순수한 사람들은 절대 마음이 있어야 되요(성행위가). 절대 마음이 있어서 기분이 서로 잘 어울려야지만 되고 더구나 늙은 사람, 우리 같이 6,70된 사람은 분명히 좋아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조금만 서로 하다가도 말이라도 튀는 말 있어서 기분이 딱 깔리면 안 되요. 그러면 우로(질분비물)가 없어요. 그렇게 예민한 게 우로고 정인데 인간의 행복을 첨예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전엔 모르는데, 서로가 그런 걸 느껴야 되고..(사례10, 남/77)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커다란 목표에의 일치로 결함을 덮고자 함이다. 좋은 사람도 나중에 깊이 알고 난 후에는 서로 불만도 생기고 흠집도 보인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만 매달리는 관계는 곧 지루해지고 마찰이 있게 된다. 지향하는 바의 일치가 안정되고 지속된 관계를 영위하게 해주며, 이것이 종교라 여기고 있다.

제 육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여성과.. 육체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정신적으로는 이상이 같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상대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중에 알만큼 알고 나면은 서로 또 불만도 생기고 흠집도 보이고 하는 것이지만은 종교가 같게 되면은 서로가 커다란 목표 속에 그런 다른 사소한 결함은 다 덮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종교가 같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같거나 같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례 5, 남/66)

이성과의 관계에서 공유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요소도 포함된다. 이해타산 없이 돈을 공유하고, 자신의 형편이 어떻게 변화할지라도 옆에서 끝까지 지켜주는 계산하지 않는 관계가 가능한 상대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긴다.

친구보다는 영감이 중요하지.. 친구는 그래도 남이라서 타산적 아냐? 돈이 섞일 수가 있겠어? 내가 쟤를 한 다섯만큼은 줬음 쟤가 나를 넷만큼은 줘야 친구 관계라는 게 되지.. (중략) 그런데 주는 것만큼 엇비슷하게 주고, 받고 해야지 그게 친구가 성립되는 건데 식구라는 것은

어느 누가 조금 더 희생을 하고도 식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감하고 다른 거지. 영감은 그래도 같이 뼈빠지게 고생해서 늙은 사람인데 그게 어디 같은가? (중략) 영감들은 뭐 재미가 있어? 근데 그래도 의지가 되는 것은 어디다가 영감을 친구한테 대? 그건 아냐.. 영감이 돈 주지, 친구가 돈주겠어? 그리고 막판에 그래도 쓰러지면 봐줄 거는 영감이고 식구들이지. (사례 3, 여/66).

④ 나의 존재의미를 확인시켜주는 동반자를 갈망하다

나를 알아주고 나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해 보아주는 상대야말로 나를 다시 새롭게 존재케 하는 이성이다. 자신을 색깔없이 바라보는 가족들과 동료,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만의 개성을 발견해주는 상대는 삶을 다시 활기차게 해 주는 기쁨이다. 나이 들어 자신을 알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고유한 존재로 일깨워 줌으로써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는 것이며, 여기에 이성과의 만남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나면은 마음이 달라지잖어.. 신비스럽게 나를 표현을 해주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좋구.. (중략)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알고 응수를 해주고 그런 거..(사례 6, 여/83)

그 사람한테 꼭 무엇을 받을 것이다, 또 무엇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워낙 관대한 사람은 이해도 많고, 포용력도 있고 마음도 깊고 그렇겠지만 은 내가 꼭 고귀한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받겠다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 본 거 같아요.. 그저 남자라면은 고귀하고, 관대하고 진실해야한다.. 나는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진실해야지.. 진실하고, 자상하고..나를 알아주고..(사례 4, 여/74)

나를 아껴주고, 챙겨주며, 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고, 무엇인가 역할을 갖게 하는 상대는 소중하고 고맙고 따뜻한 소통감을 느끼게 한다.

내가 남편이 없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남자란 말이야? 그 남자가 나를 아껴주고, 생각해주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게 그 남자 아니면 나한테 해 줄 사람이 없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게 참 고마웠지.. 그래서 좋았던 거야, 그래서.. 보고 싶다고 그러고, 정을 안 끊고, 그 보고 싶은 정은 그대로 남겨 두면서 만나면 항상 새롭게 만난 것처럼 나를 잘 대해주고, 만나는 날은 좋은 거 먹이려고 보낼 때까지 애쓰고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그렇게 하느냐고.. 안 그래?(사례 2, 여/73)

그래도 맘이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쓸쓸하고 외로운 건 외로운 거지.. 그래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차라도 마시고 저녁이라도 먹고.. 또 가깝게 앉아서 서로 손이라도 만져주고 그러면 좋은 거지.. 뭐 별 게 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중략) 단지 부부생활이 젊어서는 좀더 재미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 이외에는 서로 위해주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가 더 있겠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산다 그러고... 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고 그러니까 내가 잘 산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지... 별 게 없어요.. (사례 6, 여/83)

서로 따뜻하게 만지고 사랑함으로써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리면서 느끼게 되는 허무감과 안타까움을 달랠 수 있다. 육체적 극치감을 향한 욕구만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허전함을 채우고 달래줄 때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을 지향하는 이성관계를 갈망하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우리가 마지막 연애요, 마지막 사랑이니까 남들보다는 우리가 알뜰하게 같이 살거나 결혼은 못 해도 알뜰하게 서로 사랑하자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맨들었어요. 내가 이건 이름을 붙인 거야, 예쁠 연 자, 사랑 애 자 호는 명산이니까 명산 고연애 1995년서부터 2000년까지 한다. ..(사례10, 남/77)

500킬로를 가는데 옆에 짝을 잘못 만나면 그 네 시간, 다섯 시간이 그런 고통이 없어요.. 잘 만나게 되면은 그 네, 다섯 시간이 단 몇 분밖에 안 되는 기분이고.. 그러니 인생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그렇게 자기 짝꿍을 잘 만나면 그렇게 좋고, 친구도 잘 만나면 얼마나

기쁘냐.. 그렇게 올바른 짝꿍,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례 1, 남/74)

남편은 그래도 자기도 늙고 그러니까 늙는 게 안타깝고 그러니까.. 늙어서 다정한 부부들은 애무도 하고, 키스도 하고.. 그러면서 만족을 느끼고 살지.. 서로 만지고 그러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안 되고 그래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중략) 우리가 나이가 먹으니까 인생의 종말이 가까워 오는 거 아니요? 그러니 아쉽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꼭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애무도 좀 해보고 싶고.. 같이 달래고 싶고..(사례 6, 여/83)

주제 6. 성 의미의 재확인

① 성은 본능으로서 신성하다

박(사례1, 남/ 74)을 비롯하여 참여자들은 성은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여자이건 남자이건 간에 누구나 가지는 본능이며, 점잖음이나 체면에 구애받지 않는 신성한 본능적 요소라고 한다.

절대적으로 성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봐.. (사례1, 남/74)

(성 자체는) 순수하지. 순수한 그런 것이지. (관계를 돈독히 시키거나 위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간이지. 성에 대해선 뭐, 본능적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사례 9, 남/72)

여자가 행동으로는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야.. 조금 쑥스러워하고 그러면 (남편이) 그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성스러운 건데, 부부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성스러운 거고 고귀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중략) 뭐 나야 그런 가부다 했지요, 뭐.. 사실 드러나야 창피하고 그런 거지, 뭐 둘 사이에서

는 창피하고 그럴 것도 없겠지.. 부부간에, 부부사이에 뭐 창피할 게 있겠어.(사례 4, 여/74)

그러나 박(사례1, 남/ 74)은 성의 신성함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만나는 과정에서 예의가 따라야 한다고 한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배려와 인간다운 예절로서 상대를 대하고 성관계로 발전할 때 신성함이 지켜진다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따르지 않고 서로를 탐하는 것은 강탈이며, 결국 신성한 성이라 볼 수 없다.

성이라는 것은 부정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떳떳하지 못한 것..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환경에서, 만나기 이전에서부터 성행위를 하기 전까지의 인간의 태도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성 자체를 모독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성은 신성하더라도 성관계를 하기 이전에 두 사람이 얼마만큼 인간다우냐..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 성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라면은 지킬 것을 다 지켜야 하지 않은가 말이야.. 예의 범절이 있어야 한다 말이야..(중략) 성적이라는 것은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정신으로 내가 상대방을 참 사람을 한다.. 그런데 그 마음만으로 그 사람이 사랑이 되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교양이라든가, 에티켓 그런 것을 다 지켜 줘야 할 거 아니요.. 그러는 가운데 그것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은 강탈이야.. 상대방은 맘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신성한 동시에 그 신성한 것을 보존하려면은 그 전에 남자나 여자나 지켜야 하는 교양은 다 있어야 한다.. (중략) 할머니, 할아버지들 처음 만나는 것도 그것과 같다고 나는 생각합니다...(사례1, 남/74)

② 성에 대한 은밀함이 덜어지고,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다

나이가 들면서 성은 은밀한 것이 아닌 생활의 일부가 된다. 쉬쉬했던 성에 대한 얘기들이 그 은밀함을 덜하게 되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고, 부끄러울 게 없는, 배고픔과 똑같은 인간의 자연적 욕구로서 자기 값을 찾게 된다. 이에 서로 허심탄

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 사람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끌림을 좀더 솔직하게 표현하게 된 기전은 성에 대한 부담의 감소와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용기의 진작이다. 상대에 대한 성적 호감을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성에 대해 부담없고 적극적인 표현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이성 친구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든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뭐 악수를 하면서 검지로 상대방의 손바닥을 긁는다든지, 눈으로 윙크를 한다든지.. 눈으로 '우리는 특별한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중략) 젊었을 때에는 그런 말을 수줍어서 보통 못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 허풍스러워 지기도 하고, 또 용기도 더 많이 생기고 하니까.. 농담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말도 하고 그런 것이죠, 뭐.. (사례 5, 남/66)

> 그 사람이랑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도 살 만큼 살았고, 앞으로 남으면 얼마큼 남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그걸 하고 싶어하더라고. 남자들은 그래. 노래방같은 델 가면 막 껴안을려고 하고, 여관이나 모텔 가리키면서 쉬었다 가자고 그래. 노골적으로 말을 하지. 그러면 도망도 오고 그러지. 오히려 나이 먹어서 좀 친해지면 그런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지. 젊었을 때야 외간남자랑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 못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하게 되는 것 같애. (사례 11, 여/66)

> 흉보고 욕하는 게 아니라 참 아름답고 보기 좋다. 그렇게 생에 있는 동안에 저렇게 하다가 가면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흉보고 욕하지는 않아.. 민 여사도 보면은 저렇게 하면서 건강도 유지가 되고 그럴 꺼야... 애정을 느끼면서 사니까 좋겠지.. 싶기도 하구.. (사례 6, 여/83)

③ 성기능은 힘과 생명력의 상징이다

남자노인들의 경우 성기능 자체를 남성으로서의 생명 자체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 성기능이 되고 안 되고의 여부가 남자구실의 핵심적 요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남자로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것으로 여긴다.

> 나야 뭐 우쭐하지.. 나는 아직 늙은 송장.. 남자 구실도 못 하면 그게 송장이지, 무슨 인간이냐.. 나는 그렇지를 않으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 그러면 송장이다, 살 필요가 없다.. 그러지..(중략) 그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차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남자가 그걸 못 하면 그냥 송장이라니까..? 남자 구실을 못 하면서 뭘.. 그건 인간이하로 취급하는데 뭘.. (중략) 남자로서 남자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사내다.. 이거는 뭐 당연하고 기본의 문제지.. (사례 7, 남/78)

따라서 역으로 남자노인에게서 성기능의 감퇴는 자신의 생명이 끝난, 무력한 존재로의 하락과 같은 비참함을 느끼게 한다. 마치 냄새를 못 맡는 나비와 같다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앞으로 더 이상 살아나갈 수 없는 바로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했다는 신호로 여겨지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으로서 즉, 성적 존재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무의미한 생활만이 주어지는 것이라 여기고 있다. 더욱이 성적 욕구를 종교의 힘으로 승화시킨다는 의지조차도 발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망상태라는 데 위안이 될 여지조차 없다는 처절한 고백이 이어진다.

> 그런데 내가 그걸(발기)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일흔이 되어 내 인생이 초점이 어디로 갈 것인가, 기차를 타고 어디로 내가 갈 것이냐.. 거의 종착역에 다 왔는지 몰라도.. 이제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어디를 달리더라도 농촌의 냄새를 못 맡는 인생, 고향의 냄새를 맡아야 가지.. 농촌냄새를 맡아야... 내가 며칠 안 있지만, 아님 몇 년 아니더라도 그래 살아.. 그렇게 맹목적으로, 희망 없이 살아왔다..어떤 기쁨도 없이 내가 살아.. (중략) 남자가 만약에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남녀가 이 뜨거운 마음을 종교로서 이겨내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작동하더래도 그렇게 종교의 힘을 바랄 것이냐 만은 안 한 것하고 하는 것하고는 틀릴 거 아니오.. 그런데 안 되니까 참는 것도 아무 것도 안 된다 이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나비처럼 냄새 없이, 자극 없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는데.. (중략)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절망이야.. (사례1, 남/74)

김(사례5, 남/ 66)은 자신의 발기력이나 발기지속시간이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예전과 같은 성기능으로 회복되면서, 단순히 성적 만족감만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존재가치가 높아지고, 세상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활짝 열리는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한참 몸이 잘 따르지 않고, ..예전과 같지 않게 .. 관계를 가지면 곧바로 사정을 한다던가 하면서 이제 나도 늙었구나 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스스로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냥 덤덤하게 그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중략) 요새.. 보통 그걸(남자의 생식기) 똘똘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다시 똘똘해지고.. 그 기간도 길어지고.. 그러면서 아, 내가 한 차원 올라가겠구나.. 세상이 다 내 것이 될 것 같은 느낌.. 단순히 성적으로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 5, 남/66)

김(사례 7, 남/ 78)은 남자에게는 성기능이 절대적이며, 따라서 성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친구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성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우월감을 느끼게 해 준다.

(성기능이 안 되는 친구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것을 물어요.. 지금 어떤 여자하고 접촉했던 사실을 이야기라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라도 좀 듣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이 더 속상하지 않겠느냐.. 남의 이야기만 들어서 뭐가..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 정도라도 마음이 위로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친구가 되는 이야기만을 들어도 자기는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그러니 남자에게 성기능이라는 것은 그렇게 절대적인 문제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례 7, 남/78)

한사람인가, 두 사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아직도 기력이, 올바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얼굴을 봐서 믿는다 하는 거지 실은 몰라요.(중략) 그냥 자기들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관악산에를 가면 나보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하느냐고.. 그런데 나는 창피해서 대답도 못 해요.....(사례 1, 남/74)

④ 성적 표현은 건강한 심신을 보존하게 한다

성의 실현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적 존재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특히 성적 존재로 자신의 욕구를 느끼고 이를 배설함으로써 육체도 더욱 건강하고 정신도 건전해진다. 따라서 자위는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며, 여성노인들도 적당히 자위를 통한 배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임을 깨닫는다. 성행위는 건강의 지표가 되는 동시에 또한 생활에 즐거움과 가치를 부여하면서 건강의 향상을 가져오게 한다.

이것이 하고 안 하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되야 만이 육체도 보존을 할 수도 있고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중략)...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지.. 그래서 어떤 강의에서도 들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자위를 해라.. (중략) 여자도 손들어보라고 하니 다들 들던데..? 나는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았어..(중략) 그렇게 적당히 하면은 건강하고 그런 거 같더라구.. 뭐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판단해볼 때 그렇더라구...(사례1, 남/74)

성기능이 된다는 것은 건강에도 좋고, 그 못 한다는 것은 그만치 건강에 약하다는, 몸이 약하고 이런 거...(중략) 부부 간에도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부들은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즐겁게 재미있는 세상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행위를 못 하는 그런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사례 9, 남/72)

젊은 사람은 중요시하게 안 되요. 늙을수록 나이가 오십이 넘을수록 성이 아주 귀한 자기 생활과 생활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매체가 되죠. ....가끔 생각하죠. 성이 안 되면, 좋은 여자 못 만나서 그런지를 모르고 내 다 끝났다 포기하는 거죠. 그거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제 죽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달라지죠. 더 건강해지고,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약도 먹고. 여사가 날 아가씨가 보면 뭐하지만, 여기 먹는 거 보세요. (이것저것 설명하심) 그런걸 먹게 되죠. 먹어야 연장되죠, 먹지 않으면 연장이 안 되요(사례10, 남/77)

⑤ 생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유희물로 기능하다

우리 나라 노인들은 전통적으로 젊었을 적에는 생식으로서의 성이 비중이 높았지만, 나이가 들어 생식자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서 서로간에 기쁨을 제공하는 유희로서의 성이 그 비중을 높여가게 된다.

젊었을 때, 초혼 때는 성생활을, 말하자면 종족 번식용..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혼을 했을 때에는 이제 이것이 오락용이다, 오락으로 바뀌게 되었지.. 그렇게 관념이 바뀌고 그랬지.. 그때는 나도 나이가 많았지만 상대도 나이가 지긋한, 육십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를 놓을래야 놀 수도 없는 거고, 순 오락용이다.. 성욕은 늙었어도 왕성하니까.. (사례 7, 남/78)

나이들어.. 그것이 인제 더 쾌락을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이런 것이고, 젊어서 성을 안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냐 이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 (중략) 나는 느낌도 좋다 이얘기를 첨부터 하잖아요. 젊어서 인자 그런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인자, 그런 것을 더 느끼기도, 쾌락 그런 것도 있고.. 쾌락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죠. (사례 9, 남/72)

⑥ 성교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를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로 전환하다

성적 실현은 삽입을 최종목적으로 하는 성교행위 뿐만이 아니라, 연애 감정, 사랑의 감정 그리고 상대의 기분을 돋구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성에 속함을 깨닫는다. 박(남/ 74)은 인생의 이치가 바로 손가락의 각도에 비유되는 발기력이라 말하며, 칠십이 지나면서 발기력이 새끼손가락 각도만큼 약해진 자신의 변화, 이것을 인생의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인다. 또 그러한 자연스러운 변화 가운데 삽입만이 아니라 서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켜 봐 주며 좋은 기분으로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성에 대한 의미이자 책임이라 여기고 있다. 육체적 조건의 변화를 통해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말하는데 이것이 인생이다.. (다섯 손가락을 수직으로 쫙 펼쳐 보이며).. (중략).. 그런데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성이라는 것은 꼭 남녀가 삽입을 하고 하는 것만이 성은 아니다.. 그저 애무를 하고, 상대의 기분을 좋게 토닥여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관계가 아니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참말로 동감이야, (중략) 내가 생각할 때 성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성이 아니고 남자, 여자.. 이성과 이성이 만났을 때 서로 상대방의 기분을 돋아주고, 좋은 기분으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사례1, 남/74).

> 성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얼른 생각하기에 물론 섹스를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연애 감정, 사랑의 감정.. 그런 것도 다 성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중략) 전혀 육체를 섞지 않고 얼마든지 정신적으로 만도 아주 다정하고, 친밀하고, 서로를 아껴 주고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나는.. 내 마음은 그래, 그런 거 없이도.. (중략) 딱히 살을 섞여야만 재미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여자도 자위행위 하잖아. 혼자도 할 수 있잖아. 그게 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같이 참..살을 대고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감정도 나아지진 않겠나?...(중략) 실제 삽입을 안 해도, 그 사랑이야 다르겠어? 몰라. 실제로 좀 부족할지 모르지.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랑이 깨지고 뭐 그럴 거 같지는 않어. 나같으면...(사례 4, 여/74)

⑦ 음양이 만나 부족함과 갈등을 메꾸고 하나로의 화합에 대한 추구이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늙고 완전하지 않음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불완전한 자신을 수용하고 부족함을 메꿔주는 결합으로써 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동양에서의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성간의 관계는 흔히 음양의 이치로 설명된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이러한 전통적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음양의 교류를 단순히 기운이 상반된 것으로 양 극에 대한 끌림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의 기운을 메꿈으로써 완전한 하나로 되는 관계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 본래는 하나였던 것이 하나가 완전한 것이 둘로 나누어져 있음으로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결합을 통해서 완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성이라고 봅니다. (중략)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을 하기를 불완전한 반쪽이 나머지 반쪽을 만나는 것..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기쁨을 누리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 5, 남/66)

성을 통해 부부간의 싸움이 칼로 물치기가 되면서 화해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쾌감만을 목표로 하는 배출 행위가 아니라, 친밀함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불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감이 형성되고 갈등이 쌓인 부부를 화합하게 하며 관계를 굳건히 재확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 부부간에 싸웠다, 안 싸우는 가정이 거의 없을 텐데 싸웠다고 하면은 화해는 무엇으로 하느냐..? 싸웠으니까 이제 화해를 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성으로써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지..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서로 싸우고, 따지고 하던 것이 순식간에 없어져버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칼로 물 치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성으로 해결을 하게 되어서 또 사랑을 느끼고.. (사례 7, 남/78)

성관계가 다시 활력을 찾은 경우에 스스로도 쾌감을 느끼지만,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만족감을 느낀다. 죽었던 부인이 살아온 것만큼 좋아하더라는 표현에는 단순히 남편의 좋아하는 정도에 대한 묘사만이 아니라, 남편에게 여성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 그 이면에 담겨있다.

> (남편과) 가까워지지, 그럼.. 나는 여자라서 똑같고, 나쁘진 않다고.. 좋은 쪽이긴 하지. 한 60, 70%? 그 정도로 좀 좋아진 거 같고 나쁘진 않아.. 그래도 그것 때문에 생활이 달라지고, 남편이 이뻐보이고 그런 건 아냐.. 그냥 우리 남편이 돈도 좀더 잘 주고, 생활도 좀 편하게 해주고, 잔소리 덜하니까 그게 좋지, 그거 때문에 남편이 더 이뻐 보이고 그러진 않더라고.. 그런데 남자는 확실히 그게 아니더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게 마치 죽었던 부인이 살아온 것만큼 좋아하더라고? 그만큼 자기는 그렇게 몸이 가벼워졌대.. 그게 축적이 되어 있어서 그랬던지..? (중략) 자네, 고마워, 고마워하면서.. 실은 내가 자네 방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 한 게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사례 3, 여/66)

단순히 성적 극치감을 목표로 하는 것만이 성이라면 자위행위로서 얻는 만족감과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가 육체적 쾌락만이 아니라 음양이 만나 자연의 이치에 따라 서로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정서적으로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 얻는 바가 커지게 된다고 여긴다.

> ..혼자 흥분이 되어 수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액이 고이면 탱크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분출할 때의 기쁨은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애무하는 거나 서로 맞대는 거는 좋지만.. 아무튼 극치감은 비슷해요. 극치감은 순간적으로 느끼는 기분이고,.. 수음할 때나 성관계를 통해서나 느끼는 극치감은 같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사정을 하고 나면 그냥 곯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날 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아침에도 눈이 잘 떠지고 오히려 개운한데, 수음하고 난 뒤에는 아침에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요.

음양의 기운을 서로 나눔으로써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몸이 찌뿌드한 것도 없고.... (사례 5, 남/66)

또한 성은 갈등을 없애고 서로를 심리적으로 가깝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임(남/ 71)은 젊은 시절 성에 대한 별다른 관심 없이 지내면서 다소 형식적인 부부관계로서 아내에 대한 각별한 정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점점 부부생활에 흥미를 가지고 성관계를 활발히 가지면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내의 고생이 마음에 다가오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한결 정이 두터워졌다고 한다.

젊어서 참 내가 그 당신한테 만족도 못 느끼게 해주고 이렇게 한 것이 제일 지금에 와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중략) 30대까지도 그런 것을 몰랐는데, 그만치 관계를 내가 않고 이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정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정스러운 부부관계는 참 이렇게 되..(부부관계를 통해) 정이 더 두터워지고, 더 흥미가 있고 그렇지. (중략) 젊어서 성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이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중략) (나이가 들었다고 부부간에 아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없지. 마음은 똑같지 젊었을 때나. 부부간에도 젊어서는 젊었을 때대로 거식한데. 늙어가면서 그 망태사랑이라 해서 아주 그런 것이 더 두터워지지. 망태사랑이란 옛말이지... 정이 깊어가고.. 뭐 그런 거야...(사례 9, 남/72)

⑧ 친밀성의 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과 의욕이 소생하고, 자기발전의 적극적 계기가 제공되다

민(사례2, 여/ 73)은 남편과 사별한 뒤 찾아온 상실감과 외로움은 자식이나 주변 친지들이 해결해 주지 못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성의 사랑어린 열성은 결국 인생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감을 딛고 다시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힘을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

어떤 남자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를 애껴 주면서 말벗이라도 따뜻하게 되어주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이런 일도 있구나.. 내가 혼

자 되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중략) 그러니 2년이라는 세월이 서럽고, 쳐다볼 데도 없고, 꼭 어디 낭떠러지에 서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어쩌다 생기니 이렇게 힘이 생기지.. 그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니까 그때는 이제 정신이 나더라, 이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면 나도 저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그러면서 저렇게 친구가 되고, 말벗도 하고.. (사례 2, 여/73)

김(사례 6, 여/ 83)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몸과 마음에 즐거운 변화가 찾아온 것을 느낀다고 한다. 사랑을 하게 되면서 몸과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랑을 하면 아름다워진다고 느끼는 건 소녀나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런 말도 있지 않아요? 실제로 누구를 사랑하고 그러면 몸도 좋아지고 예뻐지고 그런 거 같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게 있어요.. 혼자서 답답하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가서도 내가 좀더 부지런해지고, 얼른 뭘 더 봐야지, 해야지 그런 맘이 생기니까.. 저도 생활을 하는데 좋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보면은 먹을 거면 해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구.. 난 내 맘이 그러니까.. 옛날에도 괜찮은 홀아비가 저기 살 때도 뭐 아까운 거 없이 어디 역으로 나오라고 해서 주고, 잘 먹어주면 고맙고 반갑고 그랬어요.. 그게 그 이상의 마음이니까 좋고 반갑고 그런 거예요..(사례 6, 여/83)

이성친구와의 교제는 생활에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단조로운 생활에서 벗어나 자기를 계속 계발하게끔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또 이성친구를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한 접촉을 통한 교류와 마음에의 감동이 삶에의 의지를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성친구가 생기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뭐든지 활력소가 생기는 거 같고.. 집에서도 자꾸 상상을 해보고

싶고, 생각이 나고.... (이성노인의) 모습이 상상이 되고, 전화 오면 반갑고.. 늙었다고 그런 것도 없으면 목석이에요..(중략) 그게 연애예요, 연애.. 그러니 가끔 연락이라도 되어서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먹고, 다방에 가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게 사는 위안이지, 뭐.. (중략) 아이, 그런 것도 없으면 이건 금수야, 금수.. 그저 먹고 싸고 그거지.. 그래가지고는 못살아요, 나는.. 나는 그래가지고는 너무 답답해서 못살 거 같아요.. 그저 내가 이렇게 덜렁거리고 살아도 나와서 다니고, 이 나이를 먹었어도..? 또 그러니까 깨끗이 하고 싶고, 뭐든 좀 바르고 싶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중략) 그게 바로 여성이지.. 그렇게 깨끗이 보이고 싶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얌전히 보이고 싶고.. 그런 거지.. 안 그래요? (사례 6, 여/83)

확실히 활력소가 되요.. 확실해요.. 우리 어릴 때의 친구도 가끔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좋고 생기가 나요.. 우리 동생뻘 되는 친구 아이는 "뭐 언니는 그런 전화를 기다리고 왜 그러냐"는 거야, 상처받지.. 그렇게 기다리고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느냐 그거야, 전화를 하면 하나 부다, 안 하면 안 하나부다 그냥 내버려두지 왜 거기에다 기대를 거냐고 그러는데.. 안 그래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고 그러면 여자나 남자나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은 참 반가워요, 또 기분이 좋아.. 그렇게 활력소가 되요, 남녀교제가.. 사는데 활력소가 된다구.. (사례 4, 여/74)

박(사례10, 남/ 77)에게 이성과의 교제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퇴색된 인생에 새로운 가치와 활력을 줌으로써 노년에 부딪치게 되는 심리적인 방황을 끝내고 안정감을 되찾게 해 주고 있다. 또한 우(사례4, 여/ 74)의 경우처럼 젊음을 부여하기도 한다.

지금은 이 사람하고 한 밤만 갔다오면요 아주 며칠동안 기분이 좋아요. 이 사람도 그러겠지만요. 그러니까 연애는 아주 인생을, 인생의 활력을 재생시키고, 인생의 방황을, 그때 방황하는 개념이걸랑요. 오륙십 대개 마음을 정착시키는 좋은 매체가 되죠..(사례10, 남/77)

이성교제가 외로움을 달래주고, 젊음을 주고.. 젊어지잖아요, 마음이

젊어지고.. 그렇게 젊음을 주지..(사례 4, 여/74)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의미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로 고요하고 정체돼 있던 생활에 움직임이 싹트고, 조화로운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누군가를 위해 치장하고, 그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기쁨을 얻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靜)과 동(動)이 균형을 이룬 생활이 되고 여기에서 건강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성간의 만남에서 얻는 기쁨은 정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영양을 주고 소극적이던 생활에 자극이 되고 있다.

>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친구를 많이 사귀고 그러면 건강합니다.. 그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고, 또 그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챙기고 그러는 것이,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건강에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게 만약 없다면 집에서 잠이나 자고 누워있지.. 또 뭐를 하겠냐 이거예요.. 누군가를 만난다 하는 기분, 신촌에서 몇 시에 누구를 만난다.. 그게 얼마나 기분 좋고, 또 운동도 되고.. (중략)자꾸 움직이게 되니까.. 생각을 하고 움직이게 되니까 그런 것이지.. 또 정과 동이 같게 된다 이거지.. 왜냐 가만있으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움직여서 가야지요, 또 만날려면 이것저것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오.... (중략) 만나서 조용하고 고요할 때도 있어야 하고, 또 활동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야 한다 이거지.. 정과 동을 동시에 하면은 그게 바로 건강을 가져오는 거 아니야.. (사례1, 남/74)

> 지금 6년 전 건강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허허허허.. 더 깊은 얘기는 우리가 애정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이번에 내가 77인데 내가 정사를 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번씩 정도는 아무 일 없이 합니다. 우리가 테크닉이 있어서 상대방을 내가 사정을 안 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사례10, 남/77)

> 이성간에 만남이, 같이 만나서 똑같은 교육을 받았을 적에 거기서 용기가 생기더라 이거야..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 할아버지들 없이 할머니들만 있으면 아무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서 이렇게 음양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음양의 조화 없이는 기쁨

이 없어요.. (중략) 서로 허허 웃고 그러는 가운데서 엔돌핀도 나오고 그런 것이지.. 엔돌핀은 그야말로 육체의 영양 아닙니까, 영양.. (사례1, 남/74)

또한 박(사례10, 남/ 77)은 자신이 원하는 이성과의 교제를 통해 우울과 근심, 외로움이 사라지고 활발해짐을 말하고 있다.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이성과의 교제가 인생의 어두운 면을 사라지게 했다고 한다.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을 떨치고 낙관적이고 즐거운 자세로 생활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법적 결혼관계로만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이른바 정서적 별거상태에서 박은 노년기의 친밀함의 교류로써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6년째 그분하고 교제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외롭지 않아요. 어제도 그분이 왔다가고 그러는데 , 일주일에 두 번씩은 만나고 그래요. 원래 집에서는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엄마가 워낙 우직하고 그러니까..(중략)...변화가 뭐냐면 우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전부 명랑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심이 다 없어졌어요. 근심이 뭐냐면 자살생각, 으스대고 싶은 생각.... 여자도 똑같구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 동창생들에게 가서, 다 알죠, 근심 하나도 없죠. 아무 것도 없는 외로운 여자일 땐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노래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지. 그런데 연애하는 남자 애인이 있으면 활발하게 노래하고 그러지. 어두운 면이 없어져 버려요. 결혼을 안 해도. 연애만 해도. 참 연애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례10, 남/77)

만족감은 단순히 성행위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성을 통해 얻게 된다고 한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깊은 교감이 오고가는 이성과의 관계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만족감을 주고 있다.

두 내외가 만나도 서로가 그 어울리는 정이 매치가 안 되면요 그게 허전한 거예요. 두 내외가 잠자리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잠자리 같이 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이와 잠자리를 같이 할 때 여자도 세상 부러

울 게 없다 이거죠. 세상을 다 얻은 거죠. 더 이상 없어요. 남자도 그래요. 내 이쁜 아내를 데리고 자면서 내 마음과 기분을 풀면요 아무 것도 바랄 게 없어요. 그게 정이 가져오는 효과예요. (사례10, 남/77)

또한 박(사례10, 남/ 77)은 사랑하는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자신이 성적 존재로서 살아나게 됨으로써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자신의 힘을 키워야겠다는 의욕이 생겼다고 한다. 삶의 활력은 나아가 경제적 힘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한 의욕까지 발현시켜 제2의 발전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인생을 알게 되었어요. 그 동안 정치하느니 관리하느니 하면서 집에 들어오면은 불행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방황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 여인을 처음에 만났더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대성하고 참 좋았을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한 70정도는 흐뭇합니다. (중략) 좋은 여자 만나면, 돈을 벌어야겠다, 사회적 이상을 높여야겠다,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자기 발전 의욕이 다시 소생합니다. 내 아내가, 아내가 아니라도, 숨은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달라요. 사람이 연애하면 단박에 안다고. 여자들 바보들도 얼굴 보면 너 연애하는구나, 단박에 안다고. 표정이 바뀌요. 그 생활하는 심정이 바뀌죠.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게 좋은 거예요. (사례10, 남/77)

2. 현상학적 글쓰기

관심현상에 대한 진술은 두 단계를 갖는 데, 먼저 선행연구단계를 거쳐 확인된 현상을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기술한다. 그 다음 단계로 현상의 본질적 구조에 대해 가능한 한 다른 진술로 총체적 진술을 형성, 현상학적 글쓰기를 한다(Collaizzi. 1978).

따라서 1)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관심현상인 노인의 성에 대해 앞에서 제시한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기술하고, 2) 단계에서는 노인의 성에 대해 규명한 본질적 구조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노인의 성에 대한 총체적 기술

육체의 성적 변화에 대해 대응하다 : 타인의 모습에 투영된 늙은 모습의 낯선 자신을 깨닫는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육체적 노화를 인정하지만, 마음은 육체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고, 정신적 젊음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젊음의 지표로 여기던 성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성적 쾌락과 만족감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다. 또한 성교통의 경험은 스스로의 성적 실현을 쉽게 체념하게 하고, 부부간의 갈등 속에 배우자의 외도를 허용하는 역설적 태도를 취한다. 지금의 성생활양상은 지나온 삶의 경험과 과거의 성생활양상을 반영한다. 꺼지지 않는 성적 욕구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끼지만, 아직은 늙지 않았다는 안위감과 함께 내적인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여전히 신체적인 접촉에 적극적인 남자노인들에 비해, 여자노인들은 말벗과 정서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접촉을 바란다.

사회문화적 환경의 제약을 수용하다 : 전통적 가치관에 근거한 노인상에 대한 자기 예언적 기대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고, 타인지향적 의식으로 인해 사회적 규범에 의해 강요된 억제된 성적행동을 취한다. 또한 여성노인들은 남자노인들보

다 이성에 대한 접근성이 더 제한되지만, 이러한 사회적 여건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제약적 환경에서 성적욕구를 통제하기 위해 거울에 비추인 늙고 힘없는 현실의 모습을 억지로 의식 속에 주입하면서 합리적 판단으로 여긴다. 또한 성적 충족감에 대한 기대나 가치를 낮추고, 종교적 계율과 수동적인 여성성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성적욕구를 억제하는 자신에 대한 합리화를 통해 자존감의 상승을 꾀한다.

성적 감정의 재발견을 통해 성적존재로서의 자신을 깨닫는다 : 잊혀졌다고 여겼던 성적 감정이 스스로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새롭게 체험한다. 그리고 이성의 눈길을 끌고자 장식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또한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 동성에게서와는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즐긴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 성적 매력을 지닌 존재로의 생명력에 대한 확인과 성적 충족감의 성취에 대한 동경과 향수를 품어본다.

성적 존재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구성한다 : 성별에 따라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인지가 다르게 변화한다. 그리고 새로운 역할수행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설 자리를 찾고 의미있는 존재로서 삶을 통합하고자 한다. 각자가 처한 맥락에 따라 상대를 수발하거나 책임지는 부담을 가지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관계를 원한다. 또는 실리적으로 경제력과 안정된 환경에 대한 욕구나 성적 탐미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대를 통해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남녀간에 힘의 균형을 향한 변화가 일어난다. 올바른 성역할모델이 제시되지 못 하는 사회적 풍토에서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다.

이성과의 이상적 교류를 가슴에 품는다. : 이상적인 이성은 편안하게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 보일 수 있고 허물을 수용하는 상대로, 아늑한 안식처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이성과는 힘의 편중이 없는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보완하는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서로가 감당할 수 없는 차

이로 인한 어긋남이 없이 함께 공유하는 합일의 관계를 추구한다. 그리고 몸짓에 불과한 자신에게 존재의미를 갖게 해 줄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 삶의 종착역까지 같이 걸어가기를 갈망한다.

성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 본능으로서 신성함을 갖는 성은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된다. 또한 마음과 몸의 건강을 보존하게 하는 성, 힘과 생명력의 상징으로서의 성을 바라본다. 생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기쁨을 주는 유희로서의 성의 의미를 발견하며, 성교위주의 감각중심의 가치에서 벗어나 음양이 만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갈등을 해소하여 하나로 화합하는 관계의 의미로서 성을 바라본다. 이성과 친밀함을 나누는 교류는 새로움이 없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과 정이 조화를 이룬 건강한 생활을 가져온다. 또한 오늘과 다른 내일에 대한 희망이 생기게 하고 의욕을 소생시킴으로써 자기발전에의 적극적 계기를 제공한다.

2) 노인의 성의 본질적 구조에 대한 현상학적 글쓰기

노인들은 젊음의 지표로 여기던 성기능이 저하되고, 타인을 통해 투영되는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보면서 육체적 노화를 수용하게 되지만, 정신적 젊음으로 이를 보상하고자 한다. 이에 가면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 속에 각인시키고자 하나, 생각에 앞서서 발생하는 본능적 끌림과 구애적 자기과시는 자신을 성적 존재로서 재위치시킨다. 그러나 노인들의 자성예언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동조는 강요된 자기억압적 성적 표현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성별에 따라 방출욕과 접촉욕의 차이가 나고, 정력과 순결의 이중적 성규범은 일그러짐을 낳는다. 한편, 성역할에 대한 재구성으로 자유로운 관계의 형성과 힘의 조화로의 이동이 시작되며, 대치역할을 찾아 자신이 설 자리를 확보하고 의미있는 삶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또한 허물이 많은 현실의 모습을 개방할 수 있고, 이를 포용해줄 수 있는 이상형에 대한 염원을 가진다. 그리고 서로 동질성과 취약성을 공유하면서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추구하며, 이러한 관계는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갖게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한다. 생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활의 일부로서 더 이상 은밀하지

않은 성은, 성교 위주의 감각적 성에서 유희적이고 친애적 성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이로써 생활에 활력과 의욕이 소생하고, 더불어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의욕을 북돋아 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창조적 힘을 갖는다.

제 5장. 논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나타난 노인들의 성에 대한 의미와 주제, 본질적 구조에 대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고찰하고, 앞으로의 실천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노인의 성(sexuality)에 대한 논의

본 연구결과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삶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결과로 제시한 노인의 성에 대한 본질적 구조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참여자들의 성기능을 위시한 육체의 성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문화적 환경속에서 이를 수용하는 과정, 그리고 성역할과 성정체감의 변화와 통합을 위한 노력, 성 의미의 확대와 이상적 관계의 기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성에 대한 얘기로 가장 먼저 성기능에 대해 강조하여 언급하였다. 성기능의 감퇴나 상실을 통해 육체적 노화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고 이에 육체적 노화가 이질적으로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육체적 노화에 대해 정신적 젊음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비록 성에 대한 생각이 생물학적 성기능으로부터 발단되고 있으나, 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요소까지 포함하여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참여자들이 성기능에 대해 받아들이는 의미나 성기능변화에 대한 대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남자노인들의 경우, 성기능을 남자구실의 핵심적 요소로 여기면서 남성으로서의 생명력자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Stern(1997)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발기 불능은 자아 존중감을 저하시키고, 성적인 능력에 대한 자신감 결핍을 초래하고 있었다. 김(사례 7, 남/ 78)과 박(사례

10, 남/ 77)은 성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기능이 소실되어 '인간이 아닌 송장으로의 하락과 같은 비참한 신세'로 비춰지는 다른 남자노인들에 비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박(사례1, 남/ 74)의 경우, 더 이상 발기가 되지 않는 자신이 마치 '냄새를 못 맡는 나비와 같다..',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라 가는 데.. 목적지를 잃은...',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서 창문을 열어놓아도 고향의 냄새를 맡지 못하는 신세'로 한탄하고 있었다. 나비에게 후각은 꽃의 꿀을 찾아내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나비가 냄새를 맡지 못한다면 더 이상 생명을 영위하기 힘들고 이에 비유되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절망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더욱이 박(사례1)은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인간다운 예의를 통해 신성한 본능으로서의 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으로서 살지 못 하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무의미한 생활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성적 욕망의 종교로의 승화 의지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절망적 고백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성기능을 제대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뿐 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성기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친구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성생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려는 모습이나, 여전히 '자신은 발기가 된다며 성기능을 자랑하는 동년배에게 수치심으로 자신의 기능이 여의치 못함을 숨기면서 속으로는 상대동년배 남성의 얘기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현상은, 남자노인들 집단에서 성기능의 여부가 우월감과 힘을 부여하는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성기능이 유지되는 상태가 부여해주는 긍정적 힘보다 성기능의 상실에서 느끼는 절망감의 무게가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사회에서 남자노인들이 노화에 따라 기존에 주어졌던 권력과 힘에 대한 박탈감을 겪으면서, 성에 대한 왜곡된 신념으로 더욱 몸에 연연해하고 이를 통해 힘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육체적 성기능에 대해 과도하게 남성성이나 힘의 상징으로서 연결짓는 사고로 인해 생리적 기능손상이 기타 정서, 정신, 사회적 기능을 차단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성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단순히 성적욕구를 만족시키는 방향으

로 도와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성기능의 감소가 정서적 기능이나 사회적 관계를 차단시키지 않도록 남성성이나 힘의 상징으로서 연결짓는 사고를 변화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여자노인참여자들은 폐경기가 지나면서 정도의 차는 있으나 심하게는 면도날로 살을 도려내는 듯한 성교통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스스로가 성욕이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식기능이 사라지면서 성욕이 감소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발정기와 관계없이 성욕을 느끼고 이를 통해 만족감을 취하는 존재임을 감안할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를 쉽게 포기하는 현상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라 여겨진다. 더욱이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면서도 배우자로서의 성적 역할제한에 대한 미안함에 남편의 외도마저 허용하는 역설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성교통의 심각성(Doughty, 1996) 뿐 아니라, 여성의 역할이 남성의 성적대상으로 도구화되어 온 우리나라 노인들의 남성위주의 결혼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나 의료계에서 남자들의 발기능력 저하나 성기능 감퇴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남자노인들이나 의료인들 서로가 다분히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고 해결점을 찾는 데 비해, 여자노인들에게서의 성기능의 감소나 성적 변화는 쉽게 묻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 여성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나 표현, 그리고 경험하는 성문제는 남성들과 여러 면에서 다르게 나타났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밖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또한 '헌 몸'이나 '조신함' 등의 표현에서 여성에게 굴레로 작용하는 개념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경험에 대한 명칭이 갖는 정치적 힘을 강조하는 Frye(1983)의 지적대로 여성의 행동은 흔히 여성을 속박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명칭이 부여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조주현(2000)도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험을 명칭하는 언어가 모호하고 의미가 간접적이고 불확실하여 여성의 경험을 비가시적으로 만들고 있고, 따라서 여성의 경험은 개별화, 최소화로 특징지어지고, 주변화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도 이윤숙(1982)과 Johnson(1998)의 연구에서처럼 남녀의 육체적 접촉에 대한 적극성이나 선호도에 있어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정신적 교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노인기 역시 남자의 방출욕과 여자의 접촉욕 중심의 차이를 보여주고는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생식기적인 성적 활동 즉, 대화, 애무, 포옹, 키스 등이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에게서도 나타나고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었다.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쾌감만을 목표로 하는 배출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갈등에 쌓인 부부가 화합하고 서로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박(사례 3, 여/ 66)의 표현하고 있는 '아파서 귀찮아하고,. 안 받아줬는 데.. 산에 다닌 탓인지 다시 되더라고.... 남편은 꼭 죽은 마누라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좋아하더라고.. 연신 고마워 고마워 하고.. 나도 좋고.. 애들 볼까봐 감춰놓긴 하지만 윤활유를 이젠 쓰고...'이란 내용은 성기능의 회복이 부부간의 친밀감을 복구시키며, 정서적, 물리적, 사회적 관계의 강화를 돕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꼭 성교만이 아니더라도 부부간에 서로가 솔직하게 자신의 성욕에 대해 털어놓고 문제점에 대해 해결할 방도를 찾거나,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통해 만족감을 부여해 줄 수 있음을 서로가 알아간다면 노인기 부부관계에서 발생되는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이성에 대한 끌림이 생각이전에 발생한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이성에 대한 동반적 욕구가 노인기에도 여전히 본능으로 존재함을 뜻한다. 따라서 노인들 역시 성적존재이며, 이들 스스로 성적 존재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행위의 의미는 욕구배설이나 오르가즘의 성취로만 표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존재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지 확인받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죽기 전에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란 표현은 성적 존재로서 성취감을 맛봄으로써 희미해져 가는 자신의 존재감을 재확인하고, 마음은 젊다는 내적감정에 대해 인증받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러한 마음은 순간적

으로 솟구치는 강한 본능적 요소이라기보다는 내면에 담고 있는 은근하면서도 절실한 갈망으로, 아쉬움과 함께 혼재되어 나타난다. Drench와 Losee(1996)가 제시한 것처럼 성정체성 개념이 생물학적인 성충동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스스로의 인지로부터 유도되는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인식을 수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사회문화적 제약이 이러한 성정체성과 성행위의 자율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간의 섹슈얼리티의 한 차원인 성별(gender)이 사회적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는 데,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사회의 관습과 규범, 관행의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어린 시절부터 전통적 유교문화에서 자라온 참여자들은 점잖은 노인의 모습을 그려왔고, 스스로 자신에게 이러한 이미지를 요구하고 있었다. '나이가 있으니까... 경계하지...마음을 떠나..', '체면이 있으니까.. 노인이면 주위에서 바라는 모습이 있지..' 등의 표현은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시선을 동일시하면서 그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자아와 이성적 자아의 괴리를 야기하는 자성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란 현상으로, 노인을 탈 성적 존재로 단정해버리는 사회적 편견이 노인 스스로의 자발적 승인과 결합하여 자성예언을 형성하고 노인의 기본적 욕구충족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차별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오세근, 1997).

이러한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은 사회적인 형성된 이미지가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대중매체나 문학작품 등에서는 노인들이 대개 무성적인 존재일 뿐으로, 아주 현명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주책 맞은 무식한 노인네로 묘사되었고(김미애, 1998; 서병숙, 김혜경, 1998), 노인의 성은 드라마에서 우스운 얘깃거리로 다뤄져 왔다(Kessel, 2001). 노인에 있어서의 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 활동은 일탈된 행위로 간주되어지고, 더러운 늙은이, 호색가, 늙은 암탉과 같은 용어로 묘사되면서(Ebersole & Hess, 1994)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 노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성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부모나 조부모와 연결지어 생각이 되고(Hillman & Stricker, 1994), 따라서 자기 부모만큼은 성생활 같이 더러운 행

위는 일체 하지 않는 도덕적인 존재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어린 시절의 미숙한 감정이 투사됨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Brogan, 1996; Kessel, 2001).

특히나 여성노인들의 성은 사회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데(서병숙, 김혜경, 1998), 본 연구참여자들의 경우도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에 비해 더욱 사회적 시각에 대해 민감하였고, 이성교제나 재혼에 대해서 집안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라 여기며 남자친구와 사귀고 싶은 자신의 마음이 곤혹스럽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재혼에 대해, 그리고 딸의 경우가 더욱 더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었다. 김(사례 7, 남/ 78)의 경우 재혼당시 '일단 결혼한 여자는 헌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혼한 아내를 처음엔 '단순한 수발자나 성적상대로 생각'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민(사례2, 여/ 73)의 경우도 '한 남자에게만 몸을 바치고 지켜왔다'는 자부심은 이제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는 당당하지 못 한 '낡고 망가진 몸'이라는 생각을 동시에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순결이데올로기의 확장으로 정절개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숙경(1993)은 지배적인 성의 각본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단일적인 규범의 제시로 인한 성통제의 의미를 갖게 하는 동시에, 여성에게는 보다 협소하고 엄격한 규범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중적 성규범은 남성으로 하여금 지배적인 각본과 다른 하위각본을 동시에 수용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여성이 하위각본을 수용할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덕적 비난과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참여자들은 자신이 성적 욕구가 있다는 자체를 기뻐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제약적 환경으로 실제 발현이 어려우므로 스스로 성적 욕구를 억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여자노인에게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 길들여져 있는 여성노인들의 체념과 수동성이 같이 깃들여져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남성은 성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자신의 힘과 우월성의 증거로 삼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성적 욕망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수동적이다. ‘여자니까 함부로.. 행동을 조심하고.. 이러한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기쁘지..’ 등의 보수적 여성성인 조신함을 자신의 미로 강화시키거나, ‘속살은 우유빛이야.... 기다릴만한 자신감 같은 건 잃지 않지..’, ‘70이 넘어도... 여자기 때문에 곱게 모든 걸 행동해야 한다구... 여자답게 화장하고..얼굴 다듬어서 루즈라도 바르고..’ 등의 표현은 나이들어도 피부가 곱고 살이 안 찐 모습 등 신체적 외양에 국한된 여성적 미를 고수함으로써 스스로 위로하고 자존감을 유지하려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혼란은 여성의 성은 정조관념과 연결된 반면, 남성의 성은 정력과 과도하게 개념적 유착을 보이면서 성별에 따라 성에 대한 상이한 규정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결과 정력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에 대한 평가가 나뉘고, 여성을 성녀와 탕녀로 이분화하는 것은 이중적 성규범의 결과이다(이숙경, 1993). 여성학에서는 남성의 몸이 정신적이고 문화적으로 여겨지는 데 비해 여성의 성과 몸은 개별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Helman, 1994). '자연'은 인간 삶의 생물학적인 면을 대표하고 변화가능하며 국소적 전후관계에 더 의존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데, 이러한 인식들이 여성의 사회적 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성으로 축소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임은옥, 1999)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따라서 여자노인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적절한 기준과, 상품화된 신체적 가치에 근거하지 않은 젊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또 하나 노인들의 성적 자율성에 있어 억압으로 작용하는 주 기제는 금욕적 종교에 따른 가치관이다. 일부참여자들은 성적억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종교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성적욕구를 자제하는 자신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보상기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앙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행위가 제한되고 섹스에 덜 개방적인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Hillman & Stricker, 1994; Johnson, 1998)와 맥을 같이 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볼 때, 인간의 섹슈얼리티가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갈수록 억압받고 있으며, 그 표현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속에서 통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들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든스가 설명하고 있는 소위 푸코적

억압가설로 본다면, 현대의 제도들은 그것이 제공하는 혜택만큼 인간은 어떤 대가, 곧 억압의 증대를 지불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기든스 저, 황정미, 배은경 역, 1995). 그는 인간의 문명이 기율을 의미하고, 인간이 세운 여러 제도 내부에 내재된 기율권력은 순종적 육체, 곧 충동의 유발에 따라 자발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통제되고 규제받는 육체를 생산한다고 하였다. 또한 권력은 쾌락을 생산하는 도구이며 단순히 쾌락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따라서 섹슈얼리티는 사회가 물리적으로 그 힘의 행사를 제한해야 하는 본능적 충동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히 조밀한 권력의 전선이자, 그 권력과 융합됨으로써 발생되는 에너지를 통해서 사회통제의 핵심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자노인들의 경우 이성에 대한 접근성이 남자노인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차적으로 여자노인들이 남자노인들보다 평균수명이 길어 상대가 되는 노인남성이 수적으로 부족한 데다, 이성교제에서 대상자로서의 남자의 연령이 여자의 연령보다 높은 사회적 풍토에 기인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여자노인들이 자라온 환경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 한 탓에 다양한 관계망이 형성되지 않아 남자노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더욱이 스스로나 주변의 시각이 여자노인들이 혼성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남자노인보다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자노인들의 이성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낮아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Drench와 Losee(1996), Nay(1992)의 연구결과, 미국 노인들의 50%이상이 성적으로 활동적이었으나, 75세 이후에는 성적 활동이 상당히 저하되는 데 이는 질환과 배우자의 사망이 주요원인이었으며, 따라서 많은 노인 여성들이 강한 성욕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성의 인구학적인 불균형으로 성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노인 남성들은 배우자의 죽음 후 재혼까지의 기간이 평균 3년으로, 평균기간이 7년인 여성보다 더 일찍 재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국의 경우도 남성들의 이성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사회전체의 수용적 태도가 필요함은 새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노인인구의 특성상

상대연령층의 이성인구가 희박한 여성노인들에게는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가족이나 친구 차원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여가나 취미활동 등의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배려와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참여자들의 재혼에 대한 생각은 여러 면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재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참여자들은 남자의 경우 수발을 담당하거나 성적 상대로서의 필요성 때문이고, 여자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거나 가정 내에서의 위치가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 보다 안정된 상태로의 위치상승을 원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물론 간접적으로 여자노인들 역시 성에 대한 욕구가 큰 경우를 언급하긴 하였으나, 참여자 중에서는 성에 대한 욕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와 반대로 재혼을 부담스럽고 얽매이는 관계로 여기는 부정적 태도는 남자노인들에 비해 여자 노인들에게서, 특히 가정 내에서의 위치가 보장된 경우에 더욱 강하게 드러났다. 이에는 자식들에 대한 배려가 작용하기도 하지만, 또한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의 가족 내로 편입되는 현재의 결혼구조가 갖는 위험에 대한 불안이 더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가부장적 결혼제도 안에서 남녀가 상호이득을 공유하는 부분은, 여성의 경우 결혼관계를 통한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의 노동의 성적 분업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실제적 이득으로 보호와 경제적 부양을 취하며, 남성의 경우 경제적 책임을 짐으로써 그 대가로 상대의 가사노동과 가부장적 질서에서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케럴 베이트만 저, 이충훈, 유영근 역, 2001). 따라서 이러한 대가에 대해 메리트를 느끼지 못 하는 경우에는 결혼보다는 부담없는 연애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박(사례3, 여/ 66)이 '남편이 든든한 기둥이지, 기둥이야..'라고 하면서도 재혼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마음에는 공감하지 않는 것은,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불평등에 대한 실제적 체험을 통해 결혼이란 낭만적인 사랑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탓이라 여겨진다. 결혼이 가져오는 자신의 지위하락과 강요되는 가사와 수발에 대한 제공자로서의 억눌린 삶을 살기보다는 스스로의 정체성과 독

립성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사별한 여자참여자들의 부정적 태도도 마찬가지로,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한정된 보필하는 역할로서 살아온 삶이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과 독립성에 대한 지향은 경제력을 포함한 힘과 능력의 소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여자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관계를 추구하고 있었다. 한편, 남자노인들의 경우에도 현재 자신의 몸이 건강한 경우에는 재혼보다는 연애관계에 대해 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 데, 이는 남성노인 역시 기존의 가치관에 따라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워지는 경제적 울타리 역할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노인들의 재혼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노인들의 재혼관은 자신의 취약성과 강점을 고려하여 가장 실리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여성노인들이 수발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때문에 인간관계의 형성이 목적인 이성교제나 재혼에 대해 부정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 또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이 요구되는 하나의 문제현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의 성정체감과 역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아내의 지위격상과 돌보는 역할에 대한 의미부여이다. 노인들 대부분이 남자의 사회적 활동과 연결된 직, 간접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은퇴로 인해 이를 대치할 역할을 일차적 집단인 가정 내에서 찾고자 하였다. 자손들을 돌보는 역할에 대해 힘겨워하면서도 '편하고자 하면 죽는 게 가장 편하지..'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자손을 돌보는 역할이 노인들의 성역할에서 큰 의미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태현(1994)이 제시한 것과 달리 여성과 남성의 역할의 전환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지 않았고, 다만 아내의 역할에 대해 남편들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정 내에서 아내의 지위가 격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노인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가정 내에서 돌보는 역할을 통해 자신이 설 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자녀들 위주의 헌신적인 부모로서의 가치관이 반영된 현상이며, 또한 책임감이 큰 부모로서의 역할과 달리 조부모의 역할은 상대

적으로 부담이 적은 것(조복희, 정옥분, 오가효, 1999)도 한 영향요소로 판단된다. 그리고 노인들이 참여하고 즐기거나 봉사활동을 제공할 만한 사회적 제도나 시설, 여가활동이 미흡한 점도 영향요인 중 하나라 사료된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성의 의미는 젊은 시절과 공통된 요소를 가짐과 동시에 변화된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성을 '남녀노소 누구나 가지는 본능이며, 점잖음을 따지지 않는 신성한 본능적 요소'로 인식하는 것은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성에 있어 은밀함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녹아난다는 것은, 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배고픔과 똑같은 인간의 자연적 욕구임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Bortz 와 Wallace(1999)가 밝혔듯이 노인들에게 성행위는 건강의 지표가 되는 동시에 또한 생활에 즐거움과 가치를 부여하면서 건강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을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도 연결짓고 있는 점은 성 정체성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성의 실현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적 존재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성적 존재로 자신의 욕구를 느끼고 이를 해소함으로써 육체도 더욱 건강하고 정신도 건전해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자위를 통한 욕구해소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교육을 들은 뒤에 여성노인들도 모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위를 하고 있다고 손들었다는 얘기나, 타인의 경우를 빗대어 얘기하고는 있지만 노인기의 자위에 대해 자연스러운 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는 청소년 성교육 뿐 만이 아니라 노인들의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나아가 김(사례5, 남/ 66)의 '젊었을 적 성적 욕구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아무 음식이나 허겁지겁 먹는 것과 같다면.. 나이들어서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음미하고자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지요..'에서 보여지듯이, 성적욕구가 단순한 쾌락차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성찰을 토대로 하여 '미식가가 맛의 심미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성과의 만남과 관계에 대해서도 심미감과 연결되어 짐을 알 수 있다. 음미한다는 것은 단순히 욕구를 채우는 성이 아니라 과정적 성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성의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삽입위주의 성교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연애 감정, 사랑의 감정 그리고 상대의 기분을 돋구어 주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남성위주의 감각중심적 의미에서 정서중심의 가치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Michael(1994)은 성은 생식으로서의 성(reproductive sex), 관계로서의 성(relational sex), 유희로서의 성(recreational sex)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젊었을 적에는 생식으로서의 성이 비중이 높았지만, 나이가 들어 생식자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서 서로간에 기쁨을 제공하는 유희로서의 성이 그 비중을 높여가게 된다는 것은 노년기의 성에서 특징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미를 부여하는 관계로서의 성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사별한 신(사례11, 여/ 66)이 '가슴이 도려나간 듯 외로울 때가 있지.. 같이 덮던.. 이불을 가위로 확 잘라버렸어'란 얘기나, 또한 부부간의 애정이 돈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례8, 여/ 69)의 경우에도 '남편 없이 홀로 남겨지는 것을 자신의 죽음보다 더 두렵게 느끼면서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을 복이라 여기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차원이 아닌 관계로서의 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지는 노인기에 자신이 어느 누구에게도 의미있는 존재가 되지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은 외로움과 절망감을 낳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은퇴로 인해 자신의 주역할이었던 경제적 울타리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 하게 되면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게 됨을 볼 수 있었다. 경제적 역할을 대신할 역할을 가정내에서 찾고자 하나 전통적 가족관계에서는 남성들이 가정내의 역할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역할이 통째로 사라진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내에서 수용되지 못 할 경우, 자신을 경제적 역할로 국한짓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여줄 상대에 대한 갈망이 크게 자리잡는다. 이러한 것은 박(사례1, 남/ 74), 박(사례10, 남/ 77)의 경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역할의 감소와 더불어 부부간에 진실한 사랑이 없고,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폐쇄적이고 고립된 존재의 외로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우울과 실의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도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을 받아줄 상대를 그리워한다. 그러나 사례1

의 경우, 자신의 육체적 기능의 감소로 사회적 관계까지 차단시키면서 '물에 빠진 연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질' 상대를 찾지 못 한 채, 여전히 '냄새 못 맡는 나비'처럼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반면, 박(사례 10, 남/ 77)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던 부부관계로 인해 외로움과 공허감에 모든 것이 우울하였으나, 6년전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 뒤로 '나폴레옹이 된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다. 사랑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다. 왜냐하면 사랑하려는 욕구 또는 사랑받으려는 욕구가 인간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장영란 등, 1999).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고유한 삶의 영역 없이 생활하는 가운데, '나를 알아주고.. 신비스럽게 나를 표현해 주는 상대'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은 노인들의 이성과의 교류가 노인 스스로의 고유성과 존엄성을 부여해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참여자들은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오늘과 내일이 별다르지 않는 정적인 생활에 움직임과 활력이 더해지면서 생명력 있는 생활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활력은 '자신의 발전에 대한 의욕을 소생'시켜 제2의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었다. 성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과 새로운 성장과 경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다(Hordern, 2000).

따라서 조정옥(1999)의 주장대로 섹슈얼리티의 특성은 자발적이며 가치영역을 넓히는 창조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Ebersole과 Hess(1994)가 노인기의 성을 Maslow의 욕구 계층 틀에서의 설명한 대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기능인 생식을 목적으로 한 남성위주의 신체적 성에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상위수준의 의사소통의 증가, 신뢰, 사랑, 공유, 기쁨을 주는 성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바라는 이상적 관계들은 기존의 권위적이고 힘이 한쪽으로 편중된 복종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게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관계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성은 진정한 기쁨을 제공한다. 박(사례3, 여/ 66)은 결혼당시 힘이 없고 의존적 상태에서는 부부간의 성행위에서 자신이 마치 창녀와 같다는 몰락감을 느꼈지만, 나이가 들면서 남편과

보다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자 성행위가 깨끗하게 느껴지고 기쁨이 커졌다고 하였다.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 힘이 부재하는 관계는 없다. 힘의 부재가 아니라 힘의 편중이 없는 대등한 관계야말로 성행위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또한 이상적 관계로서의 대등성은 비단 권위적 힘에 국한되지 않는다. 참여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이상성 이성으로서의 '몸와 마음의 적합성',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동격'이란 특성은 결국 대등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육체와 정신, 영적인 측면에서 어느 한 쪽으로 기울거나 틀어짐이 없다는 것은 동질성과 대등성을 의미한다. 김(사례5, 남/ 66)은 몸과 마음을 마부와 말에 비유하면서, 몸과 마음 어느 하나에 중요성을 두기보다 양쪽 모두 적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동격이라는 것은 성에 대한 자신의 심미성이나 육체적 조건, 그리고 종교 등 모든 부분이 비슷하고, 이야기가 통하며, 바라보는 곳마저 일치하는 제2의 나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대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속적이고 든든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이성상대는 현실의 부족한 나를 수용하는 상대이다. 젊을 적 흔히 꿈꾸던 백마 타고 온 왕자 같은 소설 속 주인공 같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대 또한 부족함을 갖지만 서로가 부족한 모습을 수용하고 이를 메꿔 줄 수 있는 상대를 원하는 것이다. 현실에 기반하여 이상형을 원하는 모습은 젊은 시절의 이상형에 대한 갈망과는 차이를 보인다 하겠다. 늙고 추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 보일 수 있고, '흉을 봐도 흉하지 않은' '내 편으로서'의 신뢰감을 주는 편안한 관계를 원하고 있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그들과 개방된 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 나누며 주고 받는 사랑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은 개인이 타인을 의식하게 하고 그에게 개방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동양에서의 전통적 견해에서는 이성간의 관계를 음양으로 설명하는 데, 이는 단순히 서로 다른 성(性)이 만난다거나, 또한 완벽함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본 참여자들이 말하는 음양의 만남은 부족함을 가진 서로가 만나 서로의 그

부족함을 수용하고 메꿈으로써 안정된 조화로운 상태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부족함을 개방'하고 '부족함을 상호가 수용'하여 '조화로운 안정'된 동반자적 관계로 요약할 수 있다.

요약해보면, 노인기에 있어 성이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신체적, 정서적 자기표출의 욕구이자, 이러한 욕구를 사회적 구조 속에서 풀어나가는 적응과정과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역할,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개방하고 친밀한 교류를 통해 기쁨과 생의 활력을 얻고, 조화로운 관계 속에 자기존재의미와 자기발전의 계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창조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노화나 노령이라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 노인들의 정서적 결속에 대한 기회와 친밀성을 추구하는 행위가 단절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해 자기발전에 대한 계기와 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순환고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2. 연구결과의 적용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의 성'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과, 이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자들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우선적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학부 교과과정에서부터 노인의 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포함시킴으로써, 인간의 자연적 욕구이자 신체적 행위에 국한하지 않는 넓은 의미에서 노인의 성을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선의료인들에게 보수교육의 기회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노인들의 건강사정을 수행함에 있어 성에 대한 부분을 필수적으로 포

함하며, 현 질환으로 인해 정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 또는 발생가능한 성문제는 없는 지 확인하고, 대상자의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성상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역시 시급하며, 더불어 노인들의 성건강 상담이나 문제사정을 위한 지침 및 정보제공을 위한 소책자 개발 작업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특히 간호사는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노인들의 성문제를 상담하고 지지해 주며, 이때 신체적 기능의 감퇴를 성적 존재로서의 상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교육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앞서의 작업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들은 자라온 성장배경의 영향으로 아직도 성에 대한 시각이 육체적 성기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고, 이를 남성성의 상징이나 정절개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신체적 기능의 감퇴가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 노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를 새롭게 정의내릴 기회가 필요하다. 이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정과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종합복지회관 등에서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 스스로의 인식전환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들이 친밀감 형성의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노인들이 바라보는 성은 친애적 성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성과의 친밀한 교류는 생의 활력과 자기 존재의 의미, 그리고 자기 발전을 가져오는 가치고양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대로 노인들의 성에 대한 의료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시도와 더불어 공공의료부문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들은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교제의 장이 매우 적고, 또한 이러한 성격의 사설모임에 대해서 노인들 스스로나 주변인들의 시각이 아직도 부정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나 시 차원에서 후원하는 공신력있는 노인들의 모임이 좀 더 많이 제공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판

단된다. 또한 현재 노인들이 성에 대해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노인정이나 노인대상의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소 중 일차적으로 몇 곳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성교육프로그램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넷째, 성별에 따른 성인식과 표현양상 및 이성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의료적, 사회적 접근이 다르게 시도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그리고 성별뿐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에서의 위치, 경제력이나 자아성찰에 따라 이성에 대한 시각과 관계에의 지향점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 계층,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고려한 개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또한 남성노인들에 비해 인구구성비가 높은 여성노인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남성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노력이 한층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스스로 성적느낌을 묻어버리고, 성 역할의 제한에 대해 역설적으로 대응하는 여성노인들의 경험이나, 수발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이성교제에 대한 가능성을 접어두는 문제는 더 이상 개별적이거나 주변화현상으로 밀려나지 않게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힘북돋우기가 절실한 때이다.

다섯째, 노인들에게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손들을 돌보는 역할을 통해 긍정적 성정체감과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었는 데, 이는 현 노인세대의 자녀들 위주의 헌신적인 부모로서의 가치관과, 노인들이 즐길 수 있거나 봉사를 제공할 시설에 대한 요구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시설과 탁아시설, 유치원들이 공간적으로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내에 같이 운영되는 센타의 설립 등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센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노인들과 아이들이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 노인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이들의 발표회 등에서 노인들이 같이 참가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현대 핵가족 사회에서 노인

들에 대한 사회적 소외나 이해부족, 그리고 일반 가정의 보육비 부담의 감소 등의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탈 성적 존재로 단정하는 편견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 필요하고, 특히 무엇보다 대중매체의 노인과 노인의 성에 대한 왜곡적 이미지 형성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성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나서야 각계에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기 시작한 점을 되새겨보면서, 이와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인의 성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거나 문제화되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중매체나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노인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제공하는 내용들이 구성되어 일반인들의 부정적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현 사회에서의 노인들에 대한 차별적 시각 아래 노인이 외면시되는 사회적 풍토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노인들의 삶의 중요한 요소인 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깊게 고찰해보고자 실시한 질적연구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노인들의 삶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노인의 성(sexuality)에 대한 의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성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노인들의 성적 자율성과 권리실현을 위한 간호중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현상학적 질문은 '노인들의 성(sexuality)은 무엇인가?'이다.

2001년 6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3개월 반 동안 총 12명의 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연구참여자별로 진행된 면담횟수는 1회에서 4회였다.

자료의 분석과 자료의 수집과정은 동시적으로 수행하였고, 자료분석은 Collaizzi (1978)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노인의 성(sexuality)에 대해 6개의 주제와 32개의 의미가 다음과 같이 추출되었다.

1) 육체의 성적변화에 대한 대응: 신체적 감퇴에 대해 정신적 젊음으로 보상하다, 젊은 시절 성교에 의한 쾌락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다, 성적 상대로서의 역할 제한에 대해 역설적 태도를 취하다, 지난 삶의 경험이 반영되어 성생활양상이 지속되다, 성적 표현의 선호도에 대한 성차와 성적 표현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다, 변함없는 성적욕구로 자기안위와 내적 자신감을 가지다

2) 제약적 환경에의 수용 : 타자지향적 성향으로 사회적 규범에서 요구하는 억

제된 성적 행동을 취하다, (여성노인들은) 이성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다, 육체적 현실을 의식적으로 각인하여 성적욕구를 통제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인지하고자 하다, 성적욕구억제를 위한 대안적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자존감의 상승을 꾀하다

3) 성적 감정의 재발견 : 이성과의 만남으로 성적 감정을 새롭게 체험하다, 이성의 관심에 대한 구애적 욕구로 자신을 장식하다, 이성과 어울림에서 동성모임과는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즐기다, 성적 존재로서의 생명력에 대한 확인을 기대하다

4) 성정체성과 성역할의 재구성 : 성별에 따라 다르게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인지의 변화를 보이다, 새로운 역할수행에 대한 수용적 자세로 자신의 설 자리를 찾고 삶을 통합하고자 하다,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자유로운 관계를 원하다, 서로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상대를 찾아 힘있는 삶을 얻고자 하다, 여생의 동반자로서의 이성에 대한 존재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남녀간 힘의 균형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다, 노인의 올바른 성역할 모델이 부재한 사회풍조에 대해 비판하다

5) 이상적인 관계의 이성에 대한 기대 : 허물을 감싸주는 안식처로서의 이성을 기대하다, 서로 맞춰가며 상호보완하는 조화로운 관계를 원하다,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합일의 관계를 추구하다, 나의 존재의미를 확인시켜주는 동반자를 갈망하다

6) 성의 의미 재확인 : 성은 본능으로서 신성하다, 성에 대한 은밀함이 덜어지고,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다, 성기능은 힘과 생명력의 상징이다, 성적 표현은 건강한 심신을 보존하게 한다, 생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유희물로 기능하다, 성교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를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로 전환하다, 음양이 만나 부족함과 갈등을 메꾸는 하나로의 화합에 대한 추구이다, 친밀성 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과 의욕이 소생하고 자기발전의 적극적 계기가 제공되다

그리고 노인의 성(sexu ality)에 대한 본질적 구조를 보여주는 글쓰기는 아래와 같다.

노인들은 젊음의 지표로 여기던 성기능이 저하되고, 타인을 통해 투영되는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보면서 육체적 노화를 수용하게 되지만, 정신적 젊음으로 이를 보상하고자 한다. 이에 가면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 속에 각인시키고자 하지만, 생각에 앞서서 발생하는 본능적 끌림과 구애적 자기과시는 자신을 성적 존재로서 재위치시킨다. 그러나 노인들의 자성예언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동조는 강요된 자기억압적 성적 표현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성별에 따라 방출욕과 접촉욕의 차이가 나고, 정력과 순결의 이중적 성규범은 일그러짐을 낳는다. 한편, 성역할에 대한 재구성으로 자유로운 관계의 형성과 힘의 조화로의 이동이 시작되며, 대치 역할을 찾아 자신이 설 자리를 확보하고 의미있는 삶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허물이 많은 현실의 모습을 개방할 수 있고, 이를 포용해줄 수 있는 이상형에 대한 염원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와 서로 동질성과 취약성을 공유하면서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추구한다. 이러한 관계는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갖게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한다. 생식에서 자유롭고 은밀하지 않은 성은 성교 위주의 감각적 성에서 유희적이고 친애적 성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이로써 생활에 활력과 의욕이 소생하고, 더불어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의욕을 북돋아 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창조적 힘을 갖는다.

본 연구결과, 노년기의 성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차원의 기본적 욕구이자 친밀성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미와 자아발전과도 연결되는 근원적이며 창조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먼저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을 통해 노인들의 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수용적인 접근과 상담과 지지를 제공하며,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긍정적인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구체적 방안들에 대한 모색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제언

1)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노인들의 성에 대한 의미들과 주제, 그리고 본질적 구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의미들을 연결하거나 구술된 진술들을 토대로 가설을 세워 후속연구로서의 양적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대상을 의료인과 일반인으로 구분하고, 일반대중을 위한 프로그램은 연령별로 청, 중, 장년, 그리고 노인기로 나누어 구성할 것을 제언한다.

3) 간호학과를 위시하여 보건의료나 인문사회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대학교과과정에 노인의 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4)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학제간 연구팀에 의한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5) 본 연구 결과, 허물없고 흉하지 않게 흉을 보는 사이로서 이성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하거나, 또는 음양의 기운 교류와 조화로 이성과의 이상적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 등 친밀성에 대한 한국적 정서를 반영하는 의미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성을 주제로 비슷한 문화와 상이한 문화를 가진 국가 간 횡문화적 연구를 시도할 것을 제언한다.

6) 노인들의 성에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난 관계지향적 욕구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7) 본 연구결과는 요즘 늘고 있는 황혼이혼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본다. 따라서 노인기 부부들의 정서적 별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인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곽영수(1993). 노화의 적응에 관한 심리·사회적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계숙(1999). 여성의 성건강개념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애(1998). 광고의 노년층 묘사에 관한 내용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태련, 장휘숙(1994). 발달심리학(2판). 서울: 박영사

김태현(1994). 노년학. 서울: 교문사.

김태현, 한혜신(1996). 사별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서울시 재혼노인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6(1), 18-38.

문장합(1999). 노인의 성적 권리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서병숙, 김혜경(1998). 노인의 재혼에 대한 기혼자녀의 지각. 한국노년학, 18(1), 90-106.

서병숙, 김은진(1996). 홀로된 여성노인의 재혼 실태 연구. 한국노년학, 16(2), 53-66.

서혜경, 이영진(1997). 노년기의 성에 관한 다각적 고찰. 제2회 노인 보건복지 세미나 자료집.

송미순, 김신미, 오진주(1997). 노인간호연구와 전망. 서울대학교 출판부.

양해림, 유성선, 김철운(2001). 성과 사랑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오세근(1997). 노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복지 철학적 이해. 제2회 노인 보건복지 세미나 자료집.

오진주(1998). 노인의 성생활 경험에 대한 서술적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2(2), 236-251.

오진주, 신은영(1998). 노인의 성적욕구에 대한 시설 종사자들의 태도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18(2), 97-109.

윤가현(1990). 성심리학. 서울:성원사

윤혜준(1998). 발설의 윤리. 오생근, 윤혜준 편. 성과 사회-담론과 문화. 서울: 나남출판사.

이미경(1998). 노인부부의 성생활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숙경(1993). 미혼여성의 성에 관한 연구-낙태행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윤숙(1993). 노인과 성-성과 문화.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편).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172-199.

이창은(2000). 노인의 성생활 인식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은옥(1999). 여성차별적 다중 전환기동안의 폐경경험: 조소득 한인 이민 여성. 대한간호학회지, 29(6), 1336-1351.

임춘희(1997). 재혼한 남자노인의 재혼가족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19-137.

장영란, 황수영, 이혜정, 신지영, 강미라(1999). 성과 사랑, 그리고 욕망에 관한 철학적 성찰. 서울:서광사

정동철(1996). 노년의 성과 윤리. 아산사회복지 사업재단(편). 제 8회 사회윤리 심포지엄 자료집: 현대사회와 성윤리.

조기동(1993). 혼자 사는 노인과 재혼-한국 노인복지회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3(2), 153-162.

조복희, 정옥분, 오가효(1999). 인간발달. 서울:교문사

조성숙(1999). 건강: 노인과성. 노인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조정옥(1999). 감정과 에로스의 철학-막스셀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최복란(1996). 노인의 이성교제 태도 연구: 대전광역시 주거 재가노인 등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원기(1990). 노인의 차별화에 대한 일고찰: 하위문화와 현대화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춘식(1999). 섹슈얼리티의 영화적 진실. 부산외국어대학교 어문학연구소. 외대어문논집, 14(1), 459-475.

하상락, 김성이(1986). 정년퇴직인의 생활실태. 한국정년퇴직인 협회.

하재청, 류태형, 김병기, 노영복, 이경희(1997). 성의과학. 서울: 아카데미출판사

한국브리태니커사전. 1999. 한국브리태니커회사

한성열 편역(2000). 에릭슨, 스키너, 로저스의 노년기의 의미와 즐거움. 서울:학지사

한영현(1997). 노인의 성적권리에 대한 복지철학적 이해에 대한 토론. 제 2회 노인-보건 복지세미나 자료집.

레나트 하우저 저(1994), 성행동에 대한 크라프트-에빙의 심리학적 이해(9장). 로이 포터, 미쿨라시 테이흐 엮음, 이현정, 우종민 역(2001). 섹슈얼리티와 과학의 대화 : 성지식 성과학의 역사(261-285). 서울 : 한울출판사

미셸 푸코 저(1976), 이규연 역(2000). 성의역사-앎의 미학. 서울:나남

미셸 푸코 저(1984), 문경자, 신은영 역(1994). 성의역사-쾌락의 활용. 서울:나남

샌더 질먼 저 (1994). 지그문트 프로이드와 성과학자들- 유태인의 이미지와 프로이트의 이론구성(15장). 로이 포터, 미쿨라시 테이흐 엮음, 이현정, 우종민 옮김(2001). 섹슈얼리티와 과학의 대화 : 성지식 성과학의 역사(403-436). 서울 : 한울출판사

앤소니 기든스 저(1992), 배은경, 황정미 역(1996).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제프리 윅스 저(1986), 서동진 채규형 역(1997). 섹슈얼리티 : 성의 정치. 서울:현실문화연구.

조셉 브리스토우 저, 이연정, 공선희 역(2000). 섹슈얼리티. 서울:한나래

카롤라인 라마자노굴루 저(1993), 최영, 박정오, 최경희, 이희원, 역(1998). 푸코와 페미니즘. 서울: 동문선 문예신서

캐럴 페이트만 저, 이충훈・유영근 역(2001).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서울: 홍익사

Harris DK 저, 최신덕. 김모란 역(1998). 노년사회학. 서울:하나의학사.

Reinisch, J.M. & Beasley, R. 저, 이영식 역(1992). (최신)킨제이 리포트. 서울 : 하서

AARP(1999). AARP/ Modern Maturity Sexuality Survey--Report, 1999, 9/ 10월호. http:// / research.aarp.org/ health/ mmsexsurvey.pdf

Altschuler, J., Katz, A.D.(1996). Sexual secrets of older women: counter transference in clinical practice. Clinical Gerontologist, 17(2), 51-67.

Archibald, C.(1998). Sexuality, dementia and residential care: managers report and response.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6(2), 95-101.

Bauer, M.(1999). Their only privacy is between their sheets. Privacy and the sexuality of elderly nursing home resident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5(8), 37-41.

Bortz, W.M. & Wallace, D.H.(1999). Physical Fiteness, Aging, and Sexuality. West Journal Medicine, 170, 167-169.

Brogan, M.(1996). The sexual needs of elderly people: addressing the issue. Nursing Standard, 10(24), 42-45

Brown, L.(1989). Is there sexual freedom for our aging population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3, 75-90

Bernhard, L.A. (1986). Sexuality expectations and outcomes in women having hysterectomies. Chart, 83(10), 11.

Butler, R.N.(1969). Age-ism: Another from of bogotry. The Gerontologist, 9, 243-246.

Butler, R.N. & Lewis, M.D.(1976). Sex after Sixty. NY;.Harper & Row

Carr, G.(1996). Themes relating to sexuality that emerged from a discourse analysis of the Nursing Times during 1980-1990. Nursing Times, 24(1), July, 196-212.

Christenson, C.V., & Gagnon, J.H.(1965). Sexual behavior in a group of elder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20, 351-356.

Collaizzi, P.F.(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Views It. In Valle, R.S. & King, M.(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pp. 48-71). NY: Oxford Univ. Press

Covey, H.C.(1989).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sexuality of the elderly during the Middle Ages. Gerontologist, 29(1), 93-100.

Davis, R.H. & Davis, J.A.(1985). TV's image of the elderly: A practical guide for change.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Dickey, R.M.(1989). Exploring nursing staff attitudes on sexuality. Nursing Homes, 38(3), 15-17.

Doughty, S.E.D.(1996). Menopause: a holistic look at an important transition to the last and best third of life. Topics in Geriatric Rehabilitation, 11(4), 7-15.

Dowd, JJ.(1975). Aging as Exchange: A preface to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0(5), 584-594.

Drench, M,E., Losee, R,H.(1996). Sexuality and sexual capacities of elderly people. Rehabilitation Nursing, 21(3), 118-123.

Ebersole, P., & Hess, P.(1994). Toward healthy aging: Human needs and nursing response. St. Louis: C. V. Mosby

Fairchild, S.K., Carrino, G.E., Ramirez, M.(1996). Social workers' perceptions of staff attitudes toward resident sexuality in a random sample of New York State nursing homes: a pilot stud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26(1/ 2): 153-169.

Finkel, A.L.(1972). Urologic counselling in male sexual importance. Geriatrics, 27, 67-72.

Fooken, I.(1994). Sexuality in the later years-the impact of health and body-image in a sample of older women.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ling, 23, 227-233.

Frye, M(1983). The politics of reality: Essays in fminist theory. Trumansburg, NY:The Crossing Press.

Gerbner, G, Gross, L, Sinnorielli, N & Morgan, M(1980). Aging with television: Images on television drama and conceptions of social reality. Journal of Communication, 30, 37-47.

Gibson, M.C., Bol, N., Woodbury, M.G., Beaton, C., & Janke, C.(1999). Comparison of Caregivers', Residents', and Community-Dwelling Spouses' Opinions About Expressing Sexuality in an Institutional Sett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5(4), 30-39.

Guarino, S,C. & Knowlton, C.N.(1980). Planning and implementation a group health program on sexuality for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6(10), 600-603.

Hammond, D.B. & Bonney, W.C.(1985). Results of sex education for support persons work in with the elderly.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11, 42-45.

Harris L., Wier M.(1998). Inappropriate sexual behavior in dementia: a review of the treatment literature. Sexuality & Disability, 16(3), 205-217.

Helman, C.G.(1994). Culture, health and illness(3rd ed.). Oxford, Great Britain: Butterworth Heinemann.

Hillman, J,L, & Stricker, G,(1994). A Linkage of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elderly sexuality: Not necessarily a uniform relationship. The Gerontologist Society of America, 34(2), 256-260.

Hogan, R.M.(1980). Nursing and human sexuality. Nursing Times, 76(30), 1296-1300.

Hordern, A.(2000). Intimacy and sexuality for the woman with breast cancer. Cancer Nursing, 23(3), 230-236.

Johnson, B.K.(1998). A correlation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exuality in women age 50 and older.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6), 553-564.

Kessel, B.(2001). Sexuality in the older person. Age and Aging, 30, 121-124

Kinsey A, Pomeroy, W. & Martin, C.(1948).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Saunders.

Laflin, M.T.(1996). Promoting the sexual health of geriatric patients. Topics in Geriatric Rehabilitation, 11(4), 43-54.

Loehr, J., Verma, S. & Seguin, R.(1997). Issues of sexuality in older women. Journal of Women's Health, 6(4), 451-457.

Lyder, C.H.(1991). Examining Sexuality in Long term care. Journal of Practical Nursing, 41(4), 25-27.

Masters, W.H. & Johnson, V.E.(1966). Human Sexual Response. Boston: Little Brown.

Masters, W.H. & Johnson, V.E.(1981). Sex and aging proces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29, 385-390.

McCartney, J.R., Izeman, H, Rogers, D. & Cohen, N.(1987). Sexuality and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35, 331-333.

McCoy NL.(1997). Sexual Issues for Postmenopausal Women. Topics in Geriatric Rehabilitation, 12(4), 28-39.

Michael, R.T.(1994). Sex, Health and Happiness. in Laumann, E.O., Gaguon, J.H. Michael, R.T., and Michaels, S.(1994). The Social Organization of Sexuality: Sexual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iller, A.M. (2001). Uneasy promises: Sexuality, health, and human righ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6), 861-864.

Munhall, P.L.(1986). Methodological issues in nursing research: beyond a wax appl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3), 1-5.

Munhall, P.L.(1989). Philosophical Pondering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Nursing Science Quarterly, 2(1), 20-28.

Narring, F.(2001).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 critical review of its application to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 13(1), 25-29.

Nay, R.(1992). Sexuality and aged women in nursing homes. In the face of overwhelming evidence that sexuality is essential to health and identity, society continues to make the aged sexually invisible. Geriatric Nursing, 13(6), 312-314.

Oiler, CJ. (1986). Qualitative methods: Phenomenology. NLN Publications, 15-1992, 75-103.

Omery, A.(1983). Phenomenology: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NS., 5(2), 49-63.

Persson, G.(1980). Sexuality in a 70-year-old urban populatio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4(6), 335-342.

Pfeiffer, E., Verwoerdt, A. & Wang, H.(1968). Sexual behavior in aged men and women. Arch Gen Psychiat, 19, 753-758.

Piras, A. & Sansoni, J.(1997). What are the sexual discomforts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and what do nurses know about the problem?. Professioni Infermieristiche, 50(1), 15-20.

Rankin, D.J.(1989). Intimacy and the elderly. Nursing Homes, 38(3), 10-14.

Ritchie, J. & Spencer, L.(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for applied policy research. In Bryman, A. & Burgess, R.G. Analyzing Qualitative Data (pp. 173-195). London: Routledge.

Rowland, K.F. & Haynes, S.N.(1978). A sexual enhancement program for elderly couple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4, 91-113.

Smedley, G.(1991). Addressing sexuality in the elderly. Rehabilitation Nursing, 16(1), 9-11.

Smook, K.(1992). Nurses' attitudes towards the sexuality of older people: an

investigative study. Nursing Practice, 6(1), 15-17.

Starr, B.D.(1985). Sexuality and aging.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eitrics, 5, 97-126

Steinke, E.E. & Bergen, M.B.(1986). Sexuality and Ag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2(6), 6-10.

Steinke, E.E.(1988). Older adults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sexuality and aging.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0(2), 93-95.

Steinke, E.E.(1994). Knowledge and attitudes of older adults about sexuality in aging: a comparison of two studi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3), 477-485.

Steinke, E.E.(1997). Sexuality in aging: implications for nursing facility staff.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28(2), 59-63.

Stern, M.F.(1997). Erectile dysfunction in older men. Topics in Geriatric Rehabilitation, 12(4), 40-52.

Szass, G(1983). Sexual incidents in and attitudes about sexuality and aging.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0, 93-95.

Thomas, B.(1989) Asexual patients. Nursing Times, 85(33), 49-51.

Walbroehl, G.S.(1986). Sexuality: advising the older patient. Comprehensive Therapy, 12(3), 35-38.

Walker, B.L. & Ephross, P.H.(1999).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sexuality of a group of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1(1/ 2), 85-107.

Waterhouse, J. & Metcalfe M.(1991). Attitudes toward nurses discussing sexual concerns with pati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6(9), 1048-1054.

Weidner, W., Altwein J., Hauck E., Beutel M. & Brahler E. (2001). Sexuality of the elderly. Urologia Internationalis, 66(4), 181-184

White, C.B. & Catania, J.(1981). Sexual education for aged people, people who

work with the aged, and families of aged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Human Development, 15, 121-138.

White, C.B.(1982). Sexual Interest, Attitudes, Knowledge, and Sexual History in Relation to Sexual Behavior in the Institutionalized Aged.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1(1), 11-20.

Williams, R.A., Lusk, S.L. & Kline, N.W.(1986). Knowledge of aging and cognitive style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Gerontologist, 26(5), 545-550.

Woods, N.F.(1987). Toward a holistic perspective of human sexuality: Alternations in sexual health and nursing diagnoses. Holistic nursing practice, 1(4), 1-11.

Zimmer, J.G., Watson, N. & Treat, A.(1984). Behavioral problems among patients in skilled nursing facilit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4, 1118-1121.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Sexuality of Elderly People

Kweon, Myoung Sook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was to explore the essential components of sexuality of elderly people and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it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This study applied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and the question was 'what is the sexuality of elderly people?'

In-depth interviews were done with twelve subjects from the middle of June to early September. It took one to four sessions per subjects.

The analysis was done following the method suggested by Collaizzi(1978).

As the results, six themes and thirty two meanings on sexuality of elderly people were derived. The six themes were coping with the sexual change in the body, acceptance of restrictive environment, rediscovery of sexual feeling, recomposition of sexual identity and gender role, expectation of ideal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and reconfirmation of meaning of sexuality.

And, the essential structure on sexuality of elderly people was understood as follows.

The elderly accept their aging bodies by recognizing their decreased sexual function and by looking at aging appearance of there peers. While they recognize their physical aging, they still maintain youthful mental image of themselves.

Even though their sexual function decreased, they are still attracted to the opposite sex and continued to have sexual feeling. Also, there is a gap between their mental image of their physical appearance and the one reflected in a mirror, as several subjects described that they felt like their physical appearance is a mask. In order to control their sexual feelings, they try to remind themselves about their physical appearance and their age.

Their self-fulfilling prophecy and social conformity lead to the self-restricted expression of sexuality. Also desire to have physical intimacy was expressed differently among male and female subjects. There was double standards elderly men expressed more about passion while elderly women expressed more about chastity.

On the other hand, reconstitution of gender role leads them to shift to free relationship and harmony of power. Also they try to search for replacement of the previous roles. So, they can find new meanings in their life.

The elderly have a longing to have someone whom they can open and without fear of rejection or criticism. They are looking for partners with similar social background, taste and physical competability. They also want someone who understands their physical and mental vulnerability and can compensate for each other's vulnerable areas. And this harmonious relationship makes them to cherish the meaning of one's existence and hope for future.

For elderly people sexuality no longer means reproduction nor something to hide. The sexuality means physical and mental intimacy and recreation. In addition, it has creative power to give vitality and harmony to life and to encourage one's desire to develop oneself and to enhance

self-esteem.

In conclusion, it was found from this study that the sexuality on elderly people means the desire in physical, emotional and social dimension. And they obtain pleasure, a sense of confidence, and a creative power to develop themselves through intimacy their partners.

It is suggested to consider sexuality as normal and natural aspects of life of elderly when health care providers plan for their care.

==========

Keywords : Sexuality, Elderly peopl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